

교회여, 함께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나타내자

제4차 한국로잔 목회자 콘퍼런스

2024 / 3 / 18(월)-20(수) · 원주 오크밸리 리조트



환영사

샬롬!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제4차 한국로잔 목회자 콘퍼런스에 참가하시는 모든 분을 기쁘게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올해로 네 번째를 맞는 이번 콘퍼런스는 지난 세 번의 콘퍼런스가 주었던 은혜와 도전 이상의 기대를 가지고 그동안 열심히 준비해 왔습니다 그만큼 큰 의미를 가진 콘퍼런스입니다.

우선 이번 콘퍼런스는 9월 개최되는 제4차 로잔대회를 앞두고 열린다는 점에서 사전 대회(Pre Conress)의 성격이 있습니다 지난 50년 동안 로잔언약에서 강조되어 온 특별한 세 단어를 소개한다면, 그것은 복음(Gospel), 세상(World), 교회(Church)입니다.

로잔운동은 단순함(Simplicity), 거룩함(Holiness), 겸손함(Humility)의 정신을 가지고 이 복음, 세상, 교회에 대해 끊임없이 고민하며 복음 전도와 사회적 책임을 감당해 왔습니다. 이번 콘퍼런스는 이러한 로잔운동의 가치와 정신을 재확인하고 함께 헌신하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또한 특별히 감사한 것은 9월 로잔대회 참석을 예정한 분들 이외에도 우리 한국 교회의 다양한 교단에 속한 230개 교회 800여 명의 목회자들이 참여한다는 점에서 이번 콘퍼런스는 코로나 이후 처음으로 한국 교회가 함께 소통하고 연대하는 연합 콘퍼런스가 될 것이라는 점입니다.

한국 교회는 부흥의 시기마다 언제나 복음 안에서 하나가 되었습니다. 서로 다른 교단 서로 다른 교회 그리고 서로 다른 목회적 환경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모두 복음전도라는 동일한 사명 아래 하나가 되어야 함을 언제나 도전하고 계십니다.

이를 위해 9월 로잔대회와 동일한 “교회여, 함께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나타내자.(Let the Church Declare and Display Christ Together)”라는 주제 아래 ‘복음의 우선성’, ‘복음의 포괄성’, ‘복음의 확장성’이라는 일일 주제를 통해 복음의 본질을 확인하고 연합할 수 있는 장이 되도록 프로그램을 준비하였습니다.

확신하기는 2024년은 한국 교회 역사에서 새로운 회복과 부흥의 분기점이 될 수 있는 해입니다. 복음만이 이 시대의 유일한 소망입니다. 아무쪼록 이번 콘퍼런스를 통해 우리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우리 모두 한국 교회의 부흥을 다시금 견인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한국로잔위원회 의장, 제4차 로잔대회 공동조직위원장 이재훈 목사

제4차 로잔대회 한국준비위원회 위원장 유기성 목사

제4차 한국로잔 목회자 콘퍼런스 준비위원장 최성은 목사

교회여, 함께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나타내자

제4차 한국로잔 목회자 콘퍼런스

	3/18(월) 복음의 우선성	3/19(화) 복음의 포괄성	3/20(수) 복음의 확장성
7:30	교회여, 함께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나타내자	아침 식사	아침 식사 및 숙소정리
8:00			
8:30		성경강해 그리스도 중심의 설교 (브라이언 채플 목사)	적용과 실천2 선교적 목회란 무엇인가? (이인호 목사/박영호 목사)
9:00			
9:30			
10:00		로잔대회를 향한 기대 및 Q&A (마이클 오 목사)	적용과 실천3 선교적 삶은 무엇인가? (지형은 목사/박노훈 목사)
10:30			
11:00		테이블그룹 토의	테이블그룹 토의
11:30			
12:00			폐회예배 (한기채 목사)
12:30		점심 식사 및 개인휴식	점심 식사 및 귀가
1:00	도착 및 등록		
1:30		주제특강3 (이규현 목사/주승중 목사)	Let the Church Declare and Display Christ Together!
2:00	개회예배 (이재훈 목사)		
2:30			
3:00	주제특강1 (한철호 선교사/문대원 목사)	적용과 실천1 선교적 교회란 무엇인가? (안광복 목사/정명호 목사)	
3:30			
4:00	주제특강2 (유기성 목사)	테이블그룹 토의	
4:30			
5:00	테이블그룹 토의	교제 및 산책	
5:30			
6:00			
6:30	저녁식사 및 개인휴식	저녁식사 및 개인휴식	
7:00			
7:30	발제: 복음의 우선성 (최성은 목사)	발제: 복음의 포괄성 (정갑신 목사)	
8:00			
8:30	패널토의 (진행: 최형근 교수)	패널토의 (진행: 길성운 목사)	
9:00			
9:30	기도회 및 광고	기도회 및 광고	
10:00	숙소	숙소	

2024 제 4 차 로잔대회를 위한

한국로잔 목회자 콘퍼런스

참가자 안내

살롬!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제4차 한국로잔 목회자 콘퍼런스에 참가하시게 된 것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올해로 네 번째를 맞는 이번 콘퍼런스에는 다양한 교단에 속한 230 개 교회 800 여명의 목회자들과 스태프들이 함께 할 예정입니다.

2박 3일 동안 진행될 이번 콘퍼런스가 함께 하는 시간 동안 모두에게 풍성한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많은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콘퍼런스 참가를 위해 필수적으로 참고하셔야 할 내용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참가자 안내사항

1. 장소안내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지정면
오크밸리 2길 38 (오크밸리리조트
스키빌리지 컨벤션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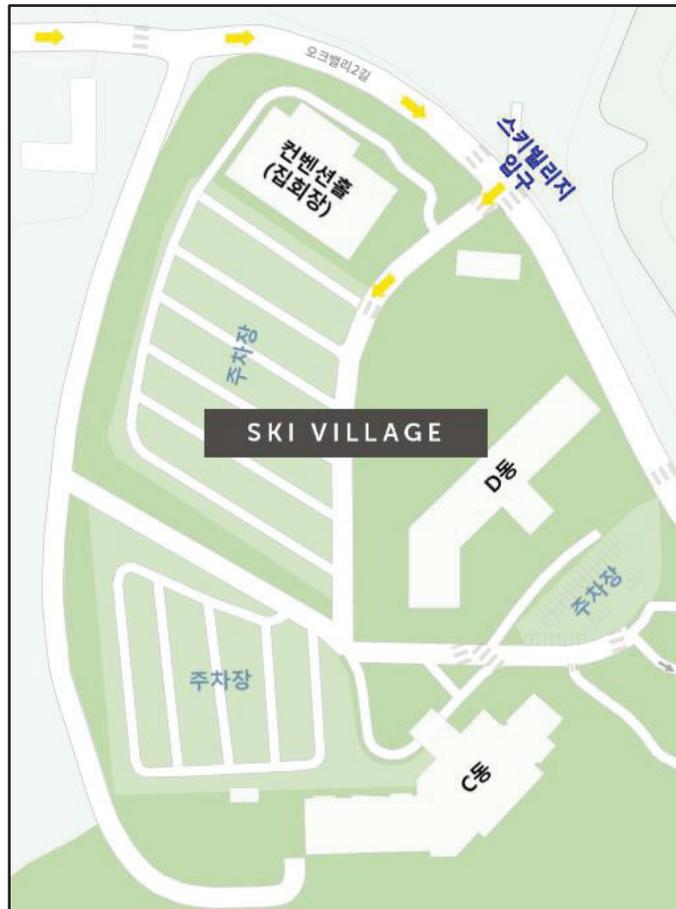
숙소는 오크밸리 스키빌리지(C,D 동)를
사용하고 강의는 인접한 컨벤션홀에서
진행됩니다.

2. 등록시간

콘퍼런스 시작시간은 오후 2시입니다.

첫날 점심식사는 별도로 제공되지
않습니다. 등록은 12시부터 진행하며
숙소는 당일 현장에서 배치합니다.

단, 숙소 입실은 오후 3시부터
가능합니다.



2024 제 4 차 로잔대회를 위한

한국로잔 목회자 콘퍼런스

참가자 안내

3. 입장 및 주차

도착하시면 안내를 따라 앞서 표기되었던 지도의 컨벤션홀 앞 주차장에 주차를 하시고 Gate1 으로 입장하시면 되겠습니다. *컨벤션홀 입구 양 옆으로 있는 아래 주차장들은 장애인, 진행팀, 감사 차량 주차와 이동, 북테이블 설치로 인해 사용할 수 없습니다.



4. 준비물

- 1) 케이프타운 서약(ivp) 책이 있으신 분들은 꼭 지참해 주시고 현장에서 구매가 가능합니다.
- 2) 텀블러 또는 개인컵 사용을 통해 종이 및 1회용품 사용을 가급적 최소화하고자 합니다.
* 콘퍼런스 핸드북 또한 종이 제본이 아닌 PDF 파일로 공유됩니다.
- 3) 복장: 일반 지역보다 평균 2~3 도 낮은 기온을 참고해 주시고 집회와 강의는 세미정장 또는 편안하지만 격식을 갖춘 복장으로 참석해 주십시오.
- 4) 개인세면도구: 헤어 드라이어와 타월, 욕실화는 숙소에 구비되어 있습니다.

5. 문의

- 1) 이메일: L4precon@gmail.com *권장
- 2) 전화: 이성희 목사(010-5128-5120), 조선구 목사(010-8926-7547)

2024

Seoul 2024
INCHEON

서울-인천 제4차 로잔대회

9. 22(일)~28(토)
인천 송도컨벤시아

Let the Church Declare and
Display Christ Together
교회여, 함께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나타내자.

주최 로잔운동(Lausanne Movement) 국제본부

주관 한국 및 아시아 로잔위원회

실행 국제 및 한국 준비위원회

참가 - 제4차 로잔대회 초청국가 222개국, 참가 예상 국가 200개국

- 현장 참가자 5,000명 / 온라인 참가자 5,000명

- 목회자, 선교사, 기업가, 예술가, 교육자, 환경운동가 등 다양한 영역의 성도들

- 국제 및 한국 운영요원 1,400명

주요 리더 마이클 오, 이재훈, 패트릭 핑, 유기성 등

- * 역사상 최초로 아시아교회와 한국교회가 공동 개최
- * 급변하는 세상의 흐름에서 다극화된 선교적 영역을 조망하며 전략을 제시하는 선교대회
- * 복음을 향한 열정을 사도행전적 교회를 삶으로 증명하도록 도전하는 선교대회
- * 우주적인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비전은 혼자 힘으로 할 수 없음을 인정하는 겸손의 대회
- * 온 교회가 세계복음화를 위해 감당해야 할 전략과 협력을 위해 헌신하는 대회



»»»»»» 목차

개회예배_	선교적 하나됨(이재훈 목사)	9
주제특강1_	로잔운동과 한국 교회와 선교의 미래(한철호 선교사)	10
	로잔운동의 역사(문대원 목사)	26
주제특강2_	주 예수님을 바라보자!(유기성 목사)	34
발제1_	복음주의의 우선성에 대하여(최성은 목사)	37
패널토의1_	복음의 우선성에 관한 패널토의	41
	(진행: 최형근 교수 / 패널: 이재훈 유기성 한철호 최성은)	
성경강해_	멀리까지 도달한 복음(브라이언 채플 교수)	43
특별강의_	로잔대회를 향한 기대(마이클 오 총재)	51
주제특강3_	복음주의 교회의 미래 전망(이규현 목사)	52
	한국 교회를 위한 예배 로드맵 “예배 이후의 예배”(주승중 목사)	53
적용과 실천1_	전통적인 교회를 어떻게 선교적교회로 만드는가?(안광복 목사)	60
	선교적 교회란 무엇인가?(정명호 목사)	62
발제2_	복음의 포괄성(정갑신 목사)	66
패널토의2_	복음의 포괄성에 관한 패널토의	70
	(진행: 길성운 목사 / 패널: 주승중 이인호 안광복 정갑신)	
적용과 실천2_	한국 교회 연합기도운동을 꿈꾼다(이인호 목사)	72
	하나님의 선교, 하나님의 목회(박영호 목사)	78
적용과 실천3_	공감과 연대의 교회-소외된 이웃과 교회의 본질에 관한 묵상(지형은 목사)	84
	로잔의 총체적 선교와 한국 NGO의 활동사례-월드비전을 중심으로(박노훈 목사)	91
폐회예배_	복음주의적 연합의 비전: 예루살렘 공의회(한기채 목사)	92
부록_	복음주의 운동으로서의 로잔운동의 이해:	94
	우리가 붙들어야 할 7가지 제언(최성은 목사)	



복음의 우선성



개회예배

선교적 하나됨

이재훈 목사(로잔대회 공동조직위원장, 온누리교회)

요한복음 17:20-26

20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저희 말을 인하여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21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것 같이 저희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22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저희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것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 니이다

23 곧 내가 저희 안에,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저희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 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저희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24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서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 전부터 나를 사랑하시므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저희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25 의로우신 아버지여 세상이 아버지를 알지 못하여도 나는 아버지를 알았삽고 저희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 신줄 알았삽나이다

26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저희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저희 안에 있고 나 도 저희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주제특강 1

로잔운동과 한국 교회와 선교의 미래

한철호 선교사(한국로잔위원회 부의장, 미션파트너스)

〈로잔운동의 이해〉

배경

1974년에 시작된 로잔운동(Lausanne Movement)은 2차 세계대전 이후 전개된 후기 식민지 시대와 이어지는 포스트모던 시대의 세계 복음주의 교회와 선교 운동에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 로잔운동이 1974년에 스위스 로잔에서 열린 세계 복음화를 위한 대회(1974 Lausanne Congress on World Evangelization)로부터 출발했지만 그 역사는 1910년에 열린 에든버러 세계 선교사 대회(1910 World Missionary Conference) 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또한 1910년 에든버러 선교사 대회는 18, 19세기 부흥 운동의 결과 일어난 세계 복음화의 소망을 가진 이들에 의해서 잉태됐다.

한편 1910 에든버러 세계 선교사 대회의 정신을 그대로 이어갈 것을 소망했던 선교를 위한 교회 연합운동은 기대했던 대로 흘러가지 않았다. 1901년 에든버러 세계 선교사 대회 이후 세계 교회는 엄청난 시련을 맞이하게 된다. 첫째로, 두 번의 세계대전을 겪으면서 당시 세계가 기대했던 계몽적 인간 진보에 대한 꿈이 깨어져 버렸다. 둘째로, 세계 교회는 전통 근본주의 복음주의 신학과 현대주의 신학의 충돌로 양극화되기 시작했다.

이 과정에서 1910년 에든버러 세계 선교사 대회는 세계 복음화를 위한 선교사들의 모임에서 세계 교회의 연합과 일치를 위한 교회 운동(WCC)으로 그 모습을 바꿔 가기 시작했다.¹⁾ 따라서 세계 복음화 과업을 완수하기 위해서 선교사 중심으로 모인 1910년의 에든버러 세계 선교사 대회는 확장된 현대주의적 선교 개념을 따라 점차로 복음주의적 전도보다는 복음을 정치 사회적 개념으로 재해석하고 이를 확장하는 교회 상층부 연합운동으로 그 방향을 바꿨다.

이 과정에서 복음주의자들은 그 정체성과 역할을 잃어버리게 되었다. 게다가 선교지에서는 2차 세계대전 이후 남반구 국가들이 서구 열강으로부터 독립하면서 서구 교회의 선교 사역은 선교사 철수라는 압박을 받는 모라토리움 시대로 들어가게 되었다. 그러나 다른 한편에서는 2차 세계대전에서 미국으로 돌아온 퇴역 군인들 가운데 자신들이 싸웠던 곳으로 복음을 들고 다시 가려는 열망이 부흥 운동으로 확산되기 시작했다. 이제 복음주의자들은 새로운 계기가 필요했다. 이에 힘을 얻은 복음주의자들은 빌리 그레이엄의 초청으로 1966년 베를린에서 세계 복음화를 위한 모임을 하게 된다. 결국 1910 에든버러 대회의 복음전파와 선교적 열정을 이어가길 원했던 복음주의 진영은 20세기 후반에 다시 힘을 얻어 빌리 그레이엄과 존 스토틀 등이 중심이 되어 새로운 운동을 일으킨다. 그리고 마침내 1974년 세계복음화를 위한 로잔대회(1974 Lausanne Congress on World Evangelization)가 열리게 된 것이다.

1) 결국 에든버러1910 대회는 이후 1914년 세계 교회 연합(WCC: World Church Council)으로 발전했고 이 과정에서 선교사들의 연합인 IMC(International Missionary Council)은 독립된 구조를 가지게 되었다. 그 후 교회의 존재 이유가 선교임을 주장한 네슬리 뉴비킨의 노력으로 1961년 IMC가 WCC 내부로 다시 들어가지만 이미 WCC운동은 현대주의 자유주의 신학의 토론의 장으로 발전해 갔고 그 결과는 선교의 목표가 인간화(Humanization)가 된 상태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성을 강조하는 복음주의 선교는 이미 그 설 자리를 잃어버리게 된다.

로잔운동의 발전

1970년 당시 복음주의권에는 크게 두 가지 과제가 있었다. 2차 세계대전 이후 과거 식민지국가들이 기독교 열강 세력으로부터 독립하면서 그들 안에 존재하는 기독교의 정당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었다. 그 결과 선교사들이 추방되거나 철수하는 일이 일어났다. 다른 하나는 서구가 급속히 세속화되면서 문화의 중심에 존재했던 기독교가 더는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고 후기 기독교사회로 진입하면서 서구의 복음주의 교회마저도 쇠퇴하고 있었다. 이 두 문제가 로잔 74 대회에서 발표된 두 개의 중요한 주제강의를 통해서 그 해결의 실마리를 보게 된 것이다. 그것은 사무엘 에스코바 등 남미의 젊은 복음주의자가 발표한 복음 전도와 사회적 책임에²⁾ 대한 논의와 랄프 윈터가 발표한 선교 패러다임으로서의 미전도 종족운동이었다.³⁾ 즉 복음 전도와 사회적 책임을 총체적으로 이해하는 시각이 제공되었고 동시에 남겨진 선교적 과제인 온 세상의 복음화를 위한 새로운 패러다임이 제시된 것이다.

이후 로잔운동은 소위 말하는 복음전도와 사회적 책임을 통합하려는 시도를 계속해 왔고, 그 결과 총체적복음(Whole Gospel)이라는 관점으로 복음의 의미를 확장했고, 온 교회가 온전한 복음을 온 세상에(Whole Church taking the Whole Gospel to the Whole World)라는 방향을 추구했다. 로잔운동은 온전한 복음의 실제적 내용에 대한 지속적인 논의를 해 왔다. 크리스토퍼 라이트는 복음의 중심성(The centrality of the Gospel 혹은 The Lordship of Christ)과 이 중심성이 포함하고 표현되어야 하는 영역을 전도(Evangelism)와 가르침(Teaching), 공의(Justice)와 긍휼(Compassion), 피조물에 대한 책임(Creation Responsibility)로 나누고 교회와 그리스도인의 삶의 내용은 교회를 세우고 세상을 섬기고 창조세계를 보존하는 일에 까지 참여하는 것으로 구체화한다. 이렇게 복음을 이해하는 관점에서는 총체적이면서 동시 그 영역을 실현하는 면에서는 구체적이어야 한다는 점이다.

74년 복음주의 교회에 주어진 최고의 선물인 로잔언약이 발표된 이후 계속된 모임들은 로잔언약에서 언급한 문제들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을 논의하기 시작했다. 그 논의 결과를 문서로 출간하면서 새로운 복음주의 운동의 내용을 만들어 갔다.⁴⁾ 이런 점에서 로잔운동은 문서운동이고 신학운동이라고 볼 수 있다. 로잔언약이라는 신앙 고백에 헌신하는 이들이 모여서 자신의 다양한 의견을 나누고 서로에게 배우는 장이라고 볼 수 있다. 이것은 로잔운동은 경계 안에서의 포용(breath within boundaries) 라고 표현한다 여기서 경계(boundries)란 로잔언약을 말한다.⁵⁾ 즉 로잔운동은 로잔언약에 동의하는 자들이 모여서 자신의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런 의미에서 로잔운동을 하나의 단체로 구조화하는 것은 그 정신에 어긋나는 것이라 볼 수 있다.

2) 남미 젊은 복음주의자들은 전도하는 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존재를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존재하시는 하나님께서 당시 남미의 전쟁과 가난과 혁명의 상황에서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가를 보여주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그리스도인 사회적 책임은 복음의 일부를 제시한 것이다.

3) 랄프 윈터의 새로운 시각은 선교가 지리적 개념이 아니라 문화적 개념이라는 점이였다. 이것은 지리적 개념으로 이해했던 식민지 시대의 선교 패러다임을 벗어나는 계기가 된다.

4) 로잔 occasional papers로 출간되었다. 이 모든 자료는 <https://lausanne.org/occasional-papers> 확인할 수 있다.

5) 로잔위원회, 케이프타운 서약, (서울: IVP, 2014), 11

1974년 1차 로잔대회 이후 15년 만에 열린 1989년의 2차 마닐라 로잔대회에서는 대회의 주제인 “온 교회가 온전한 복음을 온 세상에”(The Whole Church Taking the Whole Gospel to the Whole World)를 통해서 로잔운동의 방향을 좀 더 명확히 제시하게 된다. 더불어 1989년 전후로 동유럽의 몰락으로 세계화 개념이 등장했고, 포스트모던 사회에서의 복음의 의미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 과정에서 AD 2000년을 앞두고 복음전도를 강조하는 진영은 AD2000 운동(AD2000 Movement)을 만들어 세계복음화를 위한 더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해 나갔다. 이후 로잔운동은 여러 가지 이유로 소강상태에 있다가 2010년 전후로 다시 힘으로 모이고 변화된 선교 환경과 교회적 상황을 반영하는 복음주의권의 선교적 과제를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그 문서가 “케이프타운 선언”이다. 당시 눈에 띄는 세계적 현상은 비서구교회의 등장이었다. 2000년을 전후에 급성장한 비서구교회는 세계 교회의 판도를 바꾸어 놓았다. 이제까지의 선교와 교회 그리고 신학의 모든 내용과 형식을 서구교회가 이끌어 왔지만 이제는 교회의 중심이 비서구로 이동하거나 혹은 서구와 비서구가 함께하는 새로운 시대에 들어가게 된 것이다. 그 결과가 2010년 3차 로잔대회에서 드러났다. 3차 로잔대회 참가자의 65% 이상이 비서구교회의 대표였다. 비록 중국정부의 통제로 막판에 참가자들이 현장에 도착할 수는 없었지만 3차 대회에 가장 큰 대표단은 중국 교회였다 이러한 세계 교회의 변화는 2024년 4차 대회에서 더 크게 드러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74년 1차 로잔대회가 로잔운동의 신학을 제시했고, 89년 2차 로잔대회가 전 세계적인 연합을 구축했으며, 2010년 3차 로잔대회가 복음주의교회들의 실행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안했다면, 2024년 4차 로잔대회는 실천을 위한 전 세계적인 협력이 일어나길 기대하는 방향으로 전체 흐름이 제시되고 있다.

2024 로잔 4차 대회의 방향

2024년 열리는 로잔 4차 대회는 또 한번의 역사적 전환점에서 열리는 대회이다. 다수 세계 교회(Majority World Church)의 성장으로 인해 세계 교회는 역사상 처음으로 전 지구촌에 교회가 존재하는 세계 기독교(World Christianity) 시대에 돌입했기 때문이다. 이것은 지난 2000년, 짧게는 지난 200년 간의 서구 주도의 크리스텐덤 방식의 기독교 교회와 선교에 전격적인 패러다임 전환이 일어났다는 것을 의미한다.

2024대회의 주제는 “Let the Church Declare and Display Christ Together”이다. 제4차 세계복음화 로잔대회는 로잔운동의 4가지 비전, 즉 모든 사람을 위한 복음, 모든 사람과 장소를 위한 제자를 삼는 교회, 모든 교회와 부문을 위한 그리스도와 같은 지도자,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 나라의 영향력을 발전시키는 것(the gospel for every person, disciple-making churches for every people and place, Christ-like leaders for every church and sector, and kingdom impact in every sphere of society) 등을 촉진하는 것을 그 목표로 한다. 이번 4차 로잔대회에서는 대위임령 상황 보고서 (The State of the Great Commission Report), 서울선언(The Seoul Statement), 협력을 위한 결단(The Collaborative Action Commitment) 이라는 세 가지 문서가 도출될 것이다. 이 세 가지 문서는 ‘로잔4 여정’(Lausanne4 Journey)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으로 협력적인 행동을 촉구하는 방향을 제시하게 된다. ‘로잔4 여정’(Lausanne4 Journey)이란 2050년까지 세계복음화의 완성을 위한 로드맵을 의미하며, 따라서 서울 2024년 로잔 4차 대회는 그 전체 로드맵의 출발점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프로그램은 세계 기독교 시대에 세계복음주의 교회가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사도행전을 중심으로 성경강해(Bible Engagement)와 주제강의(Morning Plenary)의 주요 주제를 다루고, 오후 주제별 모임에서는 2년간의 조사를 통해 (Global Listening) 확인된 ‘대위임령 보고서’(The State of the Great Commission Report)에서 조사된 세계 복음화 완성에 보완되어야 할 주제들을 25개로 나누어 참가자들이 자신의 관심사별로 참여하여 함께 토론과 전 세계적인 협력을 위한 네트워크를 형성하게 된다. 한편 저녁 시간에는 각 대륙별 기독교 상황의 보고와 주요 주제들에 대한 보고를 듣게 되고, 로잔 50주년 기념식과 한국 교회의 선교와 역사적 성취와 과제를 듣고 세계 교회가 교훈을 삼고 한국 교회를 위해 기도하는 시간도 갖게 될 것이다. 이번 4차 로잔 서울 2024 대회에서 국제로잔 측에서 주도하는 4차 대회의 핵심 단어는 간격(Gap), 가속(Acceleration)과 협력(collaboration)이다. 세계 복음화 완성을 위한 틈새를 확인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의 가속화와 협력이 있다. 이러한 방향을 취한 것은 국제로잔 측에서는 4차 대회도 중요하지만 L4 프로젝트가 더 중요하다고 보고 있기 때문이다.

프로그램은 전체적으로 사도행전에서 발견하는 다음의 5가지 주제를 성경강해와 주제 강의로 담아내게 된다. 다룰 주제는 약속된 성령의 오심(The coming of promised Holy Spirit), 선교적 교회 공동체(Missional Church), 고난과 복음의 확장(Persecutions and Mission), 일터와 세계복음화 (Workplace and Global Mission), 섬김으로서의 지도력(Servanthood as Leadership), 예수의 통치와 땅 끝까지의 선교(Gospel to the ends of the earth under Christ’s Reign) 등의 주제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과제들을 나누게 된다.

오후에는 대위임령 상황 보고서 (The State of the Great Commission Report)를 통해서 발견된 40여 개의 과제(Gaps) 중에서 25개를 선정하여, 이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전 세계적인 협력이 어떤 방향과 내용을 가지고 일어나야 할 것인가를 다양한 각도에서 논의하고 협력 방안을 모색하게 된다.

저녁 시간에는 각 대륙에서 일어나는 하나님 역사와 교회의 상황을 보고하면서 그 가운데 발견된 다양한 주제들을 리포트와 간증 형식으로 다루게 된다. 특히 2024년은 로잔 74가 시작된지 50년 되는 해이다. 지난 50년 동안 로잔운동을 통해서 발표된 많은 신학적 고찰과 실천적 행동을 위한 제안들이 세계 복음주의 교회를 견인해가는 복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미래적 소망을 나누는 “로잔 50주년 기념”의 날도 있다.

또한 하루 저녁에는 한국 교회의 시작과 부흥과 선교 그리고 현재 직면한 문제들을 심층적으로 보여줌으로써 세계교회가 교훈으로 삼고, 더불어 세계교회가 한국 교회를 위해 기도하는 시간도 갖게 될 예정이다.

〈세계 기독교 시대의 도래와 한국 교회와 선교〉

변화의 지점들

1. 오래전부터 비서구권 교회의 성장을 주시했던 선교 역사학자 앤드루 윌스는 지난 2000년 동안 일어난 교회 확장 역사에서 세 번의 큰 전환점이 있었다고 관찰했다. 첫 번째는 안디옥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유대 디

아스포라 그리스도인이 이스라엘 민족의 메시아를 그리스도인들의 주(Kyrios)라고 이방인에게 전파한 사건이다.(행11:19~20) 이 사건을 통해 유대인들에게만 머물러 있던 복음이 헬레니즘 문명권과 전 세계로 문화의 경계를 넘어 온 세계로 확산되는 길을 열게 되었다. 두 번째 전환점은 5세기 북유럽과 서유럽이 복음화되면서 기독교 왕국 즉 국가 권력과 기독교가 동일시되면서 서구 기독교가 힘을 가진 세력으로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하는 크리스텐덤 시대가 열린 것이다. 세 번째는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 그 절정을 향해 가고 있는 것으로 기독교가 남반구 대륙 전역으로 확산하면서 진정한 의미에서 세계 모든 곳에 교회가 존재하는 세계 기독교(World Christianity) 시대가 열린 것이다.⁶⁾ 우리가 이러한 세 차례의 변화에 주목해야 하는 것은 각 변화가 선교의 패러다임을 근본적으로 바꿨기 때문이다.

2. 패러다임(paradigm)이란 어떤 한 시대 사람들의 견해나 사고를 근본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테두리로서의 인식의 체계, 또는 사물에 대한 이론적인 틀이나 체계를 의미하는 개념이다. 즉 특정 시대에 일반화된 틀을 말한다. 과학철학자 토머스 쿤은 한 시대의 과학의 틀이 한계에 봉착하면 다른 체계가 대체해 왔다는 패러다임(paradigm)전환 이론을 주장하였다. 패러다임 전환이란 그 시대에 특정한 패러다임으로 해결될 수 없는 현상들이 반복적으로 나타날 때 일어나는 현상으로 이미 패러다임이 이동되었음에도 계속 과거의 패러다임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시도는 결국 한계를 경험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 현상은 단지 과학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다. 정치 경제 사회 전 분야에 적용될 수 있다. 따라서 패러다임의 이동은 자발적으로는 쉽게 일어나지 않는다. 상황과 환경이 변화될 때 일어나게 된다.
3. 오늘날 세계선교의 상황과 환경이 바뀌고 있다. 그 변화의 폭은 이제까지 일반화된 선교의 틀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상황들이 발견되는 지점에 이르렀다. 그 결과 오늘날 세계 선교의 패러다임이 이동했다는 사실을 한국 선교가 인지하고 이에 적응하지 않으면 한국 선교는 한계를 경험하지 않을 수 없다.

상황 인식

선교 패러다임의 이동이 발생하게 된 배경과 상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은 것들이다.

1. 오늘날 기독교는 서구의 크리스텐덤(Christendom) 시대에서 탈식민지화(post-colonial), 탈서구(post-Western) 시대를 지나고 세계 기독교(World Christianity/Global Christianity) 시대로 옮겨 가고 있다. 과거 선교지(mission field)였던 아시아, 아프리카, 남미의 교회가 성장하면서 이제 그들은 세계교회의 대부분을 구성하게 되었고 더 나아가 선교 세력(mission force)으로 바뀌고 있다. 서구 크리스텐덤 시대 선교의 기본 작동 방식은 힘이었다. 그러나 세계 기독교의 부상으로 힘에 의한 선교가 더 이상 작동하지 않는 시대에 돌입했다.
2. 또한 이제까지 기독교의 중심지였던 서구는 현대사회(modern)와 후기 현대사회(post-modern)를 통과하면서 급속한 세속화로 탈기독교화 되면서 더 이상 기독교 중심지가 아니며, 세계화와 인구 이동으로 인해 오

6) 앤드류 웰스, <세계기독교와 선교운동>, 박상연 옮김 (서울: IVP, 2018), 153

히려 복음을 들어야 할 다인종 다문화 사회로 전환되고 있다. 그 결과 선교는 서구의 일방적 주도에서 벗어나 다중심적이고(polycentric) 쌍방향적 혹은 전 방향(all direction)으로 진행되며 그 내용에 있어서 통합적(Integral)이고 총체적(Wholistic)으로 전개되는 시점에 와 있다.

3. 세계화(Globalization)와 산업화의 폐해가 불러온 코로나 팬데믹 시대가 가져다준 가장 큰 깨달음은 탈세계화 즉지역(Local)의 중요성이다. 크리스텐덤 시대의 선교가 외부로부터 가는 자 중심이었다면, 코로나 시대 이후 세계 기독교 시대의 선교는 내부인(Indigenous)이 중심이 되어야 하며(the future of mission is in indigenous)⁷⁾, 내부인들은 자급, 자치, 자전을 넘어서서 그들에 의한 자신학화 혹은 자선교화를 통해 자신의 문화 공동체 안에서 스스로 그리스도를 따르는 공동체를 세워가고 이 과정을 외부자가 돕는 것으로 이해되기 시작했다.⁸⁾
4. 서구 복음주의의 선교의 흐름은 확장된 선교 개념을 수용하는 것으로 보인다. 서구 선교가 주도했던 지리적 개념과 힘에 의한 선교 시대가 막을 내리고 있다. 복음이 지리적, 민족적, 종교적 경계를 넘어가는 것 정도가 아니라 영역, 세대, 세계관, 신분, 계급, 빈부, 문화의 경계를 넘어가지 않으면 전달될 수 없음을 인지하기 시작했다. 또한 자신들의 국가에서는 복음이 더 이상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하는데 해외에 가서 선교하는 일의 정당성에 대한 자신감을 상실한 측면과 더불어 서구 사회 자체가 선교지임을 인식하기 시작했다.
5. 서구교회는 축소되는 교회와 선교의 현실을 반추하고 교회의 내부적 변화에 관심이 증가하는 한편, 다수 세계 교회(Majority World Church)에서는 교회 성장의 결과로 선교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방향을 추구하고 있다. 그 결과 서구 선교는 지리적 또는 문화적 경계를 넘는 일에 소극적일 수 있고, 한편 준비되지 않은 다수 세계 교회의 선교는 서구 선교에 대한 충분한 반추의 부재로 실수를 반복할 수 있다. 즉 오늘날 세계 기독교 상황에서 필립 켄킨스의 지적대로 서구교회는 부흥의 과제가 있고, 성장하는 다수 세계 교회는 신학적 발전을 이뤄야 할 과제가 주어져 있다.⁹⁾
6. 한편 한국선교의 모체가 되는 한국 교회는 유교문화의 순기능 측면도 있지만, 역기능적 측면이 가져온 한계와 급속한 세속화와 인구 격감 등의 사회적 변화의 직격탄을 맞고 정체 상태에 돌입하면서 교회의 본질에 대한 새로운 논의가 시작되고 있다. 이 논의의 결과에 따라 한국선교의 방향도 적지 않은 영향을 받게 될 것이다.
7. 세상과 마찬가지로 세계기독교(World Christianity) 시대에 선교는 새로운 표준(New Normal)을 요청하고 있다. 서구 선교 흐름의 마지막 시대에 부흥하기 시작하여 이제까지 서구 방식의 선교를 배워 실행해 온 한국선교는 이제부터는 부상하는 세계기독교와 호흡을 같이하는 선교의 새로운 표준이 필요하다. 좋은 교회로부터 좋은 선교가 시작된다. 동시에 선교가 교회를 만든다. 따라서 선교에 참여하는 우리들이 좋은 선교를 모색하고 실현해 내는 과정에서 한국 교회의 건강성도 회복될 것이다.
8. 새로운 표준 제시는 새로운 시각으로부터 가능하다. 새로운 시각은 하나님에게서 온다. 자신이 살고 있는

7) WEA 선교분과 디렉터인 J Matenga는 '선교의 미래는 내부인에 달려있다'(the future of mission is in indigenous)라고 주장한다.

8) From 'Global initiative Local response' to 'Local Initiative Global response'

9) Philip Jenkins, The Next Christendom, Oxford University Press (Oxford, 2007)

시대를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다보고 회개를 촉구하며 새로운 방향을 제시했던 선자자들처럼, 우리가 참여하고 있는 현재의 한국 선교를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다보고 회개를 촉구하며 대안을 제시하는 예언자적 상상력이 필요하다.¹⁰⁾ 선지자적 메시지는 인간의 계획과 의도에 의해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므로, 우리에게 는 철저한 회개와 말씀으로부터 듣는 겸손함과 기도가 선행되어야 한다.

한국선교의 현상과 과제

1. 2000년 경 한국 선교사의 수가 미국에 이어 세계선교사수 2위라는 말이 본격적으로 회자되면서 세계교회는 한국선교의 성장을 감탄해 하면서 동시에 한국선교를 평가하기 시작했다. 아래의 사항들이 세계교회가 보는 한국 선교사에 대한 일반적인 평가이다. 문제는 선교지와 세계 교회로부터의 받은 이런 평가가 20년이 지난 현재 개선되어 가고 있기는 하지만 여전히 크게 다르지 않다는 점이다.
2. 상당한 시간 동안 한국선교가 다양한 변화를 모색했지만, 같은 문제가 계속 발생하는 것은 패러다임의 이동이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동일한 패러다임 안에서 기존 방식을 보완하거나 새로운 전략을 소개한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이 패러다임 이동의 원리이기 때문이다. 즉 한국선교는 앤드루 월스가 언급한 역사 속에서 일어난 세 번의 패러다임 변화를 인지하고 이를 수용하는 데 여전히 미진한 상태에 있다.

한국 선교의 패러다임 이동

1. 첫째, 선교는 선교가 해외로 가는 것(overseas)이 아니라, 문화의 경계를 넘어가는 것 혹은 문화가 교차하는 과정(cross-cultural)에서 복음이 전파되는 것이라는 점을 여전히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선교가 지리적으로 해외로 가는 것이라는 측면만 강조된 것은 근대 선교의 출발이 서구 열강들이 해외로 가서 영토를 정복하고 그 뒤를 따라 선교사가 나가는 형태로 이뤄졌기 때문이다. 선교는 어디로 가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누구에게로 가느냐의 문제이다. 이 변화를 초대교회가 인식했고(행10:21), 근현대 선교 운동에서 종족 중심의 선교 운동을 재발견했고¹¹⁾, 그리고 오늘날 움직이는 사람들 시대(people on the move)를 통해서 다시 확인되고 있다.¹²⁾ 즉 사람에 대한 이해가 중요하다.
2. 둘째, 서구에 의해 형성된 힘에 의한 선교는 우리가 벗어버려야 할 선교 패러다임이다. 역사 속에서 거듭 확인된 것은 선교는 힘 있는 자들에 의해서 발전되지 않았다. 선교는 오히려 연약한 자, 고난받는 자, 정복당한 자에 의해서 이뤄졌다. 중심부가 주변부를 바꾼 것이 아니라 주변부가 중심부를 바꾸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중심 세력이 주도한 복음화는 지배, 경쟁, 분열 그리고 흔히 파괴와 억압의 시간이었고, 이것이 교회 역사의 비극으로 나타났다. 역사가 반복되고 있다. 한국 교회와 선교의 확장도 한국 교회가 세상에서 주변부였을 때 일어난 일이다. 한국 교회와 선교가 주변부에서 성장하여 중심부 세력이 되면서 한국 교회는 오히려 세상

10) 월터 브루그만, 예언자적 상상력, 복있는 사람, (서울, 2023)

11) 근현대 역사 속에서 카메룬 타운젠트의 언어 종족별 접근(1934년)과 도널드 맥가브란의 사회 계층별 접근 동질집단 회심 운동 그리고 랄프 윈터(1974년)의 미전도종족선교 등의 개념 등을 말한다.

12) 복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어디로 움직여 가고 있는가에 따라 선교지가 달라 질 수 있다.

으로부터 배척되고 선교는 그 힘을 잃어버리고 있다. 이런 점에서 오늘날 우리의 과제인 한국 교회의 부흥과 선교의 회복은 반드시 주변부에서부터 일어나야 한다. 한국선교의 중심부에 있는 이들이 모여서 목표를 세우고 방향을 결정하는 것은 역사적 시각에서 볼 때 크게 유의미하지 않다는 점이다. 한국선교 중심부가 모색해야 할 것은 오히려 회개와 태도의 변화이다.

한국선교의 성장과 성숙을 다른 방식으로 계측해야 한다. 예를 들면, 선교사의 수가 늘어나는 것이 한국선교가 성장하거나 성숙해진 증거라는 과거의 잣대를 바꿔야 한다. 선교는 선교사가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이 하는 것이라는 생각의 전환이 가능하다면 한국선교의 성숙을 가늠하는 잣대가 달라질 수 있다. 선교현장도 한 선교사가 얼마나 많은 교회를 개척했는가 대신 현지 교회가 스스로 배가하고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선교사가 무엇을 했는가의 잣대를 사용한다면 그 결과는 달라질 것이다.

3. 셋째, 오늘날 기독교는 역사상 처음으로 세계의 기독교가 되었다. 엄밀한 의미에서 이제까지의 기독교는 문화적으로 서구의 기독교였다. 이런 의미에서 현재 등장하는 다양한 지역의 기독교를 세계 기독교들(World Christianities)라고 복수로 언급하는 것이 더 적절할 수 있다.¹³⁾ 이러한 변화는 선교에 있어서 앞에서 언급한 다중심성(Polycentric), 중심부 중심에서 주변부 주도, 지역(local)의 중요성, 토착화, 자신학화 등의 핵심 단어를 고려하는 것이 중요한 시대가 된 것을 의미한다.
4. 따라서 오늘날 세계교회가 극복해야 할 과제는 역사상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던 도전일 수 있다. 예를 들면, 서구교회가 비서구교회의 성장을 인정하고 함께 파트너십을 만들어 가려고 하고 있지만 진정한 파트너십은 동등한 우정 관계에서만 이뤄질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지 않으면 요즘 등장하는 수정된 크리스텐덤 선교 모델 즉 서구는 물질 혹은 전략적 자원을 공급하고 비서구는 인적 자원을 공급하는 것과 같은 시도는 세계기독교 시대에 적합하지 않은 파트너십이 될 수 있다. 비서구 교회가 자원과 전략적 지원없이 어떤 일을 제대로 해낼 수 없다는 생각에서 벗어나지 못하거나, 또한 부상하는 다수세계 교회(Majority World Church)도 장차 소유하게 될지도 모르는 패권적 선교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워지는 방법을 체득하지 않는 한 세계교회의 등장이 가져다 준 오늘의 시대적 기회는 온전한 세계 복음화로 이어지는 패러다임을 발견 할 수 없다.

한국선교 실천을 위한 제안

이와 같은 변화를 염두에 두고 생각해 볼 때 한국선교의 변화를 위해 관심 가져야 할 네 가지 과제 영역이 있다.

1. 첫째, 선교와 거룩(Mission and Holiness)이다. 하나님의 선교는 거룩과 사랑을 세상에 드러내는 일이다. 따라서 하나님의 선교에 초대된 우리 또한 거룩의 정체성을 회복하고 세상에 대한 사랑의 실천에 참여하는 선교를 해야 한다. 한국선교 안에 언행일치(integrity)가 촉구되어야 한다. 어떻게 복음주의자들이 통합된 영성, 신념과 인격과 사역이 조화를 이루는 명성을 회복할 수 있을 것인가 등에 대해 답할 수 있어야 진정한 의미의 선교가 가능하다. 흔히 소위 복음주의자란 단어는 TV에서 물의를 일으키는 세속적 기독교인들이 지칭되기도 한다. 복음이 확산되는 아프리카와 아시아에서는 이단적 가르침과 변영신학, 혼합주의가 판을 치고

13) 예수는 한 분이지만 그 예수를 드러내고 따르는 방식은 다양할 수 있다.

- 있다. 이런 상황 안에서 선교 안에서 거룩을 어떻게 드러낼 것인가에 대한 깊은 고민이 있어야 한다.¹⁴⁾
2. 둘째, 한국선교와 세계 기독교 (Korean mission and World Christianity)이다. 우리 가운데 이미 와 있는 세계 기독교(World Christianity)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인식 그리고 그 안에서 한국선교(사)에 대한 반추와 본질적인 변화를 위해 어떤 질문을 해야 할 것인가, 어떻게 세계교회와의 협력을 이뤄 갈 것인가 등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오늘날 복음주의권 선교에 있어서 선교적 협력이 미약하고, 일방적인 태도, 높은 수준의 불신, 경쟁, 사역의 중복, 제한된 자원에 대한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근본적인 원인은 무엇인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등에 대해 논의해야 한다. 특히 서구 일변의 선교에서 세계 교회 모두가 함께하는 선교 시대에 협력과 파트너십은 핵심과제가 된다.¹⁵⁾
 3. 셋째, 남겨진 과제, 발견할 과제 (Frontiers in Mission)이다. 한국선교에 주어졌던 세계 복음화의 과업 중에서 돌파하지 못했던 지역과 영역 혹은 사상과 문화는 어떤 것들이며 그 이유를 확인 후 평가를 거쳐 수정하고, 실제적 돌파를 위한 모델들을 제시해야 한다. 선교의 최전방은 단지 지리적 개념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선교가 이뤄지기 위해 돌파해야 할 영역이 있다면 그것이 최전방이다. 여전히 지리적 선교 최전방이 존재하지만, 오늘날 시대는 오히려 사상, 문화, 세계관, 질병, 환경, 세속주의, 신기술(New Technology), 인간에 대한 신학적 이해¹⁶⁾ 등이 돌파해야 할 최전방이 될 수 있다.
 4. 넷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최선(Best Practice for God's Glory)을 모색하는 것이었다. 한국 교회에 주어진 선교가 우리의 성취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광스러운 선물임을 깨닫고 겸손과 최선을 다해 예수님의 선교 방식인 성육신적 태도로 섬길 수 있기 위해, 변화된 선교 생태계를 이해하고 한국 교회, 선교단체, 선교사, 성도, 그리고 다음 세대가 각각 어떤 지속 가능한 최선의 방안을 만들고 실현해 갈 것인가를 제시하고 논의했다. 물론 이 과정은 시간이 걸리는 일이다. 한국선교도 어느 정도 그 경험과 역량이 축적된 상태이다. 이것을 잘 반추하고 새로운 시대적 패러다임에 걸맞는 한국 선교의 실천 내용을 만들어갈 시대가 온 것이다. 무엇보다도 자신학화에 근거한 실천 방안들을 만들어 가야 한다. 이를 위해서 더 많은 반추와 창의적 제안들 그리고 이를 실천해 보는 노력이 필요하다.

한국 선교의 최선(Best Practice)

국내외 선교 환경의 변화에 따라 다음과 같은 영역에서 최선의 실천을 모색해 봐야 한다.

14) Helen Jin Kim은 그의 책 *Race for Revival: How Cold War South Korea Shaped the American Evangelical Empire* (Oxford University Press, 2022)에서 “When American Evangelicals Needed a Reputational Boost, They Turned to South Korean Evangelicals”라고 말하면서 미국과 한국의 복음주의자들이 ‘태평양 횡단 고속도로(the transpacific highway)’를 구축했다고 비판한다.

15) 4차 로잔서울2024 대회에서도 협력(Collaboration)이 핵심 주제다.

16) 최근 인간에 대한 신학적 이해(Theological Anthropology)가 복음주의권에 중요한 신학적 주제로 등장하고 있다. 그 이유는 성별, 동성애 문제등을 풀어나가는 데에 인간에 본질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복음주의자들이 하나님에 대한 이해에는 많은 시간을 투자했지만 정작 선교의 대상인 인간에 대한 이해의 깊이가 일천하기 때문이다.

1. 다음 세대 선교 동원(Next generation mission mobilization): 선교 역사에서 ‘청년 대학생’은 항상 그 중심에 있었다. 기독청년과 다음 세대 선교동원의 활성화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와 실천은 한국 교회와 선교의 미래를 결정하는 핵심적인 사안이다.
2. 디아스포라 (People on the move): 21세기에 들어서 인구 유동은 전 세계적인 현상이고 이것은 세계기독교 시대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다. ‘디아스포라’는 지구촌(Glocal) 시대의 핵심 현상이며 하나님의 섭리다. 인구 유동(People on the move) 현상을 단순히 우리나라에 들어온 외국인 노동자를 넘어서서 난민, 비즈니스, 국제결혼, 투자 등 다양한 형태의 이주민 그리고 유학생 등 그 범주가 확대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선교의 개념, 형태 그리고 그 방식에 새로운 기회가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3. 디지털 시대와 선교(Tech and Mission): 한국선교는 오늘날 의사소통의 핵심 통로인 디지털화에 대응해야 한다. 사이버 세계와 신홍 기술의 도전 과제 및 기회를 이해하고 글로벌 선교를 가속화하기 위해 기술을 최적화하기 위해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선교정보, IT, 문서사역, 4차 산업시대의 선교 정보 이동과 활용, 리서치, 아카이브, 도서관, 미디어 등을 어떻게 선교와 연결시킬 것인가를 논의해야 한다.
4. 변화 속의 선교단체 (Missions and agencies in flux): 크리스텐덤(Christendom) 시대의 서구 선교 패러다임의 끝물에서 배우고 시작된 한국선교와 이를 실행하기 위해 만들어진 현재의 선교단체 구조가 어떻게 다가오는 시대에 새로운 세계기독교(World Christianity)시대에 적합한 선교 생태계로 전환되고 이에 걸맞는 구조로 변화되어야 하는지를 논의했다. 다가오는 시대에 선교 지속 가능성의 관점에서 선교단체의 구조, 모델, 운영방식, 선교사 정체성에 대한 본질적인 성찰과 새로운 방향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5. 변화하는 여성 선교사(Transforming Woman Missionary): 변화하는 여성선교사의 정체성 재정립과 남녀 선교사의 파트너십 강화, 세계 선교가 요구하는 한국 여성 선교사의 정체성과 역할과 전문성을 확대하는 논의와 실천사항 지침을 마련하여야 한다. 실제 이 부분은 오늘날 선교적 공동체(Missional Community) 논의의 중요한 부분인 젠더(gender), 가정(Family)과 연관된 주제들도 논의해야 한다.
6. 선교적교회로 가는 로드맵(Roadmap to a Missional Church): 교회가 선교적 본질을 이해하고, 선교를 지원하는 구조 정도가 아니라 선교하는 공동체로 전환되기 위한 인식의 변화가 계속되어야 한다. 교회는 선교사 파송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교회 구성원 전체가 선교인(missioner)로 살아가도록 동원하고 훈련하고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열어가야 한다.
7. 자신학화(Self-Theologizing and Training): 자신학화의 출발은 선교적 성경읽기로부터 시작된다. 선교사들이 현장에서 어떻게 선교적 성경읽기를 해내고 이를 사역과 연계해 갈 것인가 등에 대해 신학자, 실천가들이 함께 논의하고 그 결과물을 공유하는 해석 공동체 필요가 있다.¹⁷⁾

17) 최근 복음주의 신학자들은 타협 불가능한 복음의 핵심을 확인하는 것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Can we reach consensus on a credible methodology or approach to the reading and interpretation of Scripture?”를 고민하고 있다. 성경의 권위를 인정했다면 그 다음의 문제 그 성경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에 대한 의견 일치가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동시에 해석의 방법은 각 해석공동체마다 달라질 수 있다. 그럼에도 복음의 본질이 훼손되지 않는 것은 복음의 번역성/번역가능성(Translativity/Translatbility)때문이다.

8. 전방개척 선교(Frontiers in Mission): 미전도(unreached), 미복음화(least reached), 최소 복음화(unengaged), 최전방(frontiers) 지역의 돌파와 자생적 교회 배가를 위한 새로운 접근이 필요하다. 현재 세계에서 최소전도종족(미전도종족)이 가장 많은 지역은 사실 남아시아권과 불교권이다. 힌두와 불교 사상과 문화에 대한 이해의 깊이를 서구 선교사보다 아시아권 출신 선교사들이 더 잘 파악하고 들어낼 수 있는 위치에 있을 수 있다. 인종(종족), 종교, 사회계층 뿐만 아니라 복음으로부터 단절된 모든 문화 집단 안에 복음의 돌파가 일어나고, 스스로 배가하는 제자 그룹에 형성되어 복음이 그들 문화 안에서 토착적 방법으로 그리스도를 따르는 운동의 배가가 일어나고, 더 나아가서 문화로 단절된 계층(세대/젠더)과 영역(환경/빈부) 그리고 사상 안에도 복음이 벽을 넘어 전달되어야 한다.
9. 직업과 선교(Mission and Vocation): 변화된 선교현장과 세상은 직업과 선교를 연결하고 통합해야 하는 시대에 와 있다. 일과 영성을 통합하는 일터 영성의 세계관을 가지고 직업을 통하여 선교하고, 일터 안에서 선교하고, 직업을 가지고 선교하기 등 다양한 방식과 개념의 확장이 필요하다. 오늘날 선교사 비자가 더욱 제한되는 변환된 선교 환경은 더 많은 텐트메이커와 비즈니스를 통한 선교 돌파를 기대하고 있는 시대이기 때문이다.
10. 현지인 중심의 동반자 선교(Collaboration in Mission): 외부자에 의해서 주도되는 서구형태의 일방적인 선교 방식에 익숙해져 있는 한국선교(사)가 내부자 중심의 선교 시대에는 극복해야 할 한계를 가지고 있다. 돈과 선교, 파트너십, 리더십과 섬김, 입구전략과 출구전략, 내부인 주도의 배가되는 교회개척, 선교사의 언행 일치(거룩), 고난받는 지역에서의 선교와 동반자 관계 등의 영역에서 새로운 표준이 절실히 필요하다.

〈로잔운동의 시각으로 본 한국 교회의 미래를 향한 제언〉

미래의 세계교회

과연 미래 교회와 세계 선교는 어디로 갈 것이며, 한국의 미래 복음주의자들에게 주어진 과제는 무엇인가? 이제 우리는 21세기에 들어서면서 기독교 운동 속에서 나타나는 후기 복음주의적(post evangelicalism) 현상을 잘 관찰하고, 그 안에서 한국 교회의 미래 방향이 무엇인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오늘날 세계 교회와 선교는 새로운 방향으로 가고 있다. 과거 서구 중심의 일방통행적 선교 운동에서 다중심적이고(Polycentric Mission), 전방향적(all directions) 선교 운동(from everywhere to everywhere)으로 가고 있다. 복음이 일방적인 선포(Proclamation)가 아니라 보여줌(Demonstration), 혹은 말씀(Word)과 삶(Deed)을 통해서 전달되어야 함도 강조되고 있다. 서구교회를 능가하게 성장해 버린 비서구교회 복음주의자들이 자신들의 미래 교회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단순히 서구 교회를 복제할 것인가, 아니면 어떻게 자신화 과정을 통해서 토착화된 그들의 복음주의 운동을 만들어 갈 것인가, 서구 신학이 발전하는 과정에서 크게 존재하지 않았던 사회적 환경 중 현재의 비서구교회 안에 존재하는 가난, 부패, 결핍, 공공성 부재, 초자연적 현상, 종교와 민족주의, 창조와 환경 보존 등의 문제에 어떻게 복음으로 의사소통을 할 것인가 등을 고민해야 하는 상황이 된 것이다.

1910년 에든버러 세계선교대회에서 예측한 미래 사회의 문제가 거의 예상을 빗겨간 것처럼, 21세기를 넘어서면서 어떤 이슈들이 등장할지, 이에 대해 기독교가 변하지 않는 복음의 진리에 근거하여 어떤 실천적 대안을 내놓을 수 있을지 예측하기는 쉽지 않다.¹⁸⁾ 예를 들어 동성애를 필두로 한 성(gender) 문제에 대해 기독교는 세상과 적절하게 의사소통을 할 만한 대안을 만들어 내지 못하고 있다. 그 결과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단절되고 있을 뿐 아니라 내부적 분열도 일어나고 있다.¹⁹⁾ 복음화는 복음을 가지고 세상과 의사소통하고 복음에 동의하도록 만드는 과정이기 때문에, 오늘날 교회가 세상으로부터의 소리에 지속해서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면 우리의 신앙의 근간을 흔드는 21세기 후반에 등장할 여러 현상에 반응할 수 있는 성경적 대안을 만들어 낼 힘을 가지지 못할 뿐만 아니라, 그 결과로 교회의 분열이 가속화될 수 있다.

미래의 세계 교회가 어떤 모습으로 변화할 것인가에 대해 두 가지 현상을 관찰할 수 있다.

첫째, 기존의 교회 형태인 교단, 교파 형식이 무너지고 있다. 이미 개신교의 역사적 교회들은 서구에서 거의 소멸하여 가고 있다. 서구 교회 안에서 장로교 감리교 등 신학적 전통에 따른 교파나 교단은 그 힘을 잃거나 문패 역할 정도만 하고 있다.

둘째, 결국 세계 교회는 교단이나 교파의 형태보다는 자신의 신앙적 확신을 중심으로 재편성될 것이다. 예를 들어 동성애와 젠더 문제나 오순절 성령 운동 등에 대해 같은 교단 안에서도 의견을 달리하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즉 교파와 상관없이 유사한 신학적 입장과 신앙 형태 중심으로 교회는 재편성될 것이다. 비서구의 복음주의자들이 성경의 권위에 대해 보수적 신앙을 유지하는 동시에 사회 정의나 부패한 정권 등에 대해 상당히 급진적 태도를 취하는 현상이 두드러질 것이다.²⁰⁾ 이런 현상은 교파나 교단과 상관없이 나타난다. 따라서 미래의 세계 교회는 각자가 추구하는 신학적 방향에 따라 다시 재편되거나 분열하게 될 것이다.

한국 교회의 미래

한국 교회는 어떤 대안을 가지고 나아가야 복음적 신앙을 삶으로 살아내고, 그 결과 온 교회가 온전한 복음을 온 세상에 선포하는 역할을 담당할 수 있을 것인가를 고민해야 한다.

첫째, 한국 복음주의 교회의 사회적 참여의 균형이 필요하다. 일반적으로 사회참여 영역에서 한국 복음주의권 교회는 구제에 그 어느 집단 못지 않게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고, 많은 재정을 사용하고 있다. 반면 정의 인권 등과 같은 구조적 악과 평화, 생명 환경 등과 같은 전 지구적 문제에는 크게 관심을 쏟지 않고 있다.

18) 코로나19로 세상과 교회 그리고 선교운동에 이런 전격적인 변화가 일어날 것이라고 아무도 예측하지 못했다. 그러나 변화는 이미 일어나고 있었다. 단지 코로나19로 인해 더 가속화되었을 뿐이다.

19) 서구 교회의 최근 분열 원인은 젠더 문제, 동성애 문제 등으로 인한 분열이다 예를 들어 최근 미국 장로교회는 동성애를 인정함으로써 교회 안에서 커다란 분열이 일어났다.

20) Brian Stanley, *The Global Diffusion of Evangelicalism: The Age of Billy Graham and John Stott (A History of Evangelicalism: People, Movements and Ideas in the English Speaking World)*. IVP 2013, 2018

둘째, 사회와 교회의 흐름을 바꾸는 주제들에 대한 심각한 논의와 전략적이며 책임 있는 행동이 필요하고, 이를 위한 투자가 절실하다. 오늘날 한국 사회의 문화와 도덕적 가치를 뒤흔드는 문제로 시급히 기독교적 대안을 제시해야 할 영역으로는 동성애(LGBT/LGBTAIQ),²¹⁾ 낙태,²²⁾ 여성,²³⁾ 지구 환경²⁴⁾ 문제 등이 있다. 교회적으로는 교회, 부패, 복음의 공공성 회복, 겸직 목회(이중직 목회) 문제 등이 있다.

셋째, 이 모든 과정은 성경에 근거한 한국적 신학의 발전을 전제로 해야 가능하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한다. 복음주의자들은 복음 안에서 모든 문제에 대한 대안을 마련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지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문제들에 대해 숙고하고 대안을 만들어 이를 적극적으로 실현해 가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진보주의자들은 상황(context)에서 출발한 문제 인식이 상황 안에만 머물러 있지 않고, 대안을 만들어 가는 과정에서 성경(text)에서 말하는 가치를 상황 안에서 실현해 내는 수고를 더욱 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양 진영 모두 서구의 논리 구조를 참조하지만 그것에 너무 의존하지 말고 한국적 인식 방법에 근거한 논리 구조를 발전시켜야 한다. 한국 교회 신학과 선교의 자신학화는 여기에서 시작되고 꽃을 피울 수 있을 것이다.

로잔 패러다임에서 본 한국 교회의 과제

로잔 정신과 신학을 가장 잘 표현한 것은 “온 교회가(The Whole Church) 온전한 복음을(The Whole Gospel) 온 세상(The Whole World)에 전하자”는 문장 안에 함축적으로 나타나 있다. 따라서 로잔의 신학을 반영한 한국 교회의 현재와 미래적 과제를 아래와 같이 세가지 영역에서 논의해 볼 수 있다.

1) 온 교회(Whole Church)

이 말에는 교회의 공교회성(Catholic)과 사도성(Apostle)을 포함하고 있다. 교회의 우주적 연합과 보내심을 받은 존재로서의 목적성을 다 포함하는 것이다. 로잔운동이 경계 안에서의 포용(breath within boundries)이라는 대원칙을 가지고 있는 것도 교회의 공교회성과 사도성의 균형을 잡으려는 노력이다. 한국 복음주의 교회들이 사도성을 강조하는 것이 공교회로서의 연합의 범위를 축소하는 것으로 나타나지 않아야 할 것이다. 이런 점에서

21) 동성애는 본질적으로 생태과학의 문제인데, 오늘날 동성애 운동을 이끄는 측에서는 문화, 인권, 정서의 문제로 포장함으로써 많은 사람들의 공감을 얻어내고 있다. LGBTQ는 성소수자 중 레즈비언(Lesbian), 게이(Gay), 양성애자(Bisexual), 트랜스젠더(Transgender)를 합하여 부르는 단어다. 퀴어(Queer)에 비해 논쟁이 덜한 용어로 알려져 있다. 파생 용어인 LGBTAIQ는 LGBT에 무성애자(Asexual), 간성(Intersex), 아직 자신의 성정체성, 성적 지향에 의문을 품은 사람(Questioner)을 더한 것이다.

22) 낙태 문제 또한 생명의 기본권과 과학의 문제인데, 낙태 지지자들은 여성의 인권 문제로 포장하고 있다.

23) 여성 관련 문제도 교회는 심각할 정도로 의식이 닫혀 있다. 성경적 여성관에 대한 분명한 인식과 실질적 대안을 마련하는 일에 너무 투자를 하지 않고 있다. 한국 근현대사에서 여성의 권리 회복에 문을 연 그룹은 교회였음에도, 오늘날 한국 복음주의 교회 안에는 성경적으로 잘 구비된 여성학자들의 거의 없다.

24) 이제까지 복음주의 교회들이 적극적으로 지원했던 가난, 자연재해 등은 더 이상 자연재해가 아니라 환경파괴로 인한 인재이다. 200년 전 개신교 선교가 처음 시작될 때, 선교지에서 가장 극복하기 어려웠던 난제는 질병이었다. 그러나 앞으로 선교지에서 가장 극복하기 어려운 난제는 환경파괴로 인한 재앙으로 고통 당하는 사람들이 될 것이다. 오늘날 의료선교(사)라는 말이 선교에 있어서 너무나 당연하고 중요한 영역인 것처럼, 환경선교(사) 또한 매우 당연하고 중요한 영역이 될 것이다.

한국 교회가 온 교회 안에 포함할 수 있는 경계(boundries)의 역할을 로잔언약에 의지해야 할 것이다.

온 교회라는 말은 단순히 교단이나 단위교회의 연합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교회를 구성하는 모든 구성원들이 동일한 위치에서 존중받고 자신의 역할을 감당하도록 해야 한다. 목회자, 성도, 다음 세대, 여성, 다문화 정주민과 이주민 모두가 한국 교회의 구성원으로 각자의 은사를 최대한 발휘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구성하는 동등한 지체로 존중 받아야 한다. 한국문화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유교적 권위주의의 역기능을 최대한 극복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 교회의 권위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오히려 권위주의를 배척하고 권위를 존중하는 교회를 만들어 가야 한다. 최근 등장하는 목회자들 사이의 이중직, 여성 안수 문제도 이런 관점으로 풀어가야 한다.

오늘날 세계 교회는 교회의 새로운 표현들(The fresh expressions of the church)을 만들어 내기 위한 상상력을 발휘하고 있다 한국 교회 안에도 좋은 모델들이 등장하고 있는데, 이 과정이 더욱 활성화되어야 한다. 세계 교회의 미래는 역사적교회가 유지되기 보다는 해체되고 새로운 형태의 교회 운동으로 빠르게 재편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 경우 로잔운동이 가지고 있는 신학과 가치는 더욱 그 진가를 발휘할 수 있다.

2) 온전한 복음 (The Whole Gospel)

“1974년 로잔대회는 인간의 필요와 관련된 총체적 선교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복음의 개인적 차원과 사회적 차원을 하나로 묶는 20세기 복음주의자들의 획기적인 사건”²⁵⁾이다. 복음의 온전성 혹은 총체성을 이해하는데 필요 이상의 많은 시간을 소비하는 경향이 있다고 본다. 그 이유는 서구가 가진 뿌리깊은 이분법적 사고 방식이 영향을 주기 때문일 수도 있다. 어떤 사실을 인식하는데 있어서 정반합의 대립적 개념에 익숙한 서구인들의 경우 복음전도와 사회적 책임이라는 이분법적 해체와 통합을 과정을 거쳐야 핵심을 이해할 수 있다. 반면 한국인들의 경우는 훨씬 더 통합적인 인식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복음의 온전성을 이해하는 과정을 서구처럼 많은 시간이 걸리지 않을 수 있다.

복음과 복음을 표현해 내는데 있어서 총체성을 구분하면 가능할 것이다. 복음의 내용인 삼위일체 하나님과 그 하나님의 이 땅 오심인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가 선포한 사역을 재현해 내는 일의 총체성으로서 복음의 통합적 실현을 구현해 낸다면 복음의 내용이 삶과 삶으로 전달되고 실현되어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 될 것이다.

한국의 복음주의자들은 어떤 나라의 교회보다 복음에 대한 삶과 삶을 통합적으로 구현해 왔던 교회이다. 물론 최근 급속한 세속주의의 교회 침범으로 한국 교회 초기의 이 전통이 상당히 훼손당하기 시작했다. 특히 한국전쟁

25) <https://lausanne.org/content/twg-three-wholes>

26) 앤드루 웰스, 세계기독교와 선교운동, IVP 2018, 29

이후 서구 자본주의의 영향을 받은 한국 복음주의 교회들은 순식간에 한국 교회 초기에 가지고 있던 복음의 총체적 실현을 내려 놓고 말았다. 이제 다시 한국 복음주의 교회들은 복음이 선포 되고 (Proclamation/Declare) 드러나는 (Demonstration/Display)되는 영역을 전 인간의 삶의 영역 뿐만 아니라 창조세계에까지 확장해 가야 한다.

복음은 문화의 포로자이자 해방자이다.²⁶⁾ 세상 안으로 들어가는 복음과 세상을 구속하는 복음의 이중적 역할을 한국 교회가 잘 감당하기 위해서는 세상으로부터 듣는 일과 말씀으로부터 드는 이중적 듣기(Double Listening)의 로잔정신이 한국 교회에 살아나야 한다. 이의 실현을 위해 한국 복음주의 교회는 복음의 표현 방식을 구성해 가는데 있어서 서구 신학으로부터 이어갈 것과 단절해야 할 것을 잘 구분해야 한다. 이 과정은 자신화를 통해서 이뤄질 것이다. 초기 한국 교회 안에 있었던 자립, 자치, 자전의 자신화 과정은 세계 선교 역사에서 몇 안 되는 성공적인 열매였다. 현대의 복음주의교회가 이 전통을 다시 복구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적극적인 선교적 성경읽기와 한국 교회 역사로부터의 배움이 선행되어야 한다.

3) 온 세상(The Whole World)

하나님의 창조로 시작된 세상은 인간의 타락을 하나님의 통치 영역과 사탄의 통치 영역으로 양분되어 참여해야 할 세상과 배척해야 할 세상으로 구분되어 있다. 하나님의 구속 사역은 온 세상과 만물의 구속이다. 따라서 하나님의 구속 대상에 이 세상의 어떤 것도 예외 일 수 없고, 그 일의 수행자인 우리 교회는 세상의 어떤 영역도 복음이 전달되어야 할 영역에서 제외될 수 없다. 하나님의 선교(missio Dei)와 하나님의 형상(imago Dei)가 통합되는 일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교회(ecclesia Dei)에게 주어진 책무이다.

과거에 파편화되었던 세상을 보는 시각을 수정해야 한다. 선교를 지리적 개념으로 보는 한계를 극복하고 문화적 개념으로 확장해야 한다. 인간에 대한 이해, 문화에 대한 이해, 영역에 대한 이해를 확장함으로 하나님의 통치 영역이 온 세상을 포함해야 한다. 그래야만 현재 교회가 도전 받고 있는 창조세계의 훼손의 문제, 인간의 본질로서의 젠더 문제, 정치/경제/사회/구조 안에 공의의 실현, 그리고 공동체의 회복의 문제를 풀어갈 단초를 발견하게 될 것이다. 이 때 한국 교회는 시각을 바꾸어 “아래부터 위로 보는 법”을 배우고 이제 곧 급격한 속도로 한국 사회가 직면하게 될 다종교 다문화의 다원주의 사회 속에서 그리스도의 유일성을 드러내는 방법이 “힘에 의한 개종이 아니라 환대와 대화를 거친 회심”의 길을 제시함으로써 세상을 그리스도께로 돌아서게 할 수 있을 것이다.

26) 앤드루 월스, 세계기독교와 선교운동, IVP 2018, 29

〈결론〉

1974년 복음에 헌신되어 있고 온 세상 하나님의 통치가 이뤄지길 원했던 몇몇 복음주의자들의 결단으로 시작된 로잔운동이 지난 50년간의 세계복음주의 운동의 향방을 제시함으로써 2차 세계대전 이후 신학적으로 선교적으로 그리고 교회적으로 위기 상황에 있었던 세계교회를 새로운 복음주의 운동으로 이끌어 갔던 것처럼 또 한번의 전격적인 변화의 역사가 재현되어야 할 시점에 우리가 서 있다. 세계 교회적으로도 그렇고 한국 교회로서는 더욱 그렇다. 이런 시점에 한국에서 열리는 4차 로잔대회가 사람들의 이런 저런 생각에서 논의되고 결정되었지만, 이 모든 과정을 자신의 뜻과 목적대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섭리와 그 이끄심 속에서 열리는 대회가 되길 소망한다. 이번 4차 로잔대회가 세계적으로는 21세기 향후 복음주의 운동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는 대회가 되고, 한국 교회적으로 한국 교회의 본래의 모습을 되찾고 더욱 나아가는 계기가 되도록 기도해야 한다.



주제특강 1

로잔운동의 역사

문대원 목사(국제로잔 이사, 로잔 한국준비위원회 총무, 대구동신교회)

제4차 로잔대회가 2024년 9월 22일부터 28일까지 한국에서 열린다. 이번 대회는 로잔운동의 50주년을 기념하는 대회인 동시에, 역사상 최초로 아시아 교회와 한국 교회가 공동 개최하는 대회이다. 이 대회는 급변하는 현대 사회에서 다중심적 선교(polycentric mission)의 다양한 영역을 조망하며 구체적인 선교 전략을 논의하고 공유하는 대회가 될 것이다. 또한 다음 세대 선교의 로드맵을 함께 구상하며 모든 교회와 영역을 위한 그리스도를 닮은 리더들을 세우는 대회가 되리라 기대한다.

1. 로잔운동의 시작

로잔운동은 1974년 스위스 로잔에서 열린 제1차 세계 복음화 국제대회(The First International Congress on World Evangelization)의 결과로 시작되었다. “온 땅이여 그의 음성을 들어라”(Let the Earth Hear His Voice)라는 주제로 모인 복음주의 지도자들은 당시 교회가 직면한 세속화와 자유주의 신학의 거대한 도전 앞에 성경적 선교 신학과 사역을 재정립해야 할 필요가 있었다. 1968년 스웨덴 옅살라에서 열린 제4차 세계 교회 협의회(World Council of Churches, WCC) 대회는 선교에 있어서 교회의 위치를 전통적인 순서였던 “하나님 - 교회 - 세상” 순에서 “하나님-세상-교회”로 바꾸었다. “세상이 교회를 위한 어젠다(agenda)를 정한다”라는 이 주장은 인간성을 말살하는 사회적 억압으로부터의 해방과 살림의 회복이 선교의 목표라는 결론에 이르게 되었다. 이로 인해 선교를 인간화와 정치·경제적 해방으로 정의하는 자유주의 신학이 대두되었다.

제1차 로잔대회의 공식문서인 로잔 언약(Lausanne Covenant)은 WCC의 급진적 자유주의 신학과 대비되는 복음주의 선교 신학의 본질을 잘 담고 있다. 지금껏 한국 교회는 로잔 언약이 사회적 책임을 강조한 총체적 선교를 주창했다는 점에 주목해 왔지만, 서구 교회는 로잔 언약이 성경의 절대적 권위와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성을 가장 강조하고 있다고 여겨왔다.¹⁾ 이것은 자유주의 신학과 대비되는 복음주의 신학의 핵심으로서, 제1차 로잔대회의 지도자들이 확고하게 고수하고자 했던 정통 기독교론과 성경론을 잘 보여주고 있다. 일례로 1962년부터 1965년까지 있었던 제2차 바티칸 공의회는 교회 밖에도 구원의 은혜(saving grace)가 있을 수 있다는 가능성을 인정했고, 그 결과 선교에 있어서 타종교와 적극적으로 대화하며 상호 이해를 추구할 것을 권면했다. 하지만 이러한 태도에 대해서, 로잔 언약은 “우리는 모든 종류의 혼합주의를 거부하며 그리스도께서 어떤 종교나 어떤 이데올로기를 통해서도 동일하게 말씀하신다는 식의 대화는 그리스도와 복음을 손상시키므로 거부한다”고 단언했다.²⁾

1) 로잔 언약 2항은 “성경 전체는 기록된 유일한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그 모든 가르치는 바에 전혀 오류가 없으며, 신앙과 실천의 유일하고도 정확무오한 척도임을 믿는다”고 고백한다. 또한 로잔 언약 3항은 “유일한 신인(神人)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유일한 중보자이다. 예수님 외에 우리가 구원받을 다른 이름은 없다”고 고백한다.

2) 로잔 언약 제3항 “그리스도의 유일성과 보편성”

20세기 중반까지 세계 선교 운동은 대부분 미국과 유럽의 선교사들에 의해 주도되었다. 1910년 에든버러 세계 선교대회에는 160개 선교회에서 1,200명의 대표단이 참석했는데, 대표단의 98%가 서양인이었다는 사실은 “서구에서 세계로”(from the West to the rest)라는 당시의 선교 패러다임이 얼마나 강력했는지 보여주고 있다. 에든버러 선교대회의 슬로건은 “이 세대 안에 세계를 복음화하자”(Evangelization of the world in this generation)였는데, 세계 복음화의 긴급성과 함께 서구 중심의 영웅주의·낙관주의적 선교론을 잘 나타내고 있다.

이것은 1899년 영국 작가 러디어드 키플링(Rudyard Kipling)이 발표한 「백인의 짐」(The White Man's Burden)이라는 시에 나타난 사상과 일치하는데, 전 세계에 있는 미개한 인종을 종교적 진리와 문명으로 인도하는 책임을 하나님께서 영국에게 주셨다는 믿음이다.

1960년대 세계 교회는 서구 중심의 기독교 왕국(Western Christendom)에서 세계 기독교(World Christianity)로의 본질적인 변화를 경험하고 있었다. 제3세계 국가들의 정치적 독립과 함께, 유럽 선교사들은 선교지에서 철수해야 한다는 선교 모라토리엄(moratorium)이 1973년 방콕에서 열린 WCC의 세계선교와 전도 위원회(CWME)에서 제기되었다. 하지만 에티오피아 교회(Ethiopian Church), 선지자적 치유 교회(Prophet-Healing Church), 오순절 교회(Pentecostal Church) 등의 다양한 형태로 등장한 아프리카 독립교회(African

Independent Churches, AIC)는 기독교가 더 이상 서양인들의 종교가 아님을 보여주는 중요한 단면이 되었다.³⁾ 아프리카 독립교회는 보편적인 기독교 복음을 아프리카의 특수한 문화적상황에 맞게 상황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평가된다. 영국 에든버러 대학의 앤드류 월스(Andrew Walls) 교수는 20세기 중반에 발흥한 세계 기독교를 다음과 같이 분석했다. “서양 중심의 교리적 교회사는 오늘날 세계 기독교의 현상을 설명하기에 불충분하다. 기독교 복음이 지리적·언어적·문화적 경계를 넘어서 전달될 때, 현지 문화에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지 글로벌한 관점에서 고찰할 필요가 있다.”⁴⁾

1974년 제1차 로잔대회에 모인 복음주의 지도자들은 비서구 교회의 부흥과 성장에 주목하며, 선교 운동이 더 이상 서구 교회의 전유물이 아님을 주창했다. 로잔 언약은 “선교의 새 시대가 동트고 있음을 우리는 기뻐한다. 서구 선교의 주도적 역할은 급속히 사라지고 있다”고 말한다.⁵⁾ 에든버러 세계 선교대회 100주년을 기념하기도 했던 제3차 로잔대회는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열렸는데, 세계 198개국에서 모인 4,200명의 참가자들은 기독교의 무게 중하며 선교를 “모든 곳에서 모든 곳으로”(from everywhere to everywhere)라는 패러다임으로 천명했다. 2024년 한국에서 열릴 제4차 로잔대회는 세계 기독교의 풍성함과 아름다움을 경험하는 특별한 시간이 될 것이다. 세계 모든 대륙에서 운행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세계 교회가 함께 듣고 나눌 때, 하나님의 선교를 향한 비전과 열정이 새롭게 될 것이다.

3) 아프리카 기독교의 역사와 특징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개론서들이 도움이 된다. Kwame Bediako, *Christianity in Africa: The Renewal of a Non-Western Religion* (Maryknoll, NY: Orbis Books, 1995); Ogbu Kalu, *African Christianity: An African Story* (Trenton, NJ: Africa World Press, 2007).

4) Andrew F. Walls, “Structural Problems in Mission Studies,” *International Bulletin of Missionary Research* 15 (1991): 146-155.

5) 로잔 언약 제8항 “교회의 선교 협력”

2. 로잔을 이해하는 키워드: 세계, 복음주의, 선교, 운동

로잔운동의 비전과 목적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네 가지 키워드가 필요하다. 그것은 바로 “세계 복음주의 선교 운동”이다. 국제 로잔의 총재 마이클 오(Michael Oh) 박사는 “1910년 에든버러 세계 선교 회의의 정신(spirit)은 로잔운동을 통해서 계승되었고, 그 조직(structure)은 WCC를 통해서 계승되었다”고 말했다. 이것은 로잔과 WCC의 신학적 차이뿐만 아니라, 비전과 조직의 차이를 명확하게 보여주는 설명이다. 로잔은 복음주의 교단과 단체의 연합 기구(institution)가 아니라, 복음주의 선교를 위한 자발적인 운동(movement)이다. 로잔운동은 지난 50년간 세계 선교를 위한 인플루언서와 아이디어를 연결하는 글로벌 플랫폼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감당해왔다. 미전도종족, 10/40장, 비즈니스 선교와 같은 선교 전략은 로잔운동을 통해서 제안되고 논의되고 공유되었다.

(1) 세계 (World)

첫째로, “세계”(world)는 기독교 복음의 보편성을 나타낸다. 복음은 유대인만을 위한 좋은 소식이 아니라, 이방인을 포함한 세계 모든 민족의 구원을 위한 좋은 소식이다. 성경은 아브라함을 택하신 하나님의 목적이 땅의 모든 족속을 축복하기 위한 것임을 증거하고 있다(창 12:3). 온 세상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은 시내 산에서 선포된 율법의 전문(前文)에도 분명히 나타나 있다. 온 세계는 하나님께 속했으며, 그분의 택한 백성인 이스라엘은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구원을 온 세상에 선포해야 하는 책임을 받았다(출 19:5-6).

기독교 복음의 보편성은 성경이 기록된 방식에도 잘 나타나 있다. 기독교를 제외한 다른 종교는 그 경전(經典)이 창시자의 언어로 기록되었다. 이슬람의 경전 쿠란(Quran)은 무함마드가 사용했던 아랍어로 기록되었고, 유교의 경전 십삼경(十三經)은 공자가 사용했던 중국어로 기록되었다. 그에 반해 예수님은 아랍어를 사용하셨지만,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기록되었다. 성경은 세계 모든 종교에서 유일하게 창시자의 언어가 아닌 다른 언어로 기록된 경전이다. 헬라어는 신학적으로 특별한 의미를 가진 언어가 아니라, 당시 그리스-로마 사회의 공통어(lingua franca)였다. 예수님께서 전하신 복음은 처음부터 다른 언어로 표현되고 번역되었는데, 이것은 기독교 복음이 특정한 언어와 문화에 뿌리내린 진리가 아니라 전 세계 모든 민족을 위한 보편적인 진리라는 사실을 보여준다. 이에 대해서 예일 대학의 라민 사네(Lamin Sanneh) 교수는 “성경 번역은 교회의 태생적 특징(birthmark)이자, 가장 중요한 성공 요인(benchmark)이다. 왜냐하면, 자국어 성경 없이는 현지 교회가 존속할 수 없기 때문이다”고 주장했다.⁶⁾

다른 종교와 대비되는 기독교의 또 다른 특징은 기독교에는 다수의 중심(center)이 있다는 사실이다. 세계 모든 종교는 특정한 지리적 중심이 있다. 가령, 이슬람의 중심은 메카이고, 유대교의 중심은 예루살렘이며, 힌두교의 중심은 인도이다. 하지만 기독교는 그 시작부터 다수의 중심을 가진 다중심적(polycentric) 종교였다. 초대교회는 예루살렘, 안디옥, 알렉산드리아, 로마를 중심 거점으로 해서 발전했다. 그 이후로도 콘스탄티노플, 캔터베리, 비텐베르크, 취리히, 제네바 등 여러 지역이 기독교의 중심 거점 역할을 감당했다.

6) Lamin O. Sanneh, *Translating the Message: The Missionary Impact on Culture* (Maryknoll, NY: Orbis Books, 1996).

앤드류 윌스, 필립 켄킨스, 데이나 로버트와 같은 세계 기독교 학자들은 기독교 복음이 한 방향이 아니라 다방향(multi-directional)으로 전파되었다고 분석한다. 세계 기독교 역사를 상세하게 살펴보면, ‘복음의 서진(西進)’이나 ‘백투예루살렘(Back to Jerusalem)’과 같은 단순화된 패러다임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다양하고 복잡한 선교 운동이 있었다. 일례로, 1620년 영국의 청교도들이 북미 대륙에 도착하기 1세기 전에 이탈리아 예수회 선교사들은 인도와 일본, 중국에서 활발한 선교활동을 펼쳤다. 기독교는 시작부터 세계 여러 지역으로 동시다발적으로 확산되었고, 복음을 위해 지리적, 문화적, 사회적 경계를 넘어갔던 수많은 선교사들의 헌신으로 진정한 의미에서 글로벌한 신앙운동이 되었다.

(2) 복음주의 (Evangelical)

두 번째로, “복음주의”(evangelical)는 18세기 조나단 에드워즈의 대각성 운동과 존 웨슬리의 부흥 운동에 역사적 뿌리를 두고 있다. 지역과 교단에 따라 다양한 형태를 보이는 복음주의를 정의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지만, 영국 스텔링 대학의 데이비드 베빙턴(David Bebbington) 교수는 복음주의의 특징을 네 가지 핵심 요소로 규정했는데, 이것은 대다수의 학자들에 의해서 수용되었다. 이른바 ‘베빙턴의 사각형’이라 불리는 복음주의의 네 가지 특징은 성경주의, 십자가 중심주의, 회심주의, 행동주의이다.⁷⁾

성경주의(biblicism)는 성경을 정확 무오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 성경관인데, 이것은 고등비평에 기반한 자유주의 신학을 강력하게 비판한다. 복음주의자들은 성경을 신앙과 행위의 유일한 규범이자 절대적 권위로 강조하며, 성경 안에 기록된 그리스도의 기적과 부활을 무오한 진리로 받아들인다. 또한 십자가 중심주의(crucicentrism)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과 부활이 구원의 유일한 방편임을 강조한다. 로마 가톨릭과 WCC가 타종교 안에도 구원의 은혜가 있을 수 있다는 가능성을 인정한 것과 대조적으로, 복음주의자들은 그리스도의 이름 외에는 다른 구원의 길이 없음을 단언한다.

회심주의(conversionism)는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난 회심의 경험을 강조한다. 구원은 바른 교리를 머리로 믿는 지성적인 활동만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서 그분의 구원의 은혜를 받아들이는 전인적인 경험이다. 또한 행동주의(activism)는 아직까지 복음의 메시지를 듣지 못한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전도와 선교를 강조한다. 이것은 20세기 초 미국의 근본주의자들이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사회로부터 분리된 것을 비판하며, 세상을 변화시키는 빛과 소금이 되기 위해서 사회로 나아가야 함을 주장한다.

19세기 이후로 미국과 영국의 복음주의자들은 긴밀한 협력 관계를 유지해왔다. D. L. 무디, A. T. 피어슨, R. A. 토레이와 같은 복음주의 부흥사들은 미국과 영국을 오가며 대형집회를 열었는데, 이들의 집회는 당시 교회와 사회에 막대한 영향을 끼쳤다. 다만, 미국과 영국의 사회적·교회적 상황이 달랐기 때문에, 각국에서 복음주의 운동이 확산되는 방식 또한 달랐다. 국교회(state church) 개념이 없는 미국의 복음주의자들은 주류 사회에서 분리되어 신앙의 순수성을 지키는 것을 강조했는데, 영국의 복음주의자들은 영국 국교회(Church of England) 안

7) David Bebbington, *Evangelicalism in Modern Britain: A History from the 1730s to the 1980s* (Grand Rapids, MI: Baker Book House, 1992).

에 남아서 지속적인 개혁 운동을 이어갔다.⁸⁾ 예를 들어서, 영국 사회의 개혁운동을 이끌었던 클래팸회(Clapham Sect)는 투철한 복음주의자 윌리엄 윌버포스를 중심으로 세계에서 최초로 노예제도를 철폐하는 데 앞장섰다.

(3) 선교 (Mission)

세 번째로, “선교”(mission)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을 통해서 세상 모든 민족을 구원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는 것이다.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창조주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으로 보내신 것은 그분을 대적하여 반역한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깊은지 보여주고 있다. 교회의 선교는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는 사랑에 뿌리내리고 있으며,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타락한 인류를 자신과 화평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는 것이다.

선교는 교회가 감당하는 여러 가지 사역 중의 하나가 아니라, 하나님의 본성에서 흘러나오는 교회의 본질이다. 성경이 계시하는 하나님은 선교적인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땅의 모든 족속이 그분의 사랑과 구원을 알기 원하시고, 그분에게 돌아와 구원을 얻기를 원하신다. 신구약 성경이 증거하는 하나님의 택하심(election)은 편애(favoritism)가 아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신 이유는 그를 편애하기 때문이 아니라, 그를 통해서 땅의 모든 족속을 축복하기 위해서였다. 믿음 안에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 우리는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자로서 땅의 모든 족속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구원을 전해야 하는 책임이 있다.

선교의 핵심인 복음 전도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 인류와 온 세상의 구원자이심을 선포하는 것이다. 복음 전도는 그리스도께서 죄인의 구원을 위하여 행하신 일을 설명하고 설득하고 변증하는 것을 포함한다. 케이프타운 서약은 다원주의 현대 사회에서 변증이 얼마나 중요한 전도의 방편인지 선언하고 있다.⁹⁾ 회심의 경험을 강조하는 복음주의자들은 인종, 성별, 교육수준을 막론하고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듣고 이해할 수 있는 지성적인 능력(intellectual capacity)이 있음을 강조해왔다. 이 사상은 19세기 영국과 미국의 노예 해방 운동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신학적·철학적 근거가 되기도 했다.

로잔운동은 초기부터 복음 전도와 사회적 책임이 결코 분리될 수 없는 협력적 관계임을 강조해왔다. 실제 선교 현장에서 “복음이 먼저인가, 빵이 먼저인가?”라는 질문은 큰 의미가 없다. 이 두 가지는 언제나 함께 동반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복음을 거부한다고 빵을 주지 않는 선교사는 없을 것이고, 복음을 도외시하고 빵만 주는 선교사도 없을 것이다. 크리스토퍼 라이트(Christopher Wright)는 복음 전도와 사회적 책임의 관계를 설명하는 데 있어서 “궁극성”(ultimacy)이라는 개념이 “우선성”(priority)이라는 개념보다 더 효과적이라고 지적했다.¹⁰⁾ 선교의 궁극적인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는 것인데, 그것이 모든 선교사역에서 항상 첫 번째 임무가 될 수는 없다는 설명이다. 복음 전도와 사회적 책임의 순서를 논쟁하는 것보다 이 두 가지가 지향하는 동일한 목표를 분명하게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모든 선교 사역의 목표는 소망 없는 죄인이 회개하여 구원자 되신 예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것이다.

8) Mark Hutchinson and John Wolffe, *A Short History of Global Evangelicalism*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12).

9) 케이프타운 서약 II-A 2항 “진리 그리고 다원주의의 도전”

10) Christopher Wright, *The Mission of God: Unlocking the Bible's Grand Narrative* (Downers Grove, IL: IVP Academic, 2006), 318-319.

(4) 운동 (Movement)

네 번째로, “운동”(movement)은 공통의 비전에 근거하여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헌신하는 사역의 형태이다. 운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강력한 비전이다. 비전이 제시하는 이상적이고 생생한 미래의 모습에 매료된 사람들은 중앙 집권적인 감독이 없어도 자발적으로 헌신한다. 운동에 있어서 비전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음의 문장이 잘 보여준다. “만일 이곳이 당신이 가려는 곳이라면 우리와 함께 가자.”¹¹⁾ 로잔은 기구나 제도가 아니라, 운동이다. 빌리 그레이엄과 존 스토틀가 제시한 세계 복음화를 위한 강력한 비전으로 시작된 로잔운동은 지금도 중앙 집권적인 본부(headquarter)가 없는 느슨한 조직으로 사역을 펼치고 있다.

운동과 대비되는 것은 제도(institution)인데, 제도의 특징은 규칙과 규정, 절차이다. 체계화된 조직을 강조하는 제도는 과거로부터 물려받은 전통과 관행, 절차를 중요시 여긴다. 제도는 기존 권위에 대한 순종에 의하여 움직이기 때문에 자기 자리를 지키려는 폐쇄적인 마인드를 가지는 경향이 있다. 자발성과 유연성에 기반한 운동과 달리, 제도는 조직의 안정성을 추구하기 때문에 변화에 대한 대처가 늦고 저항이 크다. WCC, WEA와 같은 기구는 세계 주요 교단들의 연합체로 운동의 성격보다 제도의 성격이 강하다. 예를 들어, WCC는 전 세계 352개 교단의 연합체로 각 교단을 대표하는 리더들이 모여서 의제(agenda)를 정하고 공포하는 위로부터 아래로(top-down)의 방식을 채택한다.

이에 반해, 운동은 아래로부터 위로(bottom-up)의 방식을 통해서 의견을 취합하고 의제를 정한다. 제4차 로잔대회를 준비하며 국제 로잔은 Global Listening Team(공동리더 문상철 박사)을 결성하여 2020년과 2021년에 걸쳐 전 세계 지역별, 이슈 네트워크별 공청회(listening call)를 개최했다. 총 12회의 지역 간담회와 총 24회의 이슈 네트워크 간담회를 통해서 지상대위임령의 성취를 위해 남아있는 과제와 더 많은 협력이 필요한 분야에 대한 연구를 사회과학적 방법으로 진행했다.¹²⁾ 이것은 운동으로서의 로잔대회가 어떻게 주요 의제를 설정하는지 보여주는 좋은 예시이다. 또한, 지상대위임령 현황 보고서(State of the Great Commission Report) 작성을 위해서 130여 명의 학자와 현장 전문가들이 40개의 중요한 선교 주제별로 연구하고 있다. 이 보고서는 제4차 로잔대회 전에 모든 참가자들에게 배포되어서 세계 선교 현황에 대한 충분한 사전 인식을 공유하고 대회에 참석하도록 할 예정이다.

3. 제4차 로잔대회와 한국 선교

제4차 로잔대회의 주제는 “교회여 함께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나타내자”(Let the Church Declare and Display Christ Together)이다. 이것은 “온 교회가 온전한 복음을 온 세상에 전하자”는 로잔운동의 정신을 잘 담아내고 있다. 선교의 본질은 구원의 길이 되시는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그의 사랑을 세상에 나타내는 것인데, 이

11) 팀 켈러, 『팀 켈러의 센터처치』 (서울: 두란노서원, 2016), 712.

12) 문상철 박사가 작성한 제4차 로잔대회 공청회 요약 보고서(‘글로벌과 로컬 사이에서 상호작용하는 복음주의 교회’)는 로잔 글로벌 분석(Lausanne Global Analysis) 2022년 11월호에 게재되었다. <https://lausanne.org/content/lga/2022-11/the-evangelical-church-interacting-between-theglobal-and-local>

것은 복음 전도와 사회적 책임을 모두 포함하는 포괄적인 개념이다. 국제로잔이사회는 “다함께”(together)의 중요성을 강조했다는데, 이것은 다중심적 선교(polycentric mission)가 21세기 선교의 중요한 본질임을 천명한 것이다. 로잔운동은 다방향(multi-directional)으로 진행되는 현대 선교를 위한 글로벌 플랫폼으로 기능하며, 한 차원 더 깊은 선교적 협력과 파트너십이 일어나고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세계 선교 운동의 변화에 주목한 로잔운동은 리더십 구성과 참가자 선정에 있어서 현재 세계 교회의 현실을 잘 반영하고자 힘쓰고 있다. 일례로, 제4차 로잔대회의 프로그램 위원장은 홍콩 출신의 패트릭 펑(Patrick Fung, 국제 OMF 대표)이 맡고 있으며, 다수의 아시아 선교학자들과 선교 리더들이 신학위원회와 프로그램 위원회에 참여하고 있다.

한국 교회는 비교적 짧은 기독교 역사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놀라운 부흥과 기도 운동을 경험했다. 지난 세기에 미국과 영국 교회는 자유주의 신학의 거센 도전 앞에서 고전했지만, 한국 교회는 성경을 정확 무오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 견고한 복음주의 신앙 위에 서 있다. 하지만 지난 20년간 세속주의와 물질주의의 도전 앞에서 한국 교회의 부끄러운 민낯이 드러나기도 했다. 한국 교회에 만연한 개교회주의, 성장주의, 물량주의는 한국 선교 운동의 방향을 근본적으로 돌아보게 하였다. 그런 의미에서, 제4차 로잔대회는 한국 교회의 승리주의를 자랑하는 시간이 아니다. 한국 교회가 단기간에 성취한 부흥과 선교 운동의 모델을 다른 국가에 이식(transplant)하는 시간도 아니다. 그보다는 하나님의 구별된 백성으로서 겸손(humility)과 정직(integrity)과 단순성(simplicity)을 회복하여 세계 복음화를 위해 더 깊이 헌신하기로 다짐하는 시간이 되어야 할 것이다. 이것이 제4차 로잔대회를 준비하는 한국준비위원회의 기도와 소망이다.

무엇보다도 그리스도의 복음을 맡은 자로서, 한국 교회가 정직과 신실성을 회복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제2차 로잔대회 공식 문서인 마닐라 선언은 복음을 전하는 증인의 신실성(integrity)을 다음과 같이 강조하고 있다. “변화된 삶보다 복음을 설득력 있게 전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으며, 삶이 복음과 불일치하는 것만큼 복음을 비난받게 만드는 것도 없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행동하고, 거룩한 삶으로써 복음의 아름다움을 선양하며 복음을 빛나게 해야 한다.” 교회 안에서의 삶과 교회 밖에서의 삶이 일치할 때, 우리는 세상에서 빛과 소금으로 살아갈 수 있다. 복음의 메시지(message)와 복음을 전하는 메신저(messenger)는 결코 분리될 수 없기 때문이다.

하워드 스나이더(Howard Snyder)에 따르면, 교회는 하나님의 통치를 가시적으로 보여주는 공동체인 동시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실행하는 메시아적 공동체이다. 이 사명을 위해서 교회는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주적인 회복과 구원을 강조하고 있다는 사실을 선포해야 한다. 하나님의 궁극적 계획(master plan)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회복하고 구원하여 영광 받으시는 것이기 때문이다(엡 1:10; 골 1:20). 이러한 목적의식을 가진 교회는 우주적인 하나님의 통치를 한 교회(혹은 한 교단) 안에 가둘 수 없음을 인정하게 될 것이다. 초대교회의 순교자 스테반이 선포했던 것과 같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은 사람의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않기 때문이다(행 7:48).

로잔운동은 세계 복음화라는 확고한 비전을 위해 자발성과 유연성, 협력과 동역에 근거한 글로벌 선교 운동의 플랫폼으로 귀한 역할을 감당해왔다.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성과 성경의 절대적 권위에 기반한 복음주의 선교가

전 세계로 확산되는 데 로잔운동은 영적인 활력과 창의적인 전략들을 제공했다. 20세기 후반부터 세계 선교에서 중요한 역할을 감당해 온 한국 교회가 이번 로잔대회를 통해서 로잔의 정신인 겸손과 정직과 단순성을 체득하는 기회가 되기를 기도한다. 우리 안에 있는 승리주의·영웅주의적 태도를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의 우주적인 교회의 일원이 되어 세계 복음화를 위해 겸손하게 협력하고 동역하게 되기를 기대한다.



주제특강 2

주 예수님을 바라보자!

유기성 목사(로잔 한국준비위원회 위원장, 선한목자교회 원로목사)

갈 2:20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4차 로잔대회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드러내는 대회가 될 것입니다.

로잔대회를 위하여 기도하되 반드시 한국 교회의 영적 각성을 위하여도 기도합니다.

4차 로잔대회의 주제가 “교회여, 다함께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나타내자”입니다.

이 주제를 조금 더 정확히 표현하면 “교회여, 다함께 그리스도의 통치를 선포하며 우리의 삶을 통하여 그리스도를 나타내자”입니다.

이 주제는 4차 로잔대회에 참석한 열방의 교회 지도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동시에 이 대회가 열리는 한국 교회와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온 세상과 역사를 통치하시는 것이 분명하다면 4차 로잔대회가 열리는 한국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없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 일일 것입니다.

저는 한국 교회가 로잔운동의 모델이 되는 획기적인 계기가 되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문제는 4차 로잔대회가 이제 6개월 남았다는 것입니다.

과연 로잔대회까지 한국 교회에 영적 각성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그러나 저는 여전히 6개월은 충분한 시간이라 믿어집니다.

왜냐하면 이번 목회자 콘퍼런스에서 일어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 모인 우리들만이라도 진정 예수님을 왕으로 섬기며, 예수님을 항상 바라보며 예수님과 동행한다면 한국 교회에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마가다락방의 성령이 임할 때는 성령이 임하지 않은 상태에서 기도하였습니다.

그들에게 성령이 임한 것이 부흥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는 성령이 임한 이후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부흥의 물줄기가 이미 우리 안에 흐르고 있는 것입니다.
 영적 각성은 주님을 바라보는 눈이 열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변하고 교회가 변화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콘퍼런스가 오직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집회가 되기를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4차 로잔대회의 주제가 “교회여, 다함께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나타내자”가 아닙니까?

지금 우리가 할 일은 주 예수님께서 이 콘퍼런스를 이끌어 주시도록 우리 모두의 진정한 주님이요 왕이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마 18:20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그러면 주님께서 매 순서 마다 강의하는 사람에게 말씀을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는 우리에게 주님의 마음을 부어 주실 것입니다.

한국 교회는 고난도 겪었고 부흥도 경험했고 성경공부와 제자훈련, 전도와 선교, 구제와 봉사에 열심도 있습니다. 그러나 한 번도 진정한 개혁을 경험해 보지 못했습니다.

역사상 어느 교회나 개혁되지 않으면 소멸해 버리고 말았습니다.

한국 교회 개혁, 하루라도 빨리, 그것도 반드시 목회자들에 의하여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 개혁은 목회자 안에 진정한 회개의 역사가 일어날 때 시작될 것입니다.

사도행전의 부흥은 두 가지 때문이었습니다.

선명한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과 주 예수님과 동행하는 성도들의 삶이었습니다.

그로 인하여 성도들이 모이는 곳곳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신 것입니다.

우리도 이와같이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한국 교회 영적 각성을 위하여 기도하되 주님과 동행하면서 기도해야 합니다.

지금 우리 나라는 분열의 심각한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라를 위한다는 마음으로 나라를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서운 것입니다. 자신이 잘못하는 것을 깨닫기 어려운 것입니다.

이 점은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 교회를 위한다고 싸우고 가정을 위한다고 서로 싸우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마귀에게 철저히 미혹당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고후 5:18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이러한 때에 하나님과 우리 나라 사이에 서서 무너진 틈을 막아설 자가 있어야 합니다.

겔 22:30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 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에서 찾다가 찾지 못하였으므로

지금 하나님과 나라 사이에 서서 하나님의 심판을 막아설 자가 필요합니다.

로잔의 선교정신은 ‘온전한 복음을 온 교회가 온 세상에 전하자’입니다.

로잔운동은 처음부터 총체적 선교를 고백해 왔습니다.

총체적 선교는 죄악 속에 고통 당하는 인간과 피조세계의 다차원적인 필요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통치가 실현되게 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복음의 포괄성, 총체적 선교가 ‘당연하다, 마땅히 해야 할 일’이라고 주장해서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온전한 복음을 전파하며 세상을 향한 선교적 사명을 감당하려면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분명한 복음에 굳게 서 있어야 합니다.

교회가 개인 영성에만 치우쳐 사회적 영성을 소홀히 하였기 때문이라고 비판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아닙니다. 교회가 복음 그 자체를 소홀히 하였기에 이런 오류에 빠진 것입니다.

나무가 병들었기에 열매가 없는 것이지 나무에만 신경썼기에 열매가 없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붙잡아야 할 말씀은 율법주의의 영적 공격에 처한 갈라디아 교회에 주신 사도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갈 2:20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발제 1

로잔 운동과 복음 전도의 우선성의 성경적, 역사적 의미

최성은 목사(로잔 한국준비위원회 부위원장, 지구촌교회)

■ 우리는 우리가 붙든 복음의 본질과 깊이를 아는가?

데이비드 웰스(David F. Wells 1939) - 용기 있는 기독교(The Courage to Be Protestant)

“그러나 성경적으로 보면, 복음의 단순성과 심오성은 양자 택일의 문제가 아니다. 둘 다 택해야 한다. 복음은 누구나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단순하면서도, 아무도 깊이를 완전히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심오하다. 기독교 신앙을 성경적으로 온전히 보전하고 싶으면, 단순성과 심오성 둘 다를 아주 조화롭게 유지할 필요가 있다. 복음의 단순성만 취하고 심오성을 버린 복음주의자들은 지금 기독교 신앙 자체가 그들의 손 안에서 부서지기 시작하는 모습을 목격하고 있다.”

- 우리는 복음주의자들로서 과연 복음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 우리는 진정으로 온전한 복음을 붙들고 있는가?
- 우리는 복음의 우선성이라는 말을 정말 이해하고 있는가?
- 우리가 붙들고 있는 복음은 성경적인 것이며, 시대와 문화와 인종과 교단과 심지어 각 기독교 교단의 신조도 뛰어넘는 것인가?
- 동시에 우리는 아직 복음의 깊이를 다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바울 사도와 같은 겸손한 마음이 복음의 주체 이신 하나님 앞에 있는가?

제4차 로잔 대회 (Let the Church Declare and Display Christ Together)

“교회여, 함께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나타내자”

■ 기독교 복음전도의 필요성이 사라지다

■ 종교개혁과 계속되는 새로운 도전들

- 종교개혁 이전의 개혁자들
존 위클리프, 안 후스, 프라하의 제롬 혹은 히에로니무스, 사보라롤라, 피터 발도, 웨셀 간스포트, 윌리엄 틴데일 등이다.
- 계몽주의와 신철학의 도전

■ 복음전도의 우선성이란 의미는 과연 무엇인가?

- 바트 어만(Bart D. Ehrman, 1955) - 기독교는 어떻게 역사의 승자가 되었나?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 남을 사랑하고, 남에게 유익하게 행동하라고 명한다면, 게다가 하나님만을 섬기지 않는 그가 다가올 신의 심판을 피할 수 없는 운명이라면, 여기서 도출할 수 있는 결론은 오직 하나다. 기독교인은 그가 기독교를 받아들이도록 종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것만이 그가 구원받고 영원한 벌을 면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며, 아울러 기독교인이 남을 향한 사랑을 제대로 보여줄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의 예배와 복음전도

로버트 뱅크스 - 1세기 기독교 시리즈

알렌 크라이더 - 초기 기독교의 예배와 복음전도

- 계몽주의 시대의 복음전도

찰스 스펠전

존 번연 - 천로 역정

C. S 루이스

“오늘날 공산주의 치하, 이슬람 문화권, 독재 정권에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과연 어떻게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을까? 교회가 세워질 수 없고, 제자훈련을 제대로 받을 수 없고, 간신히 쪽 복음만 의지하는 그런 곳에서도 어떻게 복음이 전파되고, 심지어 그리스도인들의 숫자가 증가할 수 있을까?”

■ 복음은 무엇으로부터의 자유를 말하는가?

- 팀 켈러(Timothy J. Keller) - “포스트모던 시대의 전도” 강의 중

“포스트 모던은 자유를 외친다. 그런데 이 자유는 하나님으로부터의 자유를 뜻한다.”

■ 복음전도의 우선성과 사회적 책임 논쟁

- 월터 라우센부쉬(Walter Rausenbusch, 1861-1918) - 사회복음을 위한 신학(A Theology for the Social Gospel)

예수 그리스도와의 개인적인 관계를 중시하는 전통적인 복음에 대한 이해와는 달리 사회의 구조적인 죄악을 제거하여 인간을 각종 억압과 착취로부터 해방시킴으로써 인간 사회를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시키는 것이 예

수님 가르침의 요지요 복음의 핵심이라고 주장하였다.

- 1910년 에든버러 세계선교대회(World Missionary Conference, WMC)
- 1921년 국제선교협의회(International Missionary Council, IMC)
- 1948년 세계 교회 협의회(World Council of Churches, WCC)
- 1961년 국제선교협의회 세계 교회 협의회에 흡수
WCC의 선교는 급진적 자유주의들의 영향으로 말미암아 ‘선교의 세속화, 선교의 인간화, 선교의 모라토리엄’을 주장하며 복음적 선교의 열정을 잃어버리고 말았다.
- 1968년 제4차 세계 교회 협의회(WCC) 읍살라 대회 - 존 스토틀
“육신적인 가난이나 기아에 대해 염려와 외침은 들렸으나, 복음화 되지 못한 수백만의 영적 기아에 대해 염려하고 주를 거부하고 회개하지 않았던 도성을 향해 우셨던 우리 주님의 눈물은 찾아볼 수 없었다. 우리가 선교를 봉사적 관심 속에서 바라본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먼저 그리스도 중심적인 존재가 되어야 그 다음에 세상을 향한 기능을 나타낼 수 있다.”
- 1973년 방콕 WCC 세계 선교와 복음화 대회(Conference on World Mission and Evangelism)
“구원이란 인권에 대한 정치적 억압에 항거하여 인간의 존엄성을 위해서 투쟁하는 것이며, 구원이란 개인의 삶 속에 도사리고 있는 절망에 항거하여 희망을 불러일으키기 위해서 투쟁하는 것이다.”
- 1966년 시카고 휘튼 세계선교대회(The Congress on the Church’s Worldwide Mission)
- 1966년 베를린 세계전도대회(The World Congress on Evangelism)
- 1974년 스위스 로잔 세계복음화국제대회(the First International Congress on World Evangelization)

■ 사탄이 던진 논쟁 & 우리가 회복해야 할 균형

- 우리는 복음과 빵 사이에서 싸울 필요가 없다. 그것은 사탄이 그리스도인들을 이간질하려고 던진 화두이다. 복음전도와 이웃 사랑 즉, The Great Commission 과 The Great Commandment 사이의 균형을 무너뜨리는

것은 사탄의 교회를 향한 최고의 전략이다.

- 복음증거를 하지 않으면, Nominal Christian이 증가하게 되고, 이것이 바로 기독교가 세속화되고, 세상의 하나의 종교로 타락하게 되는 무서운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것이다.

■ 로잔 운동의 방향성에 대한 염려

■ 통전적 선교와 총체적 선교 개념의 논쟁

- The Primacy and Supremacy of the Gospel (복음의 최우선성)

존 스토티, 크리스토퍼 라이트 - 선교란 무엇인가

“내가 지금까지 이야기한 선교라는 단어는,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세상 속으로 보내셔서 하라고 하시는 모든 것을 아우르는, 상당히 포괄적인 단어다. 그러므로 선교는 전도와 사회적 책임을 포함한다. 둘 다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을 섬기려는 사랑의 진정한 표현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나는 우리가 ‘교회가 희생적으로 감당하는 선교 사역에서 복음전도는 최우선이다 (로잔언약 제6항)’ 라는 로잔언약의 선언에 동의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리스도인은 어떤 식으로든 인간이 압제당하고 무시당할 때, 그들이 빼앗긴 것이 시민의 자유든, 인종에 대한 존중이든, 교육이든, 의료든, 고용이든, 충분한 의식주든 간에, 양심의 극심한 고통과 연민을 느껴야 한다. 인간의 존엄성을 손상시키는 것은 무엇이든 우리를 향한 모욕으로 여겨야 한다. 그러나 복음을 모르거나 거부하여 하나님으로부터 소외된 것만큼 인간 존엄성에 파괴적인 것이 있을까? 또 우리는 어떻게 정치적, 경제적 해방이 영원한 구원만큼 똑같이 중요하다고 진지하게 주장할 수 있을까? 둘 다 그리스도인이 사랑으로 해야 할 일인 것은 분명하다. 하지만 바울이 동족 유대인들을 향한 염려를 침통하게 강조하며 편지를 썼을 때 한 말에 귀 기울여 보라(롬 9:1-3, 10:1-4).”



패널토의1

복음의 우선성에 관한 패널토의

진행 : 최형근 교수(한국로잔위원회 총무, 서울신학대학교)

패널 : 이재훈 유기성 한철호 최성은



복음의 포괄성



성경강해: 사도행전을 통해 보는 그리스도 중심적 설교

멀리까지 도달한 복음

브라이언 채플 교수(커버넌트 신학교 명예총장)

사도행전 13:1-5

- 1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젓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 2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가라사대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 3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 4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 5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새 요한을 수종자로 두었더라

요약

그리스도께서는 성령이 제자들에게 임하신 후 그들이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그분의 증인이 될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오순절에 수천 명의 회심하고 초대 교회가 탄생하면서 이 계획은 빠르게 전개되는 듯 보였습니다. 그러던 중, 예루살렘에서 신자들에 대한 박해가 시작되었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계획은 무산되는 듯했습니다. 그러나 핍박받던 그리스도인들은 바람에 흩날리는 씨앗처럼 되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먼 땅으로 가져가서 전파하기 시작했습니다. 중동, 아프리카, 아시아(현재 우리가 소아시아라고 부르는 곳)가 교차하는 지점인 안디옥에 첫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바로 이곳에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렸으며 또한 최초의 선교사들이 이 땅의 “가장 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파하도록 파송되었습니다. 이 시간 저는 안디옥 교회 지도자들의 명단(사도행전 13:1-5)과 그들이 실천한 사역을 조명함으로써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 예수의 메시지를 모든 민족에게 전하기 위하여 어떻게 성령의 역사 안에서 연합하여야 하는지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서론:

- 성령의 능력에 대한 예수님의 약속
- 우리 시대에 일어난 성령의 운동(movement)
- 초대교회 시대의 성령의 운동(movement)

주요 질문:

- 어떻게 해야 우리의 사역이 성령님의 움직이심에 일치될 수 있을까?
- I. 성령의 사역(mission of the Holy Spirit) 더욱 발전시킬 연합에 헌신하라 (13:1, 4-5)
- II. 성령의 사역을 더욱 발전시킬 일(practices)에 헌신하라 (12:2-3)
- III.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한 성령의 사역을 선포함에 헌신하라 (13:6-12).

원문

Christ-centered Preaching: New Challenges and Developments

Bryan Chapell

Part 1: Challenges

Christ-centered preaching is the application of Biblical Theology to the ministry of preaching.

Biblical and Systematic Theology scholars both agree that we must consider the context of a text to determine its proper meaning. Biblical Theology emphasizes that the Holy Spirit gave the context that unites all of Scripture right at its beginning. After the fall of humanity, God gave the first proclamation of the Gospel in Genesis 3:15. There our Lord promised a Redeemer who would come to crush the head of Satan and rescue his people from their fallen world and hearts. The rest of Scripture is the unfolding of that redemptive plan. So, no text can be fully explained without determining its relation to that larger redemptive context. Christ-centered preaching keeps that redemptive context in view in all scriptural proclamation.

Traditional challenges to Christ-centered preaching are usually associated with allegations that it leads to **allegorical** or **antinomian** interpretations.

Allegorical

The allegation that Christ-centered preaching is allegorical is usually based on the assumption that it forces references to Jesus onto every biblical text. This is actually contrary to what I teach. Biblical Theology does not use word play or imaginative connections to twist the text into some direct or symbolic representation of Jesus.

Christ-centered preaching actually teaches us to ask, “How is this text revealing the ways in which God is providing for those who cannot provide for themselves?” That question will reveal dimensions of a God’s redeeming grace that come to fulfillment in Christ. Again, the goal is not to make Jesus appear where there is no textual foundation, but to show through the disciplined application of grammatical-historical methods how God’s grace is on display.

Having taken this first step, the next in the sermonic process is to relate how that grace functions in the context of the larger work of redemption that culminates in Christ. Sometimes this approach is referred to as a Christo-telic interpretation. This terminology reminds us that “Christ is the end (telos) of the law” (Rom. 10:4), and that “the law was our schoolmaster to lead us to Christ” (Gal. 3:24). Perhaps the most comprehensive statement of this truth is Rom. 15:4: “Everything that was written in the past

was written for us, so that through the encouragement of Scripture we might have hope.” That hope is never in what we do, but in what God provides through the ministry of his Son.

Of course, not everything that was written mentions the Son, but everything points to the need we have to hope in God’s provision in the light of our human fallenness. Turning us from self-sufficiency to divine hope is the ultimate purpose of all Scripture. This understanding makes God’s revelation of Christ the central purpose and the end goal of all Scripture. With this understanding there is no difference between Christo-centric and Christo-telic preaching, when they are properly defined. Both are pointing us to the grace of God that culminates in Christ.

Antinomian

When some challengers hear that Christ-centered preaching always obligates us to expound the grace of God revealed in the redemptive context, they sometimes presume that our preaching de-emphasizes obedience to God’s law. They are concerned that a grace emphasis may lead to license. We must acknowledge that some preachers abuse the grace of God; they always have. However, the allegation that disclosing the pervasive grace of God necessarily leads to license is based on a definition of grace that Scripture abhors.

Grace defined according to Scripture is not a license to sin, but rather the means by which God breaks the power of sin and enables us to glorify him. By grace we are pardoned from sin’s guilt and freed from its power.

How does grace provide both pardon and power? The source of both is our union with Christ which is the fundamental provision of God’s grace. By that union, we receive Christ’s righteousness in place of our unrighteousness. We also receive a new nature whereby the Holy Spirit indwells us so that we both desire and are made able to please God.

Thus, grace is not the antithesis of the law of God; rather, grace is the means by which our affections are changed, and our abilities empowered, so that God’s glory becomes our highest priority, greatest joy, and constant endeavor. We preach grace not to avoid obedience but to inspire the compelling love that is Christ’s Greatest Commandment (Matt. 22:37).

Christo-monism

This emphasis on preaching grace to develop a heart that resonates with Christ's heart introduces and answers the newest challenge to Christ-centered preaching. Some have recently alleged that Christ-centered preaching diminishes proper regard for God the Father and the Holy Spirit. This concern is that Christ-centered interpretation of Scripture will create a form of Christo-monism, a tendency to preach Christ to the exclusion of the other members of the Trinity.

This concern, however, does not engage with either the practice or the logic of Biblical Theology. Christ's highest priorities are love and honor of the Father (Jn. 8:49; 17:1-4). Jesus said, "Whoever has seen me has seen the Father" (Jn. 14:9). The Apostles told us that we gain "knowledge of the glory of God in the face of Jesus Christ" (2Co 4:6) and that he is the "exact representation" of the Father (Heb. 1:3). Not only does Christ-centered preaching obligate the preacher to glorify the Father whenever he is mentioned in the text, it also obligates the preacher to glorify the Father whenever Jesus is mentioned in the text.

Relating a text to Christ's ministry or nature also does not diminish the Holy Spirit. The earthy mission of the Spirit who proceeds from the Father is to bear witness to Christ (Jn. 15:26). Centering the message of Scripture on the redemptive ministry of Christ does not sideline the Spirit, it fulfills his divine purpose. He who inspired all Scripture was commissioned to bring glory to our Savior (Jn. 16:12-14). To interpret the Holy Spirit's Word without glorifying the Son is to preach contrary to the purpose of the Spirit.

Geerhardus Vos rightly taught that God's revelation of himself in Scripture is "inseparably linked to the activity of redemption." So, each member of the Trinity is glorified by interpreting Scripture according to its redemptive purpose. Preaching that is truly theocentric necessitates a Christocentric explanation, not because fairness requires equal time for each person of the Godhead, but because any truly "Christian" sermon must exegete Scripture to show the reality of the human predicament that requires a divine solution and identifies that solution.

Exposition that discloses God's redemptive activity alerts the human heart to its necessity, reveals the gracious character of God, and necessarily brings Christ's ministry into view (John 1:1 - 3, 14, 18; 14:7 - 10; Col. 1:15 - 20; Heb. 1:1 - 3). If Christ's ministry does not come into view, then the only solution to the human dilemma will become some aspect of human effort that inevitably undermines the necessity of God's provision and, thus, denies his glory.

Part 2: Developments

Standard Approaches

What are proper interpretative approaches to a text that help us see it within the context Scripture's larger redemptive revelation? We answer first by noting how Jesus, himself, explains Scripture. Jesus identified the redemptive focus of all Scripture when he walked with the two disciples on the road to Emmaus, after his resurrection. There, "beginning with Moses and all the Prophets, he explained to them what was said in all the Scriptures concerning himself" (Luke 24:27; cf. 24:44 and John 5:39, 46).

Jesus related all portions of Scripture to his own ministry. This does not mean that every phrase, punctuation mark, or verse directly reveals Christ, but rather that all passages, in their context, develop understanding of his nature or necessity. Jesus is the apex and culmination of Scripture's testimony. The law and the prophets that precede, and the apostolic ministries that follow, the work of the cross center us on Christ's ministry.

A passage retains its Christocentric focus when the sermon identifies how the text advances our understanding of God's redemptive plan. This biblically integrated view of Christ-centered preaching warns preachers not to believe they have properly expounded a text simply because they have identified something in it that reminds them of an event in Jesus' life and ministry. A preacher needs to demonstrate where and how a particular text functions in the context of God's redemptive revelation.

In its context, every passage possesses one or more of four redemptive foci (that we need not keep strictly segregated for our understanding). The text may be:

- predictive of the work of Christ,
- preparatory for the work of Christ,
- reflective of the work of Christ, and/or
- resultant of the work of Christ.

These categories do not exhaust the possibilities of how texts may reveal the redemptive work of God, but they do provide dependable means of exploration and explanation.

Gospel Glasses

These categories simply remind us that the path to discerning the implicit aspects of the gospel of grace that are imbedded in every biblical passage does not require tortuous expeditions of logic.

We can see the grace glimmering in every text by putting on gospel glasses whose lenses are two

simple questions: What does this text reflect of God's nature that provides redemption? What does this text reflect of human nature that requires redemption?

Asking what a text reflects of God's nature and our nature is not an unfair or unnatural approach to any biblical text. Such questions do not impose the New Testament on the Old Testament, or overlay the text with prejudicial theology. Without doing damage to the integrity, authority, and exegesis of a passage, these questions enable us to view every text redemptively.

Proper exposition does not discover its Christ focus by ignoring a passage's plain meaning or by imposing Jesus on the text. Christ-centered preaching identifies the role of a text in the context of the Bible's testimony of God's gracious character, instruction, and actions, which are ultimately manifested in Christ (2 Cor. 1:20; Rev. 22:13). Expository preaching need not mention Golgotha, Bethlehem, or the Mount of Olives to remain Christ-centered. As long as a preacher uses a text's statements or context to expose the theological truths or historical facts that demonstrate the ultimate necessity of God's grace, Christ assumes his rightful place as the ultimate focus of the message.

Necessary Application

Discerning the Gospel purpose of a text is not only necessary for proper interpretation, but also for effective application. Often scholarly discussion of the necessity of Christ-centered exposition terminates in a debate about proper interpretation, but preachers cannot end the discussion there. We are not simply ministers of information; we are ministers of transformation. Nowhere are the necessity and power of Christ-centered exposition more apparent than when we consider the needed motivations for our sermons' applications.

Motivation. Jesus taught that the greatest commandment is "You shall love the Lord your God with all your heart and with all your soul and with all your mind." (Mat 22:37-38 ESV). While there are many motivations for obedience, the foundation of all obedience that truly honors God is a heart for him (Prov. 4:23). Unless love for God compels our service, our obedience does not glorify him.

What is the source of such love? The source of this compelling love is God's love for us (1 Jn. 4:4). This is why the grace of Scripture that culminates in the ministry of Christ is so central to peaching that remains true to the gospel. Grace threaded through Scripture and lavished on us stimulates the love in us that motivates true obedience to him. Love for God makes our righteousness a gift we offer God in loving devotion for his sacrificial provision for our sin (Rom. 12:1; Heb. 13:15). Without this appreciative

response, obedience cannot maintain its doxological intent and may, in fact, become in our minds a way to bribe or manipulate God to honor our desires, rather than a fulfillment of our desire to honor him.

Enablement. Why must we keep returning to grace-prompted love in faithful exposition of Scripture? Is it not enough for preachers to show that God has enabled us to understand what he requires (1 Cor. 2:12; Phil. 4:13). He must also enable us to serve him. We must always be reminded that apart from him we can do nothing (John 15:5).

Our enablement begins with the faith that we are new creatures in Christ Jesus and can do what God requires by the power his Spirit has instilled within us (2 Cor. 5:17; Gal. 6:15). The Bible assures us that we are no longer slaves to sin and not under the control of Satan (Rom. 6:6).

The wonderful truth requires us to consider this distasteful question: Since we are no longer slaves to sin, why do we sin? The Bible will not allow us to say, “I just can’t help it.” The grace of God has freed us from the guilt and power of sin. The Apostle Paul clearly says, “Sin will have no dominion over you” (Rom. 6:14). John echoes, “He who is in you is greater than he who is in the world (1Jn. 4:4). So why do we sin? The Bible’s answer we hate to hear is this: We sin because we love the sin.

If sin did not attract us, it would have absolutely no power in our lives. The reason that we yield to temptation is because we love the sin to which we are drawn. That’s why James reminds us, “Each person is tempted when he is lured and enticed by his own desire” (Jm. 1:14).

So, if our love for sin, is what gives it power in our lives, how do we displace love for sin? The gospel answer is with a surpassing love for Christ (Eph. 3:16-20; Col. 1:18).

When we love our Lord above all other loves, zeal for him exceeds all other passions. This is why we must proclaim God’s grace so consistently and passionately. This is why God threads his gospel through the totality of Scripture. Grace is not some sentimental substitute for bold exposition; rather, grace is the stimulus of love that is the gospel’s greatest power.

Apologetics. Preaching that stimulates ever greater love for God drives the affections of the world from the heart so that it beats ever stronger for God’s purposes. This is how Scripture motivates and empowers obedience in God’s people; it is also how God claims his people.

We live in an age of pervasive pluralism: the sense that all religions are basically the same and all religious distinctions are unnecessary. The unique feature of Christianity is the claim that such moral codes cannot qualify persons for God's acceptance on earth or for eternity. Because we could not climb to Him, He came to us in the person of Jesus Christ (Phil. 2:5-9).

Preaching that is not regularly Christo-centric denies our people the reminder and the hope of this distinction. Our faith is never in the sufficiency of our good works, but in the Father's provision and the Spirit's proclamation of the justification that we receive by faith alone in Christ alone. True love for our people and for lost people is never best expressed by silence about the Christ that they need to love and to honor our God. True love for God's people and for God himself is the fruit of consistently proclaiming the Christ by which God makes known his love.



특별강의 및 Q&A

로잔대회를 향한 기대

마이클 오 총재(국제로잔)



주제특강 3

복음주의 교회의 미래 전망

이규현 목사(KWMA 이사장, 수영로교회)

요한복음 2:7-10

7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구까지 채우니

8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시매 갖다 주었더니

9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10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주제특강 3

한국 교회를 위한 예배 로드맵

“예배 이후의 예배(Liturgy after liturgy)”

주승중 목사(로잔 한국준비위원회 부위원장, 주안장로교회)

롬 12:1, 히 13:16

1. 들어가는 말: 삶으로서의 예배

남편을 일찍 잃고 혼자서 어렵게 딸을 키우며 산 어머니가 있었다. 어머니의 유일한 희망이었던 이 딸은 잘 자라서 선생님이 되었다. 이 딸이 어머니에게 물었다.

“엄마! 엄마의 사랑과 희생으로 제가 이렇게 선생이 되었어요. 이제 엄마가 저에게 소원이 있으면 말씀하세요. 저도 들어드리고 싶어요.”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던 이 어머니는 딸의 이 말에 딸이 같이 교회 가는 것이 소원이라고 말했다. 딸은 기꺼이 어머니의 말씀대로 교회에 갔다. 그런데 교회에 간 첫 주일에 딸의 눈에 비친 것은 세상과 똑같은 모습들이었다. 예배 시간에 핸드폰 보는 사람들, 예배가 끝나자 식당 앞에서 서로 먼저 들어가려고 얼굴 붉히는 교인들, 예배 후에 주차장에서 나오다가 서로 양보하지 않고 언성을 높이는 교인들 등 예배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온 딸은 어머니에게 이렇게 말했다.

“엄마, 나 다음부터 교회에 가지 않을래요!”

그러면서 자신이 처음 교회에 간 오늘 교회에서 봤던 모습들을 어머니에게 자세히 설명하였다. 그러자 어머니는 딸에게 이렇게 대답하였다.

“딸아! 나는 수십년 동안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리며 예수님만 보았는데, 너는 하루 동안에 나보다 더 많은 것들을 보았구나!”

이 이야기는 신앙생활을 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예배와 삶에 대하여 깊이 생각하게 만든다. 이 이야기의 어머니처럼 교회에 와서 예수님만 바라보는 것이 신앙인들에게는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 교회에 처음 온 딸과 같이 믿지 않는 이들에게는 먼저 믿은 이들에게서 보이는 예배 후의 삶의 모습이 매우 중요하다. 왜냐하면 믿는 자들의 삶의 모습이 안 믿는 이들에게 잘못하면 거침돌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 의미에서 신자들이 드리는 ‘삶으로서의 예배’는 매우 중요한 내용이 아닐 수 없다. 그래서 오늘은 ‘한국 교회를 위한 예배 로드맵’으로 ‘삶으로 드리는 예배’에 대해 말씀을 나누고자 한다.

2. 예배 이후의 예배(Liturgy after liturgy)

많은 신앙인들이 예배에 대해서 생각할 때, 예배는 주로 예배당 안에서만 드리는 것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주일이 되면 예배당에 모여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순서를 따라 드리는 것, 이것이 예배의 전부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물론 우리가 예배당에 모여서 영과 진리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며, 기도하며, 찬양하며, 말씀을 듣고, 봉헌하는 행위들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매우 소중한 예배이다.

그런데 예배의 개념이 거기서 끝나면 안 된다.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 받으시는 예배에는 예배당 안에서의 예배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예배당 밖에서의 예배도 있기 때문이다. 그것을 예배학에서는 “예배 이후의 예배”(liturgy after liturgy)라고 표현한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예배 이후의 예배”(삶으로 드리는 예배)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자. 우리가 성경을 찾아보면 “예배”를 의미하는 단어가 여러 개가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바로 “레이투르기아”(λειτουργία)라는 단어다. 원래 이 단어는 고대 희랍에서 백성들이 국가를 위해 봉사하며, 사회를 위하여 공적 봉사를 하는 것을 의미하는 단어였다. 그런데 이 말이 성경에서 예배와 관련하여 여러 곳에서 사용되었다. 즉 이 단어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믿음과 순종으로 하나님을 위하여 하는 봉사와 섬김을 의미하는 것으로 사용되었는데, 그것이 바로 예배라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 단어에 의하면 예배는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봉사와 섬김의 행위라는 것이다(Service to God).

결국 “레이투르기아”라는 이 단어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위탁하신 일을 행하며 세상을 섬기는 것도 일종의 예배 행위가 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 단어가 가르쳐주는 예배는 예배당 안에서의 예배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 우리들의 삶을 통해서 계속해서 드러져야 한다는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보면, 예배는 어떤 예식이나 형식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 속에서 하나님의 은총에 응답하는 삶의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여기서 우리는 잠깐 예배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알아보아야 한다. “예배는 하나님의 구속 사건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대한 인간의 응답의 행위”라고 할 수 있다. 예배를 영어로 Worship이라고 하는데 이는 ‘worth(가치)+ship(신분)’의 합성어로 ‘최상의 가치를 돌린다’는 뜻이다. 즉 예배는 하나님께서 종의 형체를 입으시고, 이 땅에 찾아오셔서, 죄인들인 우리를 구원하시는 엄청난 일을 이루셨기에, 우리는 그 분에게 최상을 가치를 돌려 드리면서, 그 사랑과 은혜에 응답하는데, 그것이 바로 예배(worship)인 것이다. 그래서 한일장신대 총장이셨던 고 정장복 교수는 좀 더 풀어서 말하기를 “예배란 피조물인 인간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와 수 많은 은총에 감격하여 그 하나님을 경외하고, 찬양하며, 감사하며 봉헌하려는 우리들의 응답적인 행위”라고 한 것이다. 예배의 대상인 하나님의 은총과 사랑을 깨달은 하나님의 백성은 참된 감사와 찬양과 헌신과 고백의 응답을 드릴 수밖에 없는데, 그것이 바로 예배라는 말이다.

이렇게 예배가 하나님의 은총에 대한 우리의 응답의 행위인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총이 예배당 안에서만 주어지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은총은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 속에서 우리에게 임하고 있다. 그렇다면 앞서 지적하였듯이 예배는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 속에서 하나님의 은총에 응답하는 삶의 문제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한국 교회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배를 하나의 의식이나 형식으로만 생각하기 때문에, 자신들의 일상적인 삶 속에서는 어떤 태도와 가치관을 가지고 살든, 그저 주일예배에 잘 참석하거나 개인의 경건 시간만 잘 가지면 된다고 착각한다. 그러나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자기가 원하는 방식대로 세상 가운데서 마음대로 살다가, 주일에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잘못된 생각이다. 예배는 주일만이 아니라 매일 매순간 우리의 삶을 통해서도 드리는 것이어야 한다. 다시 말해서 예배는 그리스도인들의 삶과 절대로 분리되어서는 안 된다는 말이다.

그런데 한국 교회 성도들의 몇 가지 치명적인 약점들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 예배와 삶의 분리현상이다. 한국

교회의 교인들 가운데는 교회 안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을 때에는 신앙이 충만한 것 같으나, 세상 속으로 나가면 도무지 신앙을 찾아 볼 수 없는 교인들이 있다. 신앙과 생활, 예배와 삶이 분리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신앙인들은 출퇴근 시간 동안 도로 위에서, 전철 안에서, 또 일터에서도 언제 어디서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어야 한다. 주부가 밥을 지으면서, 설거지를 하면서, 학생들은 공부를 하면서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어야 한다. 즉 교인들이 자신들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있지 못하다면 우리는 참된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삶의 현장에서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순종하고 믿음으로 응답하는 일이 없으면, 예배당 안에서의 예배가 아무리 훌륭하고 경건하게 드러진다 해도 그 예배는 교회 마당만 밟는 일이 될 수도 있다(사 1:12 참조). 그래서 주님은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다. “...너희 몸을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롬 12:1)고 말이다. 여기서 “영적 예배”라는 말은 헬라어 원문에 의하면 spiritual worship이라는 말이 아니고 “합당한 예배”라는 뜻이다. “영적”이라고 번역된 단어는 “로기코스”(이 단어는 로고스, 즉 이성이라는 단어와 어근이 같다)인데, 이는 합리적, 이성적이라는 뜻이다. 그런데 이 단어를 “영적”으로 라고 번역을 해서 마치 “육체적(physical)”의 반대말인 “영적(spiritual)”이라는 뜻으로 오해되기 쉽다. 그러나 전혀 그런 뜻이 아니다. 이는 “합리적인 예배”, “합당한 예배”라는 말이다. “거룩한 산 제사”를 드리는 예배는 그리스도인들이 자신들의 전 생활을 주님께 바치는 것이다. 즉 예배당 안의 예배가 세상 속에서의 삶으로 이어질 때에 비로소 그리스도인들은 “거룩한 산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받으시기에 가장 합당한 예배인 것이다.

그래서 미국의 유명한 강해설교가 존 맥아더 목사는 “참된 예배는 주일 예배 시간의 축도 후에 비로소 시작된다”는 의미있는 말을 한 것이다. 주일에 예배당 안에서의 예배를 마치고, 세상으로 나아가 삶속에서 하나님과 사람들을 섬기고 사랑하는 것이 진정한 예배라는 말이다.

즉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진정한 예배는 예배당 안의 예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신자들의 구체적인 삶 속에서 계속해서 행동으로 나타나고 연장되어야 한다는 말씀이다.

3. 예수 그리스도의 섬김과 예배

예배가 이렇게 성도들의 삶속에서의 섬김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은 예수님의 삶 속에서 더욱 분명히 깨닫게 된다. 예수님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막 10:45)고 말씀하셨고,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요 4:34)이라고 말씀하셨다. 즉 예수님은 이 세상을 섬기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고,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 세상에서 이루기 위하여 오셨다. 그리고 그 분은 그 뜻에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그럼으로써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께 최고의 영광을 돌리셨다. 그러므로 우리가 알아야 할 진리는 예배의 궁극적인 목적이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을 돌리는 것이라면, 따라서 세상에서의 섬김과 순종의 삶은 결코 예배와 분리될 수 없다는 사실이다.

여기서 우리는 다시 예배(worship)이라는 단어의 뜻을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worship이라는 말은 “가치”

(worth)라는 말과 “신분”(ship)이라는 말의 합성어다. 그러므로 이 말은 “하나님께 최상의 가치를 돌리는 것”이라는 말이다. 따라서 예배(worship)는 여호와와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그 분께 최상의 가치를 돌리며 그 분을 경배하는 것이다.(시편 29:2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 할지어다”)

그렇다면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그 분께만 최상의 가치를 돌리는 행위인 예배(worship)는 세상을 위한 봉사과 섬김과 결코 분리될 수 없다. 예수님처럼 세상을 향한 봉사과 섬김이 없다면(막 10:45)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예배는 항상 이 세상의 삶을 향해 나아가는 자세로 드러야 하고, 그리고 세상 속에서 예수님처럼 섬기는 일은 곧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예배의 행위가 되는 것이다. 그것이 바로 바울이 말하고 있는 신자들이 하나님께 드릴 영적 예배, 즉 가장 합당한 예배다.

그래서 영국의 성경학자 윌리엄 바클레이는 “진정한 예배는 하나님께 정교한 기도를 드리는 것이 아니고, 장엄한 의식을 드리는 것이 아니다. 진정한 예배는 하나님께 매일 매일의 삶을 드리는 것”이라고 말한 것이다. 즉 우리가 드러야 할 합당한 예배는 예배당 안에서 행하는 어떤 행사가 아니라, 온 세상을 하나님의 성전으로 보고, 우리의 모든 일상 행동을 그 안에서 행하는 예배의 행위로 보아야 한다는 말이다. 그래서 바클레이는 계속해서 말하기를 우리는 주일이 되면 “나는 교회에 하나님을 예배하러 간다”라고 말할 때 동시에 월요일부터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즉 “나는 월요일이 되면 공장에, 상점에, 사무실에, 학교에, 논과 밭에, 산과 들에, 그리고 바다에 하나님을 예배하러 간다”라고 말이다.

그렇다. 우리가 진정으로 드릴 예배는 예배당 안에서만 한정되어 있어서는 안 된다. 우리가 월요일 아침부터 맞이하는 일상의 모든 공간이 곧 우리의 삶의 예배를 위한 곳이 되어야 한다.

4. 예수님의 본받아 섬김으로 예배드리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우리의 모든 삶의 현장에서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산 제사를 드릴 수 있는가? 그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본받아 사람들을 사랑하고 섬김을 통해서 드릴 수 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예수님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막 10:45)로 아낌없이 자신을 내어 주셨다. 예수님은 온 인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섬기셨다. 그러므로 우리들도 예수님처럼 삶의 현장에서 사람들을 사랑하고 섬길 때,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거룩한 산 제사가 되는 것이다.

이것을 히브리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히 13:16) 그렇다. 우리가 예수님을 본받아,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그 사랑을 우리의 이웃에게 선을 행함으로 표현하고, 또한 우리의 가진 것을 나누면서 살아갈 때, 이것이 바로 선교적 삶(Missional life)이요, 우리는 이런 선교적 삶을 통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산 제사를 드릴 수 있게 된다. 우리가 예수님을 본받아,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작은 예수’가 되어 예수님처럼 섬기며 사랑하며 살려고 노력할 때, 우리의 그 삶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합당한 예배가 된다는 말씀이다. 그래서 휘티어(Whittier)는 이렇게 말한 바 있다. “주께서 축복하시는 거룩한 예배는 잃은 자를 회복하고, 상한 영을 싸매 주고, 과부와 고아

를 키우는 것이다”

파친코 이야기

얼마 전 애플 TV에서 재미교포 이민진 작가의 동명의 소설을 드라마로 만들어서 화제가 되었다. 이 드라마의 이름은 “파친코”로, 일제 강점기 시절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 드라마의 내용은 이렇다.

일제 강점기 시절 부산 영도의 가난한 하숙집 딸인 선자는 일본에 가정을 두고 한국을 오가며 사업을 하던 짱패 한수를 만나 그의 아이를 갖게 되면서, 인생의 위기를 맞이하게 된다.

그 시절에 처녀가 아이를 가졌으니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고 버림받게 된 것이다. 그 때 그녀를 구해준 것이 평양에서 신학을 공부한 백이삭 전도사였다. 백 전도사는 아이를 잉태한 채 버림받은 선자를 아내로 삼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길이라고 믿고 그녀와 결혼을 하게 된다.

그리고 그는 선자와 함께 일본으로 건너가 목회를 하게 된다. 백이삭 목사는 차별받던 한인들을 돌보고 신사참배를 거부하다가, 감옥에 갇혀 2년여 고초를 겪다가 병사하고 만다. 그 뒤 백 목사와 선자의 자녀들은 일본에서의 조선인에 대한 차별을 견디기 힘들어 하면서 조선인이 제약 없이 많은 돈을 벌 수 있는 파친코 사업을 그들의 생계와 삶의 수단으로 삼게 되는 것이 이 드라마의 내용이다.

이 드라마가 다른 드라마와 달랐던 점은 드라마에서 나왔던 목사들과 기독교인들이 하나같이 애국자, 독립운동가, 섬기는 자로 묘사되었다는 것이다. “파친코”의 작가 이민진씨는 자신의 할아버지를 생각하면서 이 소설을 썼다고 한다. 이민진씨의 할아버지는 지금의 장로회 신학대학교의 전신인 평양신학교를 나와 부산에서 고아들을 돌보았던 목사였다. 해방 후에는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서 부모를 잃고 한국으로 돌아온 아이들을 돌보며 가르쳤다. 이민진 작가는 하버드 대학에서 강연을 통해 일제 강점기와 해방 직후의 선교사와 목회자들, 그리고 기독교인들의 헌신적인 사역을 이야기하면서 기독교가 인간의 자유와 존엄의 가치를 향상시키는데 너무나 큰 기여를 했다고 강조해서 전하였다.

그렇다. 일제 강점기 시절, 우리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섬기고 헌신한 수많은 기독교인들을 알고 있다. 안창호, 유관순, 조만식, 이회영, 이승훈, 남궁억 등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헌신하고 애썼던 것을 우리는 다 알고 있다. 그들은 모두 삶의 현장에서 자신들의 삶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산제물로 드렸던 예배자들이었다.

일제 강점기 시절, 기독교 인구는 2%도 채 되지 않는 1.8% 정도였고, 해방 당시에는 5% 정도의 수준이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미친 영향력은 엄청났다. 그들 모두가 예수님을 본받아 나라와 민족을 진실로 사랑하고 예수님과 같은 사랑으로 다른 이들을 섬기며 살아갔다. 그들의 삶 전부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렸던 것이다. 그랬기에 기독교 인구가 전체 인구의 5%도 되지 않았지만, 기독교는 우리 민족의 희망이요, 등불이 될 수 있었다. 그래서 김구 선생은 “경찰서 10개의 세우는 것보다 교회 하나를 세우는 것이

더 낫다”는 말까지 했던 것이다. 한국의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만큼 믿음과 삶, 예배와 삶이 일치하는 선교적 삶을 살았고, 그 삶 자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제물이 되었던 것이다.

그리고 그들의 그런 거룩한 산 제사는 한국 교회를 온 백성들로부터 신뢰받는 공동체가 되게 하였던 것이다.

이것이 바로 오늘 코로나 이후에 무너진 한국 교회의 예배가 나아가야 할 로드 맵이 아닐까?

5.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자(예배를 드리자)

한국 교회와 성도들이 이렇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를 드릴 때, 즉 우리가 삶을 통한 합당한 예배를 드릴 때, 지금 점점 그 맛을 잃어버려 가고 있는 한국 교회가 새롭게 변하고, 이 민족과 사회가 다시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한번 생각해보자. 오늘 한국 국민의 20% 이상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다. 그런데 오늘 한국사회는 여전히 많은 부정과 부패가 있다. 우리 사회는 여전히 힘과 권력이 있는 자들의 부정과 부패로 인한 냄새가 진동을 하고 있다.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고 말은 하지만, 어쩌면 그렇게 도 예나 지금이나 장관 후보자들 가운데는 청문회 때 하나 같이 먼지가 펄펄 날리는지 모르겠다.

그런데 문제는 그 많은 후보자들 가운데 통계적으로 보면 분명히 다섯 명 중에 최소한 한 명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일 것이다. 그리고 온 국민들 가운데도 통계적으로 20%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는데, 어떻게 이렇게 여전히 오늘 우리 사회에 부정과 부패의 먼지가 날리고 있는 것일까? 만일 다섯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야”라고 부정과 부패를 거절한다면, 대장동 사건과 같은 냄새나는 사건이 일어날 수가 없을 것이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 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행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면, 즉 우리가 우리의 구체적 삶의 영역 속에서 일하고 섬기는 일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행위라면, 우리는 가정에서, 직장에서, 관공서에서, 학교에서 어떻게 살고 행동해야 하겠는가? 예배의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시 29:2). 그리고 바울을 통해 주신 “그러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고전 10:31)는 주님의 말씀에 의하면 우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즉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세로 해야 한다. 우리가 직장에서 일을 할 때에도, 학교에서 가르치거나 공부를 할 때에도, 시장에서 장사를 할 때에도, 가정에서 식구들을 위하여 가사의 일을 할 때에도, 연구실에서 연구를 하고, 건설의 현장에서 일을 할 때에도, 우리는 그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한다” 즉 “나는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의식을 가지고 감당해야 한다”는 말이다.¹⁾

예를 들어 학생은 공부하는 것이 그의 일(job)이다. 그러므로 학생은 공부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한다. 그렇다면 학생에게는 성실하게 공부를 하는 것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학생이 공부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예배하는 행위라고 생각한다면 시험 시간에 컨닝을 하겠는가? 할 수 없다.

1) 이와 관련하여 매우 유명한 라틴어 문구가 있는데, 그것은 “라보라레 에스트 오라레, 오라레 에스트 라보라레(Laborare est orare, orare est laborare)라는 문구다. 이는 “일하는 것이 곧 기도(예배)하는 것이고, 기도(예배)하는 것이 곧 일하는 것”이라는 뜻이다. 이 문구를 깊이 묵상해보라. 그리고 이런 질문을 해보라. “나는 나의 일을 예배로 보고 있는가?” 우리가 하는 일이 예배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다면 일을 대하는 우리의 감정과 태도가 어떻게 달라지겠는가?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기업의 상을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골 3:23-24)

내가 만일 구청이나 정부 기관에서 일하는 공무원 또는 지자체의 장이라면, 지역주민들을 잘 섬김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한다. 그렇다면 그는 어떻게 일해야 할까? 돈 봉투 로비를 받고 허가해 주면 안 되는 일에 허가를 주는 일을 하겠는가? 아니다. 절대로 그런 일을 할 수가 없다.

내가 만일 학교의 선생이라면, 그래서 학생들을 사랑으로 돌보고, 아이들을 가르치는 것을 예배하는 마음으로 감당한다면, 부모가 촛지를 가져오는 아이는 한 번 더 돌봐주고, 촛지를 가져오지 않는 아이는 내버려 두는 그런 일은 절대로 하지 않을 것이다.

내가 만일 사업을 하는 사람이라면, 그 사업을 통해서 직원들의 생활을 돕고 섬김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자 한다면, 세금을 탈루하고 부정한 방법으로 돈을 벌려고 하겠는가? 아니다.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예배하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엡 6:6-7)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일들을 통해 섬김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자 한다면(예배), 과연 우리는 지금 행동하고 있는 대로 계속 하겠는가? 이 질문은 모든 한국 교회의 그리스도인들이 각자에게 계속해서 던져야 할 질문이다.

6. 나가는 말: 거룩한 산 제사를 드리자

오늘 우리는 어떠한 마음과 자세로 하나님께 나아가 예배드리고 있는가? 진정 우리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깨닫고 영과 진리로 감사하며 예배드리고 있는가? 그리고 교회 안에서의 예배가 우리의 구체적인 삶속에서도 이어지고 있는가? 이 예배 이후의 예배, 우리의 삶을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는 합당한 예배에 실패하면 우리는 결국 모든 것에 실패하는 것과 같다. 예배에 실패하면 우리는 모든 것에 실패하는 것이라는 말이다.

그러므로 진정 바라기는 한국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응답하여 예배당에 나와 드리는 우리의 매주일의 예배를 통해 매번 하나님과의 만남을 경험하게 되기를 소망한다. 그리고 예배당 안에서의 예배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를 통해 힘과 능력을 공급받아 세상 속에서 이웃을 사랑하고, 나누고, 섬김으로, 즉 선교적 삶으로 거룩한 산 제사를 드림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참된 예배자들이 되기를 기원한다. 이것이 바로 코로나 이후에 무너져 내린 한국 교회의 다윗의 장막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예배의 로드맵이 될 것이다.



적용과 실천1

전통적인 교회를 어떻게 선교적교회로 만드는가?

안광복 목사(청주상당교회)

What? 선교적교회(Missional Church)란?

- 레슬리 뉴비긴(Lesslie Newbigin)의 교회와 선교에 대한 질문에서 출발
- 영국(GOC), 미국(GOCN)의 선교학자들을 통해 1990년 후반 선교적 교회론으로 자리매김

> 선교적 교회론의 중심개념

- 선교적 교회론은 교회가 세상 속으로 파송 받은 존재로서 이해
 - 세상 속에서 교회의 역할을 강조
 - 선교는 교회의 활동이 아니라 하나님의 활동으로 인식
 - 교회의 본질이 선교임을 강조
- “교회가 선교를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선교의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 선교하시는 것” -로완 윌리엄스 (Rowan Williams), 캔터베리 대주교

> 선교적 교회론의 특징

1. 선교적교회는 하나님 나라를 지향하고 세상에서 일하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선교에 참여하면서 공교회로서 지역교회의 선교적 정체성과 역할을 중요시해야 한다.
2. 선교적교회는 활동(Doing)이전에 그리스도인의 존재(Being)와 정체성 자체가 세상을 향하여 파송 받았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
3. 선교적교회는 세상과의 신뢰를 회복하는 운동이며 신앙과 선교의 진정성을 회복하고 교회와 세상 사이에 선교적 인프라를 건설하는 운동이다.
4. 선교적교회는 지역사회와 지역주민들과 일상생활 속에서 코이노니아를 실천하며 그것을 토대로 폭넓은 차원의 선교운동을 전개하는 활동이다.
5. 선교적교회는 해외선교로 선교를 한정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선교 패러다임을 넘어서 전 세계를 선교현장으로 간주하되 특별히 지역을 선교현장으로 인정하고 출발하는 운동이다.
6. 선교적교회는 목회자 중심의 리더십이 아닌 평신도들의 리더십을 최대한 발휘하는 운동이다.
7. 선교적교회는 교회를 중심으로 하는 선교만이 아니라 삶의 현장을 선교현장으로 간주하는 선교운동이다.
8. 선교적교회는 모이는 교회와 흩어지는 교회의 균형잡힌 이해와 실천을 추구하는 운동이다.
9. 선교적교회는 개교회 중심을 넘어서 협력과 연합을 추구한다.
10. 선교적교회는 지역을 선교현장으로 인식하고 교회를 통해 마을을 발전시키는 하나님 나라의 지역화 운동이다.

“하나님의 선교, 성부께서 성자를 보내시고, 성자가 다시 성령을 보내시고, 성부 성자 성령이 교회를 세상으로 보내시는 것” -데이빗 보쉬(David Bosch)

Why? 선교적교회가 필요한 이유?

“출루테카(Choluteca) 다리의 교훈”

How? 전통적교회에서 선교적교회로의 전환(상당교회 이야기)

› Thinking(전략과 계획)

- 선교적교회 DNA 심기(교회표어와 목회철학)
- 리더십의 인식변환
- 50주년 사업위원회 & 미래세대 위원회

› Changing(변화와 훈련)

- 예배의 변화(모이는 교회)
- 다양한 영적프로그램 개발 및 훈련
- 리모델링 및 새로운 하드웨어의 장착

› Doing(실행과 섬김)

- 아웃리치 강조(흩어지는 교회)
- 일터 선교사
- 1일 1선 캠페인

› Networking(연합과 나눔)

- 영적플랫폼과 네트워크 구축
- 월드휴먼 브릿지
- 이주민 선교사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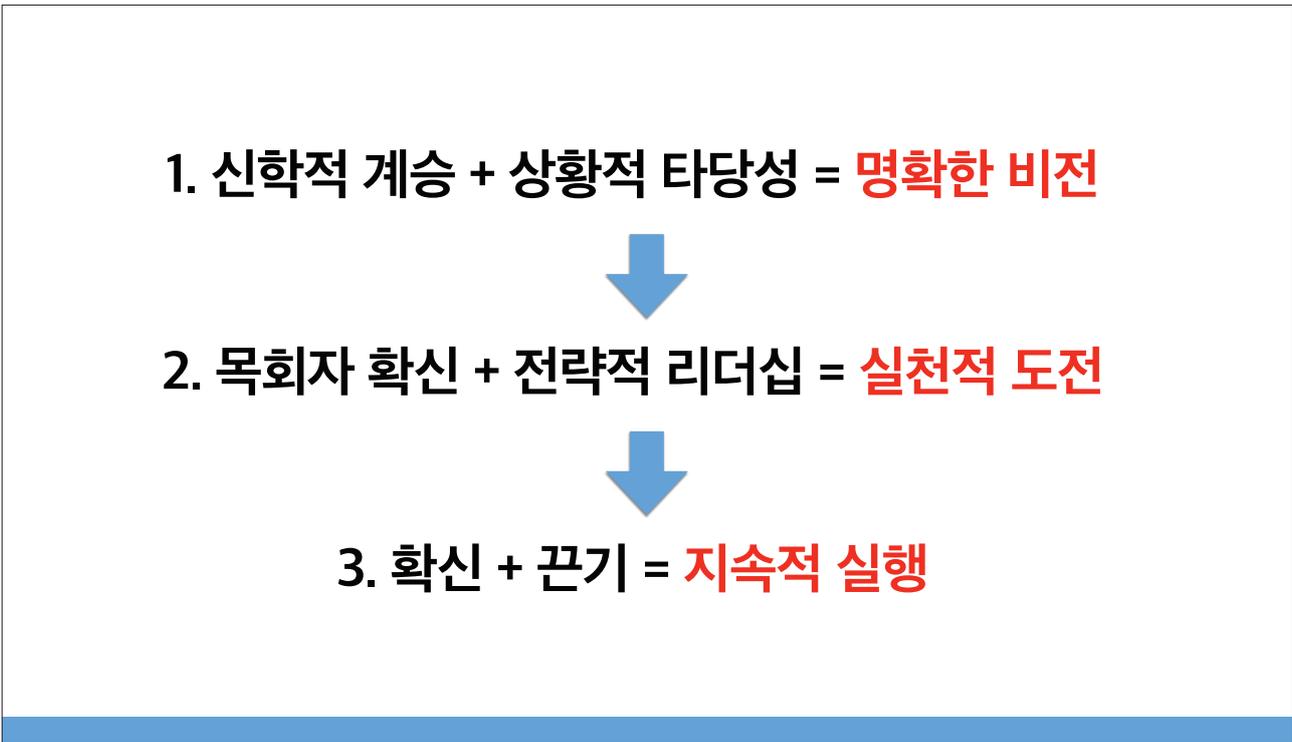
When?/Who? 지금...우리가 해야할 일은?

- 골든타임을 지나 에어포켓은 아닐까?
- 현재 우리교회의 메인엔진은?

적용과 실천 1

선교적 교회란 무엇인가?

정명호 목사(혜성교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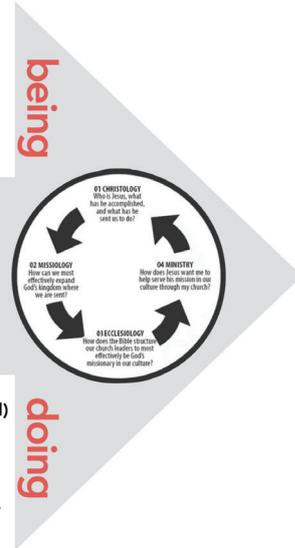


“선교지향적 교회”와 “선교적 교회”의 개념 이해

선교적 교회란,
 “하나님 나라의 실현”과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라는
 하나님 나라의 선교적 정체성(being)에서 나오는
 사역(doing)의 방향성(direction)을 가진 교회이다!



말씀에 적합하게 **성경적으로**
 대상과 문화에 적합하게 **토착적으로**
 예수님을 따라 **성육신적 태도로**
 복음을 위해 **내부자들이 일어나도록**



하나님 나라

‘선교지향적’이 아니라 ‘선교적’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이유? (Not missions oriented, but Missional)

Not, 교회의 많은 사역들(missions - 예배, 교제, 훈련, 사역, 전도, 해외선교, 구제 등) 가운데 “하나의 사역으로서의 선교”를 집중적으로 추구하는 교회가 아니라,

But, 교회의 본질적 가치가 하나님 나라를 실현하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한 하나님 나라의 선교를 위한 부름에 있음을 강조하기 위해.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 나라의 이미지

이미지	창세기 2:8~14	시편 1:1~3; 23:1~3	에스겔 47:1~12	요한계시록 22:1~2
강	에덴에서 흘러나오는 강	살만한 물, 시내	성전 문지방에서 흘러나오는 물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오는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강
나무	생명나무 2	시냇가에 심은 나무	각종 먹을 과실나무	생명나무
열매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열매	철을 따라 맺는 열매	먹을 만한 열매가 끊이지 않음	달마다 다른 열매 맺음
잎	잎	마르지 않는 잎사귀	달마다 약재료가 되는 새 잎을 맺음, 잎이 사들지 않음	만국을 치료하는 잎사귀

영혼을
소생시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선교, 교회의 선교의 상관관계



선교적 교회의 모델은 사도행전적 교회

교회의 속성	교회의 역할	교회의 사역					
		하나님의 존재를 드러내도록	말투리아 케리그마	전도	복음전도 Evangelism 사회책임 Responsibility	예배	공동체와 개인의 예배 Congregational & Individual 의식과 삶의 예배 Ritual & Life
사도성 (선포)	선지자	하나님의 존재를 드러내도록	말투리아 케리그마	전도	복음전도 Evangelism 사회책임 Responsibility		
보편성 (화목/샬롬)	치유자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도록	코이노니아	교제	나눔 Share 돌봄 Serve		
거룩성 (성결)	제사장	하나님의 의지를 드러내도록	디다케	훈련	제자삼음 Disciple Making 은전케 함 Disciple Perfecting		
통일성 (연합)	왕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도록	디아코니아	사역	은사발견 Detection 은사배치 Disposition		

● 사도행전적 모델

- **하나님 나라의 확장** - 사역(Doing) - 원심적 - 외연적 - 양 - 구속신학 - 행 11:19~30; 13:1~3 - 안디옥교회 모델
- **하나님 나라의 실현** - 존재(Being) - 구심적 - 내연적 - 질 - 창조신학 - 행 2:43~47 - 예루살렘교회 모델

선교적 교회의 목회적 실천은 선교적 삶을 살아가는 성도를 세워가는 것

목적	자원	자세	대상	방법	목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성령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함으로	인간 발달	다음세대 를	발달단계에 따른 교육 으로	하나님의 자녀 로
			신앙 발달	불신자 를	전도 하여	신 자 로
				신 자 를	양육 하여	제 자 로
				제 자 를	훈련 하여	사역자 로
				사역자 를	자원 하여	천국상급 받는 자 로
세워 간다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받으시게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각 사람을	전파하여 권하고 가르침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베드로전서 4:11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에베소서 4:11-12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골로새서 1:28:29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발제 2

복음의 포괄성

정갑신 목사(예수향남교회)

유일성과 포괄성과 확장성은 한 실체 안에서 공존하는 속성들이다. 그렇다면, 유일한 그것은(유일성) 삶과 역사와 만물의 모든 것을 포괄해야 하고(포괄성), 동시에 그 모든 것들을 적극적으로 향하면서 본질적으로 선하게 변화시키는 것이어야 한다(확장성).

먼저, 유일한 그것이 삶과 역사의 모든 것을 포괄한다는 것의 의미가 아닌 것은, 우리가 알듯이... 유일한 그것이 삶과 역사와 만물에 다 담겨있다는 생각이다(범신론). 오히려 우리는 삶과 역사와 만물이 그 유일한 것을 지향하고 제대로 반영할 때만, 비로소 ‘자기 자신’이 될 수 있다고 인식한다. 삶과 역사의 모든 요소들의 존재 이유와 목적, 그 유일한 것을 통해서만 발견되고 제대로 추구될 수 있다는 거다 - 그리하여 <복음의 포괄성>과 관련, 우리의 과제는, 삶과 역사와 만물의 존재 이유와 목적을 복음의 빛 아래서 비춰보고 성취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여정에 참여하는 거다. 곧 복음의 빛으로 만물을 다시 향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선교를 발견하고, 그것에 우리를 지혜롭게 내어 드리는 거다. 요약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선교, 혹은 온 세계를 향한 하나님의 목양을 발견하고 거기에 기쁘게 참여하도록, 각 지역교회를 기반으로 부름받았다. 그렇다면, <복음의 포괄성>을 언급하려는 우리들의 목회적 지평은... 이미 이루신 복음의 사건을 통해, 우리를 있게 하신 그 곳에서, 현재도 이루고 계시는 하나님의 온 세계적 목양을 발견하는 것이다. 더 나아가, 우리 자신이 그 하나님의 사건과 이야기의 일부가 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우리는 복음을 누구에게보다 먼저 자신에게 전할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복음이 우리를 둘러싼 모든 환경들에 어떻게 연결되는지, 지속적으로 질문하고 대화하고 행동하도록 이끌림 받아야(적극적 수동성) 한다.

복음의 포괄성은, 팀 켈리의 ‘센터처치’라는 개념 안에서 잘 포착된다. 역사적 배경에 따라, 교단신학적 특성에 따라, 무엇을 덜 중요하게 혹은 더 중요하게, 과대하게 혹은 과소하게 강조하는 신학적 지향성이 있지만, 모든 신학들이 지향하고 있을 그리스도 중심성 안에서, 복음의 포괄성을 발견할 수 있다는 거다. 그에 따라 개인의 자유를 중시하고 성령의 은혜에 몰두하고, 말씀을 통한 변화를 강조하고 사회적 책임에 막대한 무게를 실는 등의 강조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리스도 중심성>이라는 구심력을 통해 얼마든, 복음적 침례교, 복음적 감리교, 복음적 성경교, 복음적 순복음, 복음적 장로교, 복음적 성공회, 복음적 구세군... 등을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런 발견을 위한 노력이, 복음의 포괄성을 위한 목회적 접근에 필요한 태도다. 비슷한 이유에서, 한 지역 교회가 복음의 포괄성을 추구한다면, 지역에 존재하는 교회들과 그리스도 중심적 연대를 추구할 뿐 아니라 복음적 가정, 복음적 학교, 복음적 교회, 복음적 동사무소, 복음적 문화센터, 복음적 지역문화...등의 그림이 어떠해야 하겠는지... 반복적으로 질문하며 답하려는, 지속적인 대화를 포기하지 말아야 한다. 그리고 발견되는 대답들에 지혜롭고 과감하게 뛰어 들 수 있어야 한다.

그런데 이런 방향으로 <복음적 포괄성>을 지향하는 하나님의 목양이 펼쳐지려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비전과 계획과 구체적인 실행이 아니라, 무엇보다 ‘하나님으로부터의 들음’이어야 한다. 세계를 향한 ‘하나님의 목양’이라는 엄연한 진실을 확고히 지키면서, 우리 자신의 기질과 야심과 속된 분위기에 휘둘리기 쉬운... ‘이것이

야말로 하나님의 목양이라'는 정의를 내려놓아야 한다. 포도주가 떨어진 것과 자신은 무관하다 하신 후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고, 초막절 예루살렘행을 거절했다가 슬며시 홀로 올라가신 '가변적으로 보이는' 뜻에, 쉬지 않고 귀 기울여야 한다. '분별하게 하시고 참여하게 하시는 들음'과 들음에 대한 과감한 대답이, 결국 복음의 포괄성을 이루는 우리의 합당한 태도라고 할 수 있겠다.

조심스럽게, 한 지역교회의 이야기로 복음의 포괄성을 향한 목회이야기를 나누면 좋을 것 같다. 내 경우에는, 마음에서 교회개혁이 결정되었을 때... 처음으로 받은 기도응답은 한국 교회를 걱정하지 말라...는 선명하고 엉뚱한 마음의 울림이었다. 나로서는 순식간에... '주제 넘게 굴지 말고, 마을과 동네의 교회가 되라'는 뜻으로 해석되었지만, 어느 새 나는 한국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복음운동 이런 방식으로 참여하고 있는 중이다. 이 둘 사이에 어떤 연결점들이 생긴 것인지, 하나님이 펼쳐가고 계시는 '온 세계적 목양'에, 하나님은 한 지역교회를 어떻게 참여시키시는지...를 (전적으로 내 입장에서) 간략하게 나누어 보면 좋겠다.

복음의 포괄성은 이미 복음의 근본에, 영혼구원과 사회적 책임이 포괄된다는 말일 것이다. 한 존재가 하나님 형상의 회복을 통해, 자기자신 및 가족과 이웃과 세상과의 관계를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담긴 사랑의 순종이라는 방식으로 회복하는 여정이, 이미 복음 안에 포괄된다는 확신이다. 물론, 훨씬 더 넓게 확장되어 세상의 구조와 체제와 모든 가치 추구에 하나님의 옳으심이 펼쳐지게 하는 사역까지를 포괄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다. 하지만, 이 막대한 과제를 펼치고 시행하는 것은 우리 능력 밖의 일이다. 그리하여 이 시간에 나는 다만, 복음이 한 목회자와 한 지역교회에서 어떤 방식으로 연결되고 결합될 수 있는가에 관해 잠시 생각해 보려 한다. 특정한 신학적 목회적 확신 대신, 하나님이 나와 우리를 통해 이루고 계시는 복음적 표현들을 '들음'을 통해 발견하고, '대답'을 통해 참여하는 여정에서, 하나님에 의해 복음의 포괄성이 친히 이루어진다는 것을 말해보려는 거다.

1. 들음

하나님은 거기(우리를 있게 하신 자리) 계시며 말씀하시는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 말씀과 환경과 상황과 사람들을 통해 항상 말을 걸어오신다. 우리의 행복한 과제는 우리의 상황을 하나님의 말씀과 제대로 연결하는 일에 점차 유능해지는 것이다 - 예) 행1장 사도보필선거 / 행4장 당국자들에게서 풀려난 후 교회의 기도 - 현실과 말씀은 다르므로, 현실과 말씀을 연결하려는 분투 속에서 기도의 내용이 나오고, 기도 중 말씀에 의한 현실의 해석이 가능해 지고, 유진 피터슨의 말처럼 '깊은 기도와 더불어 긴 순종이 가능'해진다. 그리고 순종과 더불어 우리는 '복음이 펼쳐가는 자리, 복음의 삶의 전 영역으로 향하면서, 하나님의 희년의 꿈을 실현하는 동안, 모든 것을 제자리로 돌아가게 하는 영광'을 볼수 있다 - 행 4:31-35.

2009년 8월 경기도 화성시 향남읍에 교회를 개척할 때...

성공적인 목회 보다는, 하나님에 의한 목회, 하나님의 목양에 참여하기...로 방향을...

지역조사, 테니스 클럽 가입, 다섯 개 정도의 식당 정해서 반복 이용하며 교제...

ODC 를 향한 비전에 영감을 받아 - 향남읍에서 비전클럽 구성을 위해 노력(현재는 센터치치 향남으로, 다른 방향으로 이어짐)

들음의 문화형성 - 교역자 대화 공동체

- 비전기도회

- 당회와 목회기획팀 모임의 특성

2. 들음 후, 대답 전... 자신에게 가르쳐야 할 신앙적 기초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모든 것을 바꾼다. 변화의 능력은 복음에 있다. 그러므로 복음 전하는 자의 능력은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먼저 자신에게, 그리고 교회와 세상에...

실수해도 된다. 하나님은 아신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다 실수한 것도 아신다 - 나쁜 일이 아니면, 선한 일이 분명하면, 재정보다 하나님의 마음에 물으라. 묻고 과감하게 순종하라.

하나님은 이미 다 이루셨고, 이미 다 이루신 역사 위에서... 아시고 보시고 또 이루신다 -내가 무엇을 새롭게 이루려 할 필요가 없을 만큼 하나님은 이미 완전하게 이루셨다는 사실을 잊지 않고 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 그 위에서 또 이루고 계시는 것에 참여할 뿐이라는 사실을 발견하는 관점을 잃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예> 주일 설교 준비의 대 전제...

하나님은 말을 걸어 오시지만, 나는 못 알아 들을 수 있다 - 엘리야...

알아 들으려면... 내 전제를 내려 놓아야 한다 - 그림을 그리되 부숴져도 되는 그림으로...

말아야 한다 - 연약함에 빠져 욕망에 지고 분노에 삼켜지고... 균형을 잃게 되면... 하나님의 사랑이 계속 나에게 쏟아부어지고 있어도, 나는 그 사랑에 대하여 매우 소극적으로만 받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복음에 참여하는 여정이 온 교회와 함께 자연스럽게 공유되면서, 하나님께서 친히 이루시는 복음의 포괄적 표현들에 참여하는 은혜를 누리게 된다. 내가 이루지 않고 하나님이 이루시는 사건이고, 우리는 거기에 참여할 뿐이라는 인식이 형성된다 - 비로소 거기에서 ‘자유’와 ‘행복한 책임감’이 형성된다.

3. 대답

개척을 당하다

개척 4주 차 선교사 파송

1주년 태국인 공동체

EIF

청소년 사역(길거리 농구대회, 드림청, 이주민 자녀사역) - 이주민 월드컵

분립개척의 비전으로 이끌리다

분립개척 - A Type - 예수평화, 비봉, 봉담

B Type - 예수호매실

C Type - 예수 정안

D Type - 빌리버스 반석

E Type - 예수동탄

3주년 대안학교

6주년 CTCK 참여 시작(TGCK, 복음과 도시로 자연스럽게 연결) / NIBC

7주년 은혜농아인공동체

10주년 새터민 공동체

11주년 장애인공동체(베대)...

복음의 유일성과 포괄성과 확장성은 우리의 선택과 행동을 요구하는 ‘균형’의 이야기가 아니라 ‘복음 그 자신’의 이야기다. 복음의 본질적인 속성의 이야기다. 우리가 복음의 포괄성의 균형을 잡으려 하면 우리는 어느 새 이도 저도 아닌 애매모호한, 혹은 알팍한... ‘자신의 그림’에 갇히게 된다. 우리는 복음에 자신을 던져야 한다. 우리는 복음을 소유할 수 없다. 우리가 복음을 소유하려하면 어느새 복음의 결과에 집착하거나, 혹은 복음의 포괄성을 잃어버리고 내 기질과 성향과 필요에 해당하는 일부분을 붙들고 집착하게 된다. 그리하여 우리는 복음이 우리를 소유하도록 자신을 내어드려야 한다 - 날마다 자신에게 복음을 가르쳐야 하고, 복음에 자신을 적나라하게 비추어 보아야 하고, 이렇게 함께 모여 나의 복음과 너의 복음을 솔직하게 나누면서 서로 연결지어 보아야 한다. 곧, 다양한 방식으로 들을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어디선가 복음이 이루어가는 중인 다양한 사건들에 대하여,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운동에 대하여 경청해야 한다. 듣는 동안 이끄시는 길로 과감하게 달릴 수 있어야 한다. 결국 복음의 포괄성은, 오직 복음을 쫓아 순전히 달리는 동안, 내가 추구하지 않았던 방식으로, 어느새 성취되고 있을... 하나님의 이야기다.



패널토의2

복음의 포괄성에 관한 패널토의

진행 : 길성운 목사(성복중앙교회)
패널 : 주승중 이인호 안광복 정갑신



복음의 확장성



적용과 실천2

한국 교회 연합기도운동을 꿈꾼다

이인호 목사(로잔 중보기도네트워크 지도, 더사랑의교회)

도입, 로잔대회, 한국 교회 위기와 선물

한국 교회의 위기속에서 로잔 50주년대회는 하나님께서 한국 교회의 위기를 헤쳐갈 소중한 기회, 선물이라는 생각에 많은 이들이 공감한다. 팬데믹 기간 동안 많은 사회적 지탄의 대상이 되면서 우리는 뼈저린 무력감을 느꼈다. 그리고 우리 안에 다신 이런 수모를 겪어선 안 된다는 자성이 있었다.

그러나 현실은 물론 미래는 더욱 불투명하다. 미래목회전략연구소의 최윤식박사의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한국 교회 앞으로 30-40년뒤(2055-2060년)에는 한국 교회 출석성도수가 250만명 이하(6%대)가 될 것으로 추정한다. 대부분의 성도는 노인이며, 주일학교는 30-40만명대로 주저 않을 것이라고 예측한다. 영성은 추락하고 대한민국은 이단과 무신론의 나라가 될 것이라고 한다. 2050년이 되면 현금하는 주세대인 25-54세가 60%가 줄어들고, 은퇴자그룹은 22%가 늘어서 현금수입은 평균 현재의 3/1수준으로 줄어들 것이라고 한다. <한국 교회트렌드 2024>에서도 교회는 본격적인 수축시대를 맞이하고 있다고 한다. 전세계적으로 르네상스이후 500년간 팽창시대였으나 지금은 인구감소, 공급과잉, 높은 부채등으로 수축사회로 접어들었다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속에서 교회는 사회의 수축보다 더 빠르게 수축시대로 접어들고 있다는 것이다. 그 외에도 AI문제, 기후변화, 저출산, 낙태, 동성애 등 교회의 위기를 가속시키는 문제는 셀 수 없이 많다.

그런 상황에서 그 어떤 돌파구도 찾기 어렵던 한국 교회의 선물처럼 찾아온 것이 로잔대회이다. 로잔대회는 그 자체로서 우리나라만이 아니라, 전세계적인 기독교위기와 변화속에서 매우 의미있고 절실한 선교대회이다. 이것이 그저 스쳐지나가지 않도록, 송도에서 열리는 그 대회의 유산을 누구보다도 우리의 것으로 삼아서 로잔정신으로 한국 교회가 새롭게 일어날 기회를 삼아야한다. 한국 교회의 변화와 갱신, 그래서 다시 한번 부흥의 기회가 되길 절실히 소망한다.

그런데 진정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이고 기회라고 믿는다면 우리의 반응의 첫번째는 기도여야할 것이다. 하나님은 약속하셨어도 그것을 이루어주길 기도하라고 하신다.(겔36:37) 하나님의 약속은 기도를 요청한다. 로잔대회가 한국 교회를 향한 선물일지라도 우리는 그것이 진정 선물이 되고 한국 교회가 다시 일어나는 기회가 되길 간절히 기도해야한다.

성령을 약속을 기다리며 기도했던 초대교회의 간절한 기도속에서 우리는 소중한 연합기도운동의 모범을 배운다.

‘행1: 13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매, 마태와 밋 알패오의 아들 야고보, 셀롯인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14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1. 연합의 가치

그들은 연합하여 기도했다. 경쟁하던 자들이 연합하여 기도한다. 그들의 숫자가 120명이라는 것은 12사도를 기초로 하는 하나님의 백성, 곧 교회의 시작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하나님의 성령의 약속은 다른 곳이 아니라 바

로 주의 백성들을 향한 것이다. 그래서 그들은 가롯유다의 빠진 자리를 메우며 12사도를 중심으로 한 교회의 기초를 새롭게 한다. 결국 그들의 연합은 곧 온교회의 연합이고 교회가 연합하여 기도하는 그 자리에 오순절성령은 오신 것이다. 교회가 함께 연합하여 기도할 때 약속의 성령이 오시고 거듭거듭 충만한 능력을 부어주시고 옥문이 열리는 기적들이 일어나 그 시대를 이긴다.

여기서 우리는 연합의 소중한 가치를 본다. 교회가 연합해서 기도할 때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이다. 안타깝게도 WCC를 비롯한 진보단체나 교단에서 연합운동을 주도한다. 보수교단일수록 분열이 심한 것이 사실이다. 진리를 수호한다는 측면에서 이해되는 면도 있지만, 우리는 연합이란 성숙함을 버렸다. 바울은 당시에 보수적인 유대 그리스도인들과 이방 그리스도인들이 서로를 향한 멸시와 판단을 버리고 뜻을 같이 하여 한마음과 한입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할 것을 촉구한다. 그것이 구약의 예언의 실현이요 복음전파의 궁극적인 목적이라는 것이다. (롬15:5-13)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은 이삭의 출생이 아니라, 그를 통해서 한 민족을 이루는 것이다. 성부의 선택의 목적은 아들들에 있고, 성부의 구속의 목적은 기업(교회)에 있으며 성령의 인치심의 목적은 그 기업의 보증에 있다. (엡1:3-14) 예수님은 개인의 구주일 뿐 아니라, 교회의 머리요 만물의 머리이시다. 그리스도는 만물을 통일하실 것이고 회복하실 것이다. 이것이 복음의 궁극적인 목적이다.

그러므로 복음안에는 개인주의나 개교회주의가 설자리가 없다. 우리가 지향해야 할 궁극적인 성숙은 연합과 일치를 향한다. 하나의 교회가 영향력 있게 어떤 일을 하는 것보다 교회가 연합하여 함께 하는 일이 더 성숙한 행동이다.

하나님이 우리의 연합을 기뻐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연합기도운동을 통해서 경험했다.

작년 714대성회에는 450여개교회에서 연인원 1만명이상의 사람들이 참석했다. 그 집회에서 우리는 특별한 성령의 임재하심을 느꼈다. 한국 교회를 향한 기도,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기도가 너무나 자연스럽게 불타오르는 것을 경험했다. 그 이후에 벌어진 지역별 연합 기도회에서도 동일한 은혜를 경험한다. 이웃교회 성도들과 한 자리에 앉아서 찬양하고 기도할 때, 한국 교회와 지역사회의 부흥을 위한 기도의 열망이 얼마나 타올랐는지 모른다. 이것은 우리 주님의 소원이 어디에 있는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연합해서 기도하는 것을 얼마나 기뻐하시는가를 깨닫게 된다. 그리스도의 부르심은 내가 아니라 교회이고, 우리교회가 아니라 한국 교회요, 온세계교회이다. 이것이 성숙의 방향이다. 성령의 부어짐은 어떤 개인의 열심이나 개교회의 욕심을 채우는 것이 아니다. 한국 교회가 살아나려면 경쟁에서 연합으로 분열에서 연합으로 그래서 더 깊은 성숙으로 나아가야 한다. 우리의 그릇이 성숙할수록 성령님은 우리에게 더 깊이 더 충만히 임재하시고 우리 가운데 새로운 갱신과 부흥의 역사를 이루어주실 것이다.

2. 연합의 요소

(1) 겸손

이러한 연합을 위해서 필요한 것은 겸손이다. 사도와 성도들이 남자와 여자가 주의 모친 및 가족과 다른 이들이 다 동등하게 주님앞에 무릎꿇는다. 더 이상의 경쟁도, 차별도 없다. 물론 마땅한 죄인의 본문이지만, 사도들의 겸손 주의 모친 마리아의 겸손을 본다. 그 이유는 그들이 모두 십자가앞에서 깨어졌고 넘어지고 실패하였기 때

문이다. 교만이 설자리가 없다.

지금 한국 교회는 어느 교회하나 잘된다고 살아날 그런 조건이 아니다. 가라앉는 타이타닉호에 모두 올라타 있는 신세이다. 함께 망하게 생긴 이 때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모두가 겸손하게 하나되어 무릎 꿇는 것이다. 함께 기도할 줄 아는 것이 겸손이다. 로잔의 정신중의 하나가 겸손이다.(HIS Humility, Integrity, Simplicity) 대형 교회는 홀로 수천 수만명이 모여 기도할 수 있다. 하지만 하나님은 대형교회가 중소형교회와 나란히 앉아서 함께 기도하는 겸손을 원하신다. 중소형교회 역시 아무런 열등감과 편견없이 받아들이고 함께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는 겸손이 필요하다. 복음과도시를 통해 큰교회 목사님들과 작은 교회 목사님들의 진심 어린 교제 가운데서 연합을 이루는 것을 보았다. 어쩌면 새로운 젊은 리더십들에게 이 연합이 결코 불가능한 꿈이 아닐 것이란 희망을 걸어본다. 부목사 시절 하늘 같은 고 옥한흠목사님이 우리 부교역자들앞에 무릎꿇고 기도해달라고 하신 일이 생각난다. 그리고 언제나 화요일마다 우리들앞에서 하나님앞에 살려달라고 부르짖어서 기도하시던 모습이 생각난다. 담임목사가 되고서야 그것이 얼마나 겸손한 모습이었는가를 발견한다. 겸손이 우리 죄인된 인간의 변치 않아야 할 본래의 모습이다. 배가 가라앉고 다 망하게 생겼는데 무슨 경쟁 무슨 체면, 무슨 권위란 말인가. 개인, 혹은 개교회의 영향력의 확장이 아니라 겸손함으로 연합하여 주의 나라를 추구할 때이다. 함께 큰 숲을 이루는 것이 더 성숙한 것이다.

(2) 복음과 신학적 비전

우리를 연합하게 하는 더 중요한 요소는 복음이다. 경쟁과 다툼을 일삼던 제자들로 연합하여 기도하게 하신 분은 주님이시다. 거듭나지 않은 가룟유다만 제 길로, 제 야망대로 갔다. 또한 그들 안에는 같은 주님, 그리고 같은 비전이 불타오른다. 그들은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증인공동체를 꿈꾼다.

이처럼 우리를 하나로 묶는 것은 오직 그리스도이시다. 복음 안에서 우리는 일치와 연합의 가능성을 발견할 수 있다. 또한 교회가 이 땅에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통치를 선포하길 소망하는 그 비전을 통해 우리는 한 뜻을 품게 된다.

팀켈러는 교회가 연합하기 위해서는 신학적 비전이 꼭 필요하다고 말한다. 같은 교단, 같은 시찰이지만 어떤 사역을 진행할 때에 연합이 잘 안된다. 그 이유는 신학적 비전이 같지 않아서 그렇다. 팀켈러는 센터처지에서 우리의 모든 사역형태, 프로그램은 교리적인 확신과 더불어 문화적 맥락에 맞아야 한다고 말한다. 교리, 복음에 기초한 사역이어야 하지만, 동시에 그 시대의 문화적인 상황이 고려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 면에서 그는 센터 처지의 신학적 비전으로 복음-도시-운동을 제시한다. 점점 종교화 되어가는 교회를 향해 종교가 아닌, 비종교도 아닌 복음을 제시한다. 도시화되어가는 시대속에서 도시를 향한 비전을 제시한다. 제도화되어가는 교회를 향해 운동이라는 신학적 비전을 제시한다. 결국 같은 복음 교리를 가지고 있지만, 우리에게는 그 복음으로 이 시대를 바라보는 신학적 비전이란 안경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우리들의 분열은 이 신학적 비전의 부재에 있다. 근본주의가 분열을 거듭하며 비판과 정죄에 몰두하고 젊은 세대에게 외면당하는 이유는 이 신학적 비전의 부재에 있다. 그런 면에서 복음주의는 복음전도는 물론 이 불의한 시대를 향한 사회적 책임, 그리고 더 나아가 환경위기가운데 있는 온 피조계를 향한 회복에 까지 비전을 제시할 줄 안다. 그런 복음주의 운동인 로잔운동은 온교회가 온전한 복음을 온세상에 전한다는 적절한 신학적 비전을 제시한다. 지난 팬데믹 기간에 이런 저런 목소리가 있었

어도 대다수 복음적 교회들이 잠자코 있었던 것은 바로 신학적비전의 부재 때문이었다. 같은 목소리를 내기엔 복음을 표출하는 방식이 너무 이질적이었다. 그러나 로잔대회야말로 대한민국의 건강한 수많은 복음주의적 교회들이 드디어 마음을 합하고 뜻을 합할 수 있는 기회가 된 것이다. 한국 교회가 건강한 신학적 비전을 공유하며 로잔대회 이후에도 함께 연합하여 기도하며 함께 힘을 모을 수 있는 소중한 기회인 것이다.

3. 연합의 유익

연합할 때 우리는 생각보다 많은 일을 할 수 있다. 연합기도모임만이 아니다. 연합전도, 연합도시사역, 연합 가정사역, 연합 구제 사역 등 작은 교회들이 굳이 커지지 않아도 연합을 통해서 할 수 있는 일이 많다. 이웃교회들과 연합하면서 한자리에 앉아서 기도할 때 우리가 더 이상 작지 않다는 것을 경험한다. 연합할 때에 우리는 교회가 커지지 않아도 큰 교회 못지않은 큰 비전을 품게 된다. 왜냐하면 우리가 모두 한 교회 한 백성이기에 그렇다. 그래서 우리는 연합기도모임에서 한국 교회를 품었고 세계열방을 품었다. 우리가 진정 연합할 수만 있다면 우리 각자의 사이즈와 상관없이 우리는 함께 전보다 위대한 일을 해낼 수 있다. 꿈꿀 수 있다. 그렇게 함께 모여 한국 교회의 부흥을 꿈꾸고 세계선교의 성취를 꿈꾸며 기도할 때 주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 주실 것이다. 숲에는 큰 나무 작은 나무가 어우러져 생태계를 이루어 큰 유익을 주듯이, 한국 교회의 큰 교회 작은 교회가 진정으로 연합한다면 우리는 아름다운 생태계를 이루어 서로를 지키고 축복하며 한국사회에 축복이 될 것이다. 그리고 그러한 연합은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일에서부터 시작될 것이다. 기도가 진정한 연합을 가져올 것이다. 그리고 그 연합된 기도가 상상할 수 없는 축복과 능력의 통로가 될 것이다.

4. 지속적인 연합기도의 능력

역사 속에서 부흥을 가져왔던 운동의 특징은 연합과 지속성이다.

역사속에서 세계최초의 국제적인 중보기도연합모임을 결성한 사람은 조나단 에드워즈이다. 당시 서신으로 밖에 연락이 안되던 1744년 10월에 미국의 조나단 에드워즈는 스코틀랜드의 목회자들과 매주 토요일 저녁과 주일 아침, 그리고 매분기 첫 화요일을 하루 종일 기도를 위해서 바치기로 결정한다. 그렇게 날짜를 정하고 시간을 정해서 함께 기도하는 이유에 대해서 조나단 에드워즈는 ‘그렇게 할 때에 우리 마음에 주의 나라에 대한 관심이 사라지지 않고 지속적으로 깨어 기도할 수 있게 된다’고 하였다. 즉 다같이 지속적으로 한 뜻을 마음에 품고 기도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 기도 합주회는 2년을 지속하고, 7년을 더 하기로 한다. 이것이 미국 대각성 부흥운동의 진원이 되었다.

미국 제3차대각성운동은 1857년 미국의 대공황기에 평신도선교사 예레미야 랜피어에 의해서 시작되었다. 사업을 잘하고 있던 신실한 사업가요 신앙이었던 그는 침체해가는 그 시대, 뉴욕 맨하탄의 한교회로부터 비즈니스 맨을 위한 평신도선교사의 제안을 받는다. 고민 끝에 사업의 동반자인 친구로부터 바보라고 비난을 들으면서도 그는 사업을 접고 선교사로 헌신한다. 그는 대공황으로 힘들어하는 직장인들을 위해 12시부터 1시까지 정오기도회를 계획한다. 첫 주 수요일에는 6명이 참석하고 둘째 주에는 20명, 셋째 주에는 3-40명이 참석한다. 세번째 모임에 강력한 성령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 때부터 매일 정오기도회를 연다. 그 다음날 100명이 모였고, 점점 많

은 사람들이 정오기도회에 몰려왔다. 더 큰 장소를 옮겨야 했고 이 기도의 열기가 미국전역으로 옮겨갔고 주요 모든 도시에서 정오기도회가 열리기 시작했다. 6개월이 흘렀을 때 뉴욕에서만 약 5만명이 매일 정오에 모여서 기도했다. 이렇게 3차대각성운동이 시작되고 그 열기속에 무디라는 한 청년이 헌신하고 목사가 되어 그 시대의 놀라운 부흥을 이끌어간다.

한국의 오순절이라 일컫는 1907년 평양 대부흥운동은 그 시작과 그 이후에 있어서 당시 한국에서 선교하고 있던 모든 교파의 선교사님들이 함께 참여한 연합 부흥운동이었다. 그리고 지속적인 기도의 결과였다. 특별히 평양의 선교사들이 원산과 영국 웨일즈에 일어난 부흥의 소식을 듣고, 그런 일이 금번 장대현교회 집회에 일어나길 갈망하며 매일 정오에 연합 기도회를 열었다. 1월 2일부터 시작되어 2주간 특정한 기도인도자가 없이, 함께 기도모임 장소에 조용히 들어와 무릎을 꿇고 간절히 기도했다. 그러한 기도속에서 열려진 장대현교회의 집회 가운데 불 같은 성령의 은혜가 임했고 그들이 온 지역으로 흩어지며 부흥의 불길이 한반도에 확산된 것이다.

〈기독교선교운동사〉를 쓴 폴 피어슨 “합심기도의 시작이 없이 영적인 각성이 일어난 사례는 세계 어느 곳에도 없다. 때론 수십명, 수백명이 함께 모여서 정기적으로 오랜시간 동안 기도할 때에 이러한 부흥이 일어난다”

이제 우리가 기도할 차례이다. 이제 더 이상 남들의 이야기, 과거의 이야기만 할 때가 아니라, 우리들의 이야기를 써갈 차례이다. 로잔대회를 앞두고 우리가 먼저 기도로 연합하자.

결론, 어떻게 로잔 연합기도에 참여할 수 있을까

1) 개인별

- 매일 5분씩 보내 드린 기도제목을 목소리를 내어 읽음으로써 기도합니다.
(시77:1 내가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내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 교회별로 카톡으로 소그룹을 조직하여 매일 기도운동을 독려합니다.
- 로잔의 기도 앱을 사용하여 교회별로 그룹을 만들 수 있습니다.
- 일주일에 한 번씩 목사님들의 5분 기도영상메시지가 전달됩니다. 들으시면서 지속적인 기도의 동기를 가져주세요.

2) 교회별

- 교회별로 로잔연합중보기도네트워크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문의 및 신청: 로잔중보기도네트워크 본부장, 박태양목사 010-2246-7011)
- 매일 새벽기도회에서 매일 제공되는 기도제목을 함께 기도합니다.
- 금요기도회(또는 수요기도회나 기도모임)시에 한국 교회 갱신과 로잔대회와 세계선교를 위해 함께 기도합니다.(매주 금요기도회용 기도제목을 보내드립니다.)
- 주일예배 시 대표기도나 합심기도 시 로잔대회와 한국 교회 갱신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 한 달에 한 번 교회별로 금요기도회를 로잔대회를 위해서 구별하여 진행합니다.(한 달에 한 번 필요한 설교자료, 강의자료, 기도제목 등을 보내드립니다.)

3) 지역별 연합차원

(1) 지역별로 교회들이 연합하여 분기별로 금요일연합기도회를 개최합니다.

현재 전국 13개 지역에 거점교회를 중심으로 지역별 로잔연합기도모임이 결성되었습니다.

(2) 매년 714에는 로잔중보기도본부와 지역거점교회가 연합하여 전국적인 연합기도모임을 열 예정입니다.

(3) 목회자간담회, 기도세미나 및 평신도기도사역자 대회 등을 각 지역과 협의하여 진행할 계획입니다

4) 담임목사님께서서는 담당교역자를 선정하여 알려주십시오.

(1) 담당교역자들의 단톡방을 통한 소통과 정기적인 줌미팅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소통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2) 거점교회목사님들과 긴밀히 소통하며, 로잔대회 이후에 까지 연합중보기도사역이 펼쳐지길 소망합니다.

중보기도 연합운동

지도: 이인호

본부장: 박태양

지역 리더 / 총무:

- 1) 서울북-동: 길성운(성복중앙교회) / 김태수(영세교회)
- 2) 서울남: 이재훈(온누리교회) / 이해영(성민교회)
- 3) 서울서-인천: 이기용(신길교회) / 김창현(소풍교회)
- 4) 경기북-동: 최성은(지구촌교회) / 손광수(새빛전원교회)
- 5) 경기서: 최원준(안양제일교회) / 강영구(더시티사랑의교회)
- 6) 경기남: 이인호(더사랑의교회) / 나영진(만남의교회)
- 7) 경남: 이규현(수영로교회) / 이종훈(구덕교회)
- 8) 경북: 문대원(대구동신교회) / 이지훈(범어교회)
- 9) 충청: 안광복(청주상당교회) / 송호철(늘사랑교회)
- 10) 전남: 박용주(나주혁신장로교회)
- 11) 전북: 권오국(이리신광교회) / 이신사(남군산교회)
- 12) 제주: 류정길(성안교회) / 이재정(드림교회)
- 13) 강원: 이병철(춘천주향교회)



적용과 실천2

하나님의 선교, 하나님의 목회

박영호 목사(로잔 말씀네트워크 지도, 포항제일교회)

‘선교적 교회(missional church)’는 ‘하나님의 선교(Missio Dei)’의 복음주의적 수용이다. 따라서 ‘하나님의 목회’라는 관점에서 선교적 목회론을 구축해 볼 수 있다.

- 1) 삼위일체 하나님 : 교회는 선교의 주체가 아니다. 목회자가 목회의 주체가 아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상에 보내시고, 사역자를 세우신다.
- 2) 회복의 큰 이야기 : 우리는 큰 이야기의 일부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정점에 이른 ‘만물의 회복’ ‘새창조’ ‘하나님의 통치’라는 복음의 서사 안에서 우리의 사역을 발견한다. 한 개인을 부르셔서 하나님 자녀 삼으시는 일은 그 사역 안에서 핵심적인 위치를 차지한다.
- 3) 하나님의 통치를 증언하는 공동체 :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선교는 믿는 역사 속에 그의 백성을 창조하고, 그 백성을 통해서 그 분의 선교를 이루어 가신다. 복음의 공동체는 그리스도를 선포하고(declare), 복음을 따라 사는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나타낸다(display).
- 4) 다양한 문화를 향한 선교 : 복음의 공동체는 다양한 문화 속으로 보냄 받았다. 교회는 자신의 문화를 상대화하고, 다른 문화를 존중하면서, 복음의 빛으로 문화를 비춘다. 교회는 나남의 통치에 걸맞는 문화를 형성해 가며, 그 안에서 그리스도의 백성으로 빚어져 간다.
- 5) 탄식과 소망 : 하나님의 목회는 고통하는 피조물의 탄식에 귀 기울인다. 지역교회 성도들의 아픔을 함께 하고, 이웃과 사회의 제 영역, 그리고 세계적 과제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기도한다. 만물을 회복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소망으로 오늘 여기에서의 하나님이 행하실 회복을 기대하며, 참여한다. 하나님의 목회는 탄식과 소망을 함께 품는다.

1. 삼위일체 하나님

하나님의 선교, 선교적 교회, 선교적 목회

보냄 받은 지역, 영역에서 하나님 나라를 증언한다.

2. 하나님의 큰 이야기

행 1:6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쭙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 때니이까 하니 7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8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행 3:21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 두리라



총체적 선교의 반대는 reductionism이다.

인간의 문제는 종합적이고, 하나님의 해결, 회복도 총체적이다.

행 1:10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 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ἀτενίζω 아테니조)

행 3:3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ἀτενίζω 아테니조)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Global and local

선교적 민감성

다양한 주제들, 관심사들

- 1) 목회데이터연구소, 『한국 교회 트렌드 2024』
- 2) 김난도, 『트렌드 코리아 2024』
- 3) 박영호, 『시대를 읽다 성경을 살다』
- 4) 로잔 2024 이슈 네트워크 트랙

“모든 지도는 낡은 지도다”

control - influence - concern

focus - engage - pray

우리가 목회현장에서 만나는 성도들도 목회 프로그램으로 포착될 수 없는 큰 이야기를 갖고 있다.

고린도전서 3:6 나는 심었고 아볼로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커리큘럼의 신화에서 공동체의 이야기로

3. 하나님의 통치를 증언하는 공동체

사도행전 2장

44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45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 주며 46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사도행전 4장

32 믿는 무리가 한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태도가 문화를 만들고, 문화가 태도를 낳는다.

아비투스 - 참조. 앨런 크라이더, 『초기 교회와 인내의 발효』



프로페짜이

프빙글리가 취리히에서 1520년에 시작한 목회자들의 설교준비 모임이다. 성경 한 권을 택하여 연속적으로 설교하는 lectio continua, 개혁교회의 신학교가 여기서 탄생했으며, 취리히 성경도 이 모임에서 나왔다. 깔뱅은 제네바에서 “콩그레가시옹”이라는 이름으로 정기적인 성경연구모임을 가졌다. 깔뱅의 성경주석도 대부분 개인 저작이 아니라, 이 모임에서 함께 말씀을 나누는 통찰을 정리한 것이다.

로잔, 런던, 에든버러 등 도시에서 각각 다른 이름으로 설교자의 성경연구모임이 진행된 걸로 볼 때, 프로페짜이는 개신교 목회의 DNA 라 할 수 있다. 한국에서도 프로페짜이 운동이 이어져 왔는데, 2024년에는 제4차 로잔 대회와 본문이 사도행전을 함께 설교하는 공동설교 운동으로 이어지고 있다.

프로페짜이는 말씀을 중심으로 삶을 나누는 목회자의 서로 돌봄 운동이라 할 수 있다.

4. 다양한 문화를 향한 선교

포스트-크리스텐덤과 선교적 교회

포스트-모더니즘 : 서구 중심주의와 문화상대주의 사이에서

5. 탄식과 소망

로마서 8:22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23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 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24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으며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25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참고 - 2024 시대읽기, 주목할 만한 흐름들

목회데이터연구소, 『한국 교회 트렌드 2024』

- 01 Rebuilding Church 교회 리빌딩
- 02 Loneliness in Church 외로운 크리스천
- 03 OTT Christian OTT 크리스천
- 04 Meme Generation 밈 제너레이션
- 05 3040 Millennials 약한 고리 3040
- 06 Bottom-up Community 교회 거버넌스
- 07 Church in Church 처치 인 처치
- 08 Assistant Phobia 어시스턴트 포비아
- 09 Re-missional Church 다시 선교적 교회
- 10 Inevitable Cult 인에비터블 컬트

김난도, 『트렌드 코리아 2024』

- Don't Waste a Single Second: Time-Efficient Society 분초사회
- Rise of 'Homo Promptus' 호모 프롬프트
- Aspiring to Be a Hexagonal Human 육각형인간
- Getting the Price Right: Variable Pricing 버라이어티 가격 전략
- On Dopamine Farming 도파밍
- Not Like Old Daddies, Millennial Hubbies 요즘남편 없던아빠
- Expanding Your Horizons: Spin-off Projects 스피노프 프로젝트
- You Choose, I'll Follow: Ditto Consumption 디토소비
- ElastiCity. Liquidpolitan 리퀴드폴리탄
- Supporting One Another: 'Care-based Economy' 돌봄경제

박영호, 『시대를 읽다 성경을 살다』

- 1) 모든 지도는 낡은 지도다
- 2) AI 시대의 영성
- 3) 행복숭배 시대의 기쁨
- 4) 각 경제 시대의 자기경영
- 5) 비정규직 800만 시대의 직장문화
- 6) 힐링 시대의 신앙

- 7) 혼밥 시대의 품위
- 8) 엔터테인먼트 시대의 예배
- 9) 피로 시대의 쉼
- 10) 불안 시대의 위안
- 11) 시민주권 시대의 참여
- 12) 포스트크리스텐덤 시대의 선교
- 13) 냉소 시대의 열정

로잔 2024 이슈 네트워크 트랙

1. REACHING PEOPLE (복음 전파)

- (1) The Global Aging Population (세계 인구 고령화)
- (2) The New Middle Class (새로운 중산층)
- (3) Reaching the Next Generation (다음세대 전도)
- (4) Islam (이슬람)
- (5) Secularism (세속주의)
- (6) Least Reached People (미복음화된 민족)

2. MINISTRY IN A DIGITAL AGE (디지털 시대의 사역)

- (7) Scripture in a Digital Age (디지털 시대의 성경)
- (8) Church Forms In a Digital Age (디지털 시대의 교회 형태)
- (9) Discipleship In a Digital Age (디지털 시대의 제자 훈련)
- (10) Evangelism in a Digital Age (디지털 시대의 전도)

3. UNDERSTANDING HUMANNES (인간됨에 대한 이해)

- (11) Transhumanism, Technology, and the Redefinition of Man's Salvation
(트랜스 휴머니즘, 기술, 그리고 구원의 재정의)
- (12) Sexuality and Gender (성과 성별)
- (13) Mental and Physical health (정신 및 신체 건강)

4. POLYCENTRIC MISSIONS (다중심적 선교사역)
- (14) Polycentric Mission (다중심적 선교)
 - (15) Polycentric Resource Mobilization (다중심적 자원의 동원)
 - (16) Christian Unity & Great Commission (연합과 지상대위임령)
5. MISSION & HOLINESS (선교와 거룩함)
- (17) Integrity & Anti-Corruption (정직과 반부패)
 - (18) Integrated Spirituality & Mission (통전적 영성 및 선교)
 - (19) Developing Leaders of Character (지도자 품성 개발)
6. BEARING WITNESS WITHIN COMMUNITIES (공동체에서 증인되기)
- (20) People on the Move (이주민)
 - (21) Urban Communities (도시 공동체)
 - (22) Digital Communities (디지털 공동체)
7. SOCIETAL INTERACTION (사회적 상호교류)
- (23) Christianity, Radical Politics, and Religious Freedom
(기독교, 급진적 정치 그리고 종교의 자유)
 - (24) Caring for Creation & the Vulnerable (창조세계와 취약계층 돌봄)
 - (25) Christian Witness in the Marketplace (일터사역)

적용과 실천3

공감과 연대의 교회 - 소외된 이웃과 교회의 본질에 관한 묵상

지형은 목사(성락성결교회)

1.

시대가 변하고 있다. 역사의 수레바퀴가 큰 궤도를 그리며 돌고 있다. 문명사적 전환기라고들 말한다. 깊이 공감한다. 꼬박 3년 동안 세계를 힘들게 한 코로나19와 연관된 현상이기도 하지만, 사실 역사와 문명의 전환은 그 이전부터 진행되고 있었다. 세계적인 여러 위기는 문명 전환의 현상을 여실히 보여준다. 40여 년 가속된 신자유주의의 수명이 다한 것, 이제는 발등의 불이 된 기후 위기, 미국과 중국의 갈등에서 빚어지는 세계 질서의 주도권 변동, 21세기의 백주에 발생한 동유럽과 중동의 전쟁, 세계적 현상인 극우 정치 포퓰리즘과 민주주의의 위기, 여전히 열악한 인권과 극심해지는 빈부 격차 등 오늘날 세계의 문제는 복잡적이고 광범위하다.

이런 현상들이 서로 얽혀서 격변의 소용돌이를 더 크게 만들고 있다. 변화의 물결이 점점 커지면서 인류는 필시 여러 가지 심한 진통을 겪는다. 크고 작은 고통의 상황을 겪을 만큼 겪고 나서야 안정기로 접어들 것이다. 현재 급격하게 진행 중인 거대한 변화가 얼마나 더 전쟁, 기근, 지역 갈등 등의 진통으로 이어질지 예측하기 힘들다. 세계적인 인간 삶의 상황이 언제쯤이나 어떤 형태의 질서로든 다시금 자리를 잡아 안정될지 전망하기 힘들다.

2.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는 언제나 현실적인 세상 한가운데 존재한다. 예수님께서 지상 사역의 마지막 시기에 제자들과 그 후의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셨다. 그 기도문이 요한복음 17장에 기록돼 있다. 여기에 아주 명백하다. 현실적으로 교회의 주소지는 현상 세계 한가운데다. 요한복음 17장 14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을 보자.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이다.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전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그리스도인 공동체 곧 교회는 세상 한가운데서 살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는다. 주님께서 교회를 세상 한가운데로 파송하셨다. 교회는 주님께서 주신 진리의 말씀에 따른 가치관을 갖고 산다. 세상과는 다른 가치관으로 살아간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깨달아 그 가르침대로 산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거룩하게 변화된 힘으로 세상을 변화시킨다.

이것이 교회가 존재하는 근거다. 이 지점에서 우리는 교회와 연관하여, 그러니까 자신에게 근본적인 질문을 던져야 한다. 오늘날의 문명사적 전환기에 교회는 어떤 모습으로 존재해야 하나? 어떤 방식으로 살아야 하나? 주님께서 오늘날의 교회에게 주시는 과제는 무엇인가? 그 과제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풀어가야 하나? 이런 질문들과 연관하여 교회는 우리 사회의 소외된 이웃을 어떻게 바라보며 그들과 연관하여 어떻게 살아야 하나? 이런 질문들을 던지며 교회의 본질을 살핀다. 교회의 삶과 행동, 그 변화를 목상한다. 이 글은 공감과 연대의 교회를 향한 목상이다.

3.

교회가 그리스도의 지상 사역에 토대를 두고 있는 것은 아주 자명하다. 말씀이신 성자 하나님께서 사람 몸을 입고 세상에 오신 사건, 곧 성육신이 교회의 근원이다.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이 되신 말씀이다. 하나님 자신이다. 그분의 삶과 인격이 교회의 근거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사역하셨는지를 살피는 것이 그래서 참으로 중요하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와 가까울수록 교회답고 그분과 멀수록 교회다움을 잃어버린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에서 오늘날의 교회가 다시금 깊이 목상하며 자신을 성찰할 성경 본문을 목상하자. 오병이어로 오천 명을 먹이신 사건과 떡 일곱 개와 물고기 두어 마리로 사천 명을 먹이신 사건을 기록한 본문이다. 이 말씀은 오늘날의 교회와 사회의 상황에 중요한 메시지를 준다.

마태복음의 본문으로 두 사건을 보자. 마태복음 14장 13~21절과 15장 32~39절에 두 사건이 나온다. 먼저 오병이어의 사건이다. 이 본문을 깊이 이해하려면 문맥을 살펴야 한다. 먼저,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는 이미 말씀을 듣고 병 고침을 받았다. 그러나 아직도 그들에게 부족한 것이 있다. 먹어야 하는 문제다. 이 상황에서 우리는 영의 양식인 말씀과 육의 양식인 먹거리가 따로 떨어진 것이 아니라는 통찰을 얻는다. 기독교의 복음은 좁은 의미의 영적인 차원에만 관련되지 않는다. 육신이 연관된 현상적이고 사회적인 모든 것을 포괄한다. 물리적인 현상 세계와 사회 역사적인 영역을 무시하고 이른바 ‘영적인 영역’으로 기독교 사역을 좁히면 복음의 본질에서 벗어난다. 영지주의의 위험에 빠진다.

복음으로 작동하는 하나님 나라는 전인적이며 존재 전체와 연관된다. 그래야만 하는 이유는 아주 간단하고 분명하다. 현상적인 세상은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만드셨다. 하나님은 당신이 창조하신 세상을 깊이 사랑하신다. 세상을 섭리하며 구원하신다. 오병이어의 사건에서 이점이 분명하다.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말씀을 주실 뿐 아니라 육신의 양식도 주신다. 사람들은 영적인 굶주림뿐 아니라 육적인 굶주림에도 시달리고 있다. 제자들은 육신의 굶주림을 사람들 각자가 알아서 해결하게 하려 한다. 그러나 예수님은 제자들의 생각을 명확하게 반대하신다.

마태복음 14장 15~16절에서 제자들과 예수님의 대화를 보라.

“...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교회 공동체는 복음의 말씀을 전하는 일뿐 아니라 육신이 연관된 사회적인 여러 문제에 관해서도 책임이 있다.

교회 사역의 최우선 순위는 말씀이 아닌가? 맞다. 교회는 마태복음 28장 18~20절의 명령에 따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말씀을 세상의 모든 사람에게 가르쳐 지키게 해야 한다. 말씀이 사람들의 인격과 일상을 변화시키도록 전해야 한다. 말씀이 삶이 되는 것, 이것이 교회 사역의 심장이다. 그런데 말씀이 삶으로 이어지는 과정에서 교회는 사회와 역사 현장에서 발생하는 온갖 문제와 연관된다. 코로나19, 기후 위기, 신자유주의 경제의 문제, 전쟁과 빈곤과 인권 등 말이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는 것은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이기도 하다. 교회가 세상에 나누어 줄 먹거리를 갖고 있는가? 말씀이 삶의 현장에서 작동하는 과정에서 교회는 이 문제와 뗄 수 없이 연결된다. 교회가 경제의 주체로서 먹고사는 문제를 주도해야 한다는 말인가? 교회는 ‘직접적인 방식으로’ 경제 주체는 아니다. 그러나 경제 문제에 관련된 가치관을 선포하고 방향을 제시한다는 점에서는 교회는 ‘간접적인 방식으로’ 경제 주체가 된다. 아니, 경제 주체들의 모든 경제 행위가 그들의 가치관에서 나온다는 것을 생각하면 교회는 ‘근원적인 방식으로’ 경제의 주체가 된다. 정치, 법조, 교육, 문화 등 인간 역사와 사회의 모든 문제도 그런 방식으로 교회의 일이 된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는 주님의 명령을 듣고 제자들이 마련한 것은 고작 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 오병이어였다. 교회가 가진 복음의 말씀은 세상의 통속적인 시각으로 보면 오병이어 정도처럼 보인다. 그러나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면 복음의 말씀은 사회적인 모든 문제와 존재하는 모든 형태의 질병을 치유하고 살리는 힘이 된다.

4.

마태복음 14장에 나오는 오병이어의 사건과 떡 일곱 개와 물고기 두어 마리로 사천 명을 배불리 먹이신 15장의 사건은 구조가 같다. 15장에 나오는 사건을 ‘칠병삼어’로 이름을 붙여 보자. 오병이어(五餅二魚) 사건은 유대인 지역에서 일어난 일이고 칠병삼어(七餅三魚) 사건은 이방인 지역에서 일어났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 유대인과 이방인, 곧 세상 사람 모두를 포괄한다는 의미가 이 문맥에 담겨 있다. 두 사건에서 거기 있는 모든 사람이 다 배불리 먹고 풍성하게 남았다는 점이 중요하다. 14장 20절과 15장 37절을 보자.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열두 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일곱 광주리에 차게 거두었으며.”

열둘과 일곱은 유대인의 숫자 개념에서 완전수다. 다 배불리 먹고, 그리고도 아주 풍요롭게 남았다. 남은 것은 또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 줄 수 있다. 이 사건에서 경쟁 구도가 없다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 사람의 계산이나 이해관계의 충돌이 전혀 발생하지 못할 정도로 하나님께서 전격적으로 개입하셨다. 하여, 전혀 경쟁할 필요가 없도록 넉넉했다.

사람이 사는 세상에서 경쟁이 없을 수 없지만 사람다움을 억압하고 파괴할 정도의 경쟁 구도는 악한 것이다. 신자유주의 경제 구조의 심각한 문제점이 이것이다. 지구 전체를 하나의 시장으로 만들어 놓고 무한경쟁을 한

다. 빈부의 격차가 천문학적인 수치로 벌어진다. 빈부 격차가 어느 정도 이상으로 극심해지면 그 사회나 문화권이 견뎌내지 못한다. 인류 역사의 반복적인 경험이다. 신자유주의 경제 구조를 가속화하고 주도한 대표적인 집단 중 하나가 다보스포럼이다. 신자유주의 경제로는 인류가 더는 지속적으로 먹고 살 수 없다는 사실을 다보스포럼이 인정하고 대안을 찾고 있다. 그 이전부터 신자유주의 경제 구조의 문제점이 많이 지적돼 왔지만 눈앞의 경제 이익과 집단 이기주의에 매몰된 세계가 그것을 들을 귀가 없었다.

5.

오병이어와 칠병삼어의 사건에서 이제 이 글의 주제인 ‘공감과 연대의 교회’와 직접 연결 되는 점을 목상하자. 마태복음 14장 14절과 15장 32절을 보라. 두 사건의 동인(動因)과 동력(動力)은 예수님이다. 그 예수님을 움직인 요소가 이 두 구절에 나온다.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예수님의 삶과 사역에서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신 것이 참 중요하다. 예수님을 움직인 요소가 이것이었다. 마태복음의 내용 흐름에서 예수님께서 어렵고 소외된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셨다는 점이 중요하다. 마태복음 전체의 문맥에서 9장 35~38절과 여기에 연결되는 11장 28~30절을 보라.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 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쉬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사람과 세상을 불쌍히 여기는 것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역에서 가장 기본적인 것이다. 하나님의 자기 계시에서 결정적인 사건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다. 십자가의 중심 메시지가 사랑이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이 사랑의 중심이다. 피조세계가 죄악에 눌러 탄식하고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 불쌍하게 보셨다. 특히 그 안에 사는 사람이 죄악으로 멸망하는 비참한 상황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셨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극진히 사랑하신다. 당신이 사랑으로 창조하셨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다. 아니, 하나님께서 바로 사랑이시다. 요한일서 4장 16절과 로마서 5장 8절을 보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오늘날의 세계 상황에서 전쟁, 기근, 빈곤, 질병, 자연 재해 등으로 고통을 당하는 사람이 많다. 기후 위기와 세계적인 패권 경쟁으로 촉발되는 갈등과 전쟁으로 이런 사람들이 더욱 늘어날 것이다. 비참한 고통에 신음하는데도 돌보지 않으니 소외된 사람이 된다. 오병이어와 칠병삼어 사건의 가르침이 명확하다. 영의 양식인 진리의 말씀이 근본적으로 필요하고 육의 양식인 먹거리가 현실적으로 필요하다. 두 가지 양식은 분리되지 않는다, 통합적으로 절실하다.

교회가 복음의 말씀을 전하면서 사회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을 외면한다면 예수님의 복음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것이다. 이해했으면서도 사회에서 소외된 사람들을 진지하게 돌보지 않는다면 큰 죄를 저지르는 것이다. 사회적인 약자와 소외 계층을 적극적으로 돌보지 않고 도리어 사회의 기득권 계층의 편에만 선다면 주님께 무서운 심판을 받을 일이다. 그러면서 이른바 ‘영적인 책임’을 다했다고 한다면 둘 중 하나다.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든지, 대놓고 무시하며 짓밟는 것이다.

교회는 어떤 이유에서든지 빈곤과 질병에 시달리는 사람들에게 직접적으로 먹을 것과 입을 것을 나눠주고 위로와 희망을 주어야 한다. 이 일에 힘써야 한다. 소외된 이웃을 돕는 사랑의 실천은 복음 전도와 함께 성경 전체의 양대 명령이다. 소외된 이들을 돕는 일을 ‘근원적인 방식으로’ 강력하게 추진해야 한다. 교회가 선포하는 메시지에서 경제의 윤리와 정의, 정치의 도덕성과 정당성, 문화의 정결함과 가치, 법과 제도의 공정과 배려를 끊임 없이 강조해야 한다.

이런 선포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리스도인다움을 깊게 하고, 사회 전체에는 사람다움의 가치를 일깨운다. 야고보서의 말씀을 기억하자. 4장 14~17절이다.

“내 형제들아,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 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6.

21세기의 오분의 일을 지나고 있는 인류에게 절절하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공감과 연대의 능력을 잃어버리지 않는 것이다. 아니, 벌써 잃어버릴 대로 잃어버렸으니 그 능력과 감성을 회복하는 것이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갖고 인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이 일을 교회에게 명령하셨다. 교회의 피할 수 없는 과제다. 이성적이고 도덕적인 판단에 근거한 공감과 연대의 능력은 사람다움의 기본 요소다. 사냥을 할 때 사자나 늑대나 하이에

나처럼 여러 마리가 서로 협력하는 동물이 있다. 본능에 따른 행동이다. 도덕적인 가치 판단이나 이성적인 상황 판단에서 나오는 행동이 아니다. 사람은 다르다. 말과 행동과 처신에서 이성과 도덕성에 근거하여 가치 판단을 한다. 물론 위기 상황에 부딪히면 사람 누구나 동물적인 본능으로 행동한다. 목숨이 위태로워지면 생존의 본능이 발동하면서 이성과 도덕성이 마비된다. 그러나 인간 역사에서는 늘 사람다움의 가치를 지키고 가꾸려는 힘이 이어져 왔다.

기독교의 복음은 이성과 도덕성에 근거한 사람다움의 가치를 넘어선다. 죄악으로 깨진 사람됨의 본디 가치와 아름다움을 회복시키는 진리가 복음이다. 그러나 기독교의 복음과 사람다움의 도덕적 가치를 대립적인 상황으로 이해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런 경우에 기독교는 세상 도피적이고 근본주의적인 편협한 신앙으로 몰락한다. 복음의 가치는 일반적인 도덕성을 포함하면서 그것을 넘어선다. 오늘날의 세상에 절실한 공감과 연대의 능력에서도 마찬가지다. 공감해야 현상이 제대로 보인다. 우리가 사는 세상의 현실은 누구도 혼자 살 수 없다. 연대해야만 생존이 가능하다. 공감과 연대는 뗄 수 없이 연결된 삶의 덕목이다.

예컨대, 기후 위기의 상황을 보자. 탄소 배출로 인한 지구 온난화와 거기에서 비롯되는 기후 위기는 어느 한 나라나 한 지역의 문제가 아니다. 지구 행성이라는 한 배에 탄 인류는 공동 운명체다. 함께 연대하여 기후 위기를 극복하지 않으면 공멸한다. 기후 위기를 해결하려면 국가나 국가 연합체 단위로 경쟁하는 경제 구조를 넘어서야 한다. 세계의 각 나라나 지역적인 경제 또는 정치 연합체들이 공감과 연대로 함께 살아야 한다는 인식을 가져야 한다. 신자유주의 경제의 결과로 빚어진 욕망의 고속열차에서 내려야 한다. 극심한 빈부격차를 적절하게 해결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을 찾아야 한다. 일하지 않고 건물주가 되어 마음껏 쾌락을 즐기면서 살겠다는 것이 젊은이들의 꿈이어서는 안 된다. 전 세계의 경제 구조에서 천문학적인 재산을 가진 사람들이 누리는 초호화판 삶이 알게 모르게 젊은이들의 꿈이 되게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 어떤 길을 시급히 찾아야 한다, 교회와 그리스도인이.

7.

교회 공동체는 말씀의 선포로써 존재한다. 들리는 말씀인 설교와 보이는 말씀인 성례가 그 전통적인 구조다. 오늘날에도 이 근본 구조는 다르지 않다. 중요한 점은 말씀의 선포가 삶의 변화로 이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유일하고 완결된 계시인 66권 성경 말씀이 인간 역사와 사회의 구체적인 현장에서 작동해야 한다. 말씀이 삶이 되는 것이 기독교의 본질이며 하나님 나라다. 하나님의 뜻이며 하나님의 법인 말씀이 작동하는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

문제는 어떻게 해서 말씀이 삶으로 이어지는가 하는 것이다. ‘말씀묵상’이 그 길이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임재와 현존 가운데서 살게 하는 훈련이 말씀묵상이다. 말씀과 기도가 하나 된 것이 말씀묵상이다.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말씀묵상의 개념이 정확하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세상을 변화시키는 힘은 거룩함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고(에베소서 4:13)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한다는 것이

(베드로후서 1:4) 기록해진다라는 말이다. 그리스도 안에서 살며 성령과 동행 함으로써(고린도전서 6:19) 기록해진다. 사람은 중생 또는 칭의로써 그리스도인이 된다. 그 후에 지속적으로 성화의 길을 걷는다. 이 모든 과정이 거룩함에 이르는 길이다. 말씀과 기도, 곧 말씀묵상이 그 길이다.

예수님께서 주신 최후의 최종적인 절대 명령이 마태복음 28장 18~20절에 나온다. 이 본문에 말씀묵상의 문제가 나온다. 예수님의 지상명령(至上命令)이라고 말할 때 28장 19~20절만 얘기하는데, 문제가 있다. 문맥상으로 18~20절이 뺄 수 없는 한 덩어리다. 이 부분을 구조에 따라 셋으로 나눠서 묵상하자.

18 :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19~20a :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20b :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 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가운데 부분이 사명이다. 굉장히 어려운 일다. 그래서 앞뒤에, 그러니까 18절과 20b절에 그 사명을 수행하도록 보장하신다. 지금 말씀하시는 분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갖고 계시다. 그분이 세상 끝 날까지 동행하신다.

사명은 두 가지다.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는 일과 그리스도인답게 살게 하는 일이다. 세례를 베푸는 것이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는 일이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 곧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답게 살게 하는 일이다. 말씀은 지키도록 가르쳐야 한다. 지킬 때까지 가르쳐야 한다. 말씀을 받는 사람을 반드시 그 말씀대로 살게 해야 한다는 목적을 눈이 시리게 인식하며 말씀을 전하고 가르쳐야 한다. 말씀이 삶이 되게 해야 한다. 여기에서 벗어나면 기독교적인 가르침이 아니다.

요한복음 1장에 기록된 성육신이 기독교 신앙의 심장이다. 하나님인신 말씀이 사람이 되어 사람들 한가운데 살게 시작하셨다. 말씀이 삶이 되셨다. 성육신의 원형이다. 교회와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성육신이 지속된다. 기록된 말씀이 사람 삶에서, 곧 역사와 사회 한가운데서 성령의 역사로 작동하며 성취된다. 이로써 주기도문의 문구처럼 하나님의 나라가 사람 사는 세상에서 이루어진다. 교회와 그리스도인이 받은 사명이 이것이다.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방법이 말씀묵상이다. 말씀묵상은 기독교 신앙 또는 교회 사역의 프로그램 중의 하나가 아니다. 기독교 신앙의 근본 구조다. 말씀을 묵상하며 살게 하는 것이 목회요 기독교다. 말씀을 묵상하며 사는 사람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점점 더 깊이 알아가며 그분의 성품을 닮는다. 그래서 어려운 이웃을 불쌍히 여기며 사랑을 실천하며 산다. 공감과 연대의 사람이 되는 것이다.

[이 원고는 코로나19가 한창 기승부리던 2022년 가을에 햇불회에서 강의한 내용을 토대로 수정 보완한 것이다.]

적용과 실천3

로잔의 총체적 선교와 한국 NGO의 활동사례 - 월드비전을 중심으로

박노훈 목사(신촌성결교회)

I. 로잔언약(Lausanne Covenant)

“우리가 주장하는 구원은 우리로 하여금 개인적 책임과 사회적 책임을 총체적으로 수행하도록 우리를 변화시켜야 한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로잔언약 제5항 그리스도인의 사회적 책임)

II. 제2차 마닐라 대회

-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그를 선포하라. 온 교회가 온 세상에 온전한 복음을 전하라!”

“참된 선교는 성육신적이어야 하며, 진정한 선교를 위해서는 항상 겸허하게 사람들의 세계에 직접 들어가서 그들의 사회적 현실, 비애와 고통, 그리고 압제 세력에 항거하며 정의를 위해 투쟁하는 그들의 노력에 동참해야 한다”(마닐라선언 제4항 복음과 사회적 책임)

III. 제3차 남아공 케이프타운 대회

“모든 선교에서 복음 전도와 세상에서의 헌신적인 참여가 통합되어야 하며, 이 둘은 모두 하나님의 복음에 관한 성경 전체의 계시가 명령하고 주도하는 일이며, 우리가 선포하는 구원은 개인과 사회 전체를 변화시켜야 하는 통전적인 복음이다.”(케이프타운 서약 제10항 우리는 하나님의 선교를 사랑한다)

IV. 제4차 서울-인천 대회

- “Let the Church Declare and Display Christ Together
교회여, 함께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나타내자!”

V. 로잔의 총체적 선교신학과 월드비전(World Vision)의 실천

“우리는 우리가 살아가는 삶, 우리가 행하는 사랑과 정의와 자비의 행동, 그리고 우리의 삶과 행동 이면에 있는 믿음과 동기와 힘을 설명하는 말의 통합을 요청 받았습니다. 만약 우리가 공언하는 것과 행동하는 것이 일치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증거는 신뢰를 잃게 됩니다.” - 팀 디어본(국제 월드비전 디렉터)

폐회에배

복음주의적 연합의 비전: 예루살렘 공의회

한기채 목사(한국로잔위원회 부의장, 중앙성결교회)

행15:1-11

- 1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하니
- 2 바울과 바나바와 저희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및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니라
- 3 저희가 교회의 전송을 받고 베니게와 사마리아로 다녀가며 이방인들의 주께 돌아온 일을 말하여 형제들을 다 크게 기쁘게 하더라
- 4 예루살렘에 이르러 교회와 사도와 장로들에게 영접을 받고 하나님께서 자기들과 함께 계셔 행하신 모든 일을 말하매
- 5 바리새파 중에 믿는 어떤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 주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 6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의논하러 모여
- 7 많은 변론이 있는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 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 8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저희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거하시고
- 9 믿음으로 저희 마음을 깨끗이 하사 저희나 우리나라 분간치 아니하셨느니라
- 10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메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 11 우리가 저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 받는 줄을 믿노라 하니라

1. 예루살렘 공의회가 열리게 된 배경은 무엇입니까?(1-2절)
2. 베드로는 자신의 체험을 통해 무엇이라고 주장했습니까?(7-11절)
3. 바나바와 바울의 증언은 무엇입니까?(12절)
4. 야고보의 결론적인 제안은 무엇입니까?(19-20절)
5. 안디옥에 유대와 실라를 보내며 동봉한 편지에 어떻게 썼습니까?(28-29절)
6. 안디옥 교인들은 편지를 받고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31절)

초대교회의 역사를 보면 교회는 끊임없이 밀려오는 안팎의 시험과 문제들을 잘 대처하며 나아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6장은 교회가 구체문제로 내부에 헬라파 유대인과 히브리파 유대인 사이에 원망이 일어나

교회가 분열될 수 있는 어려운 지경이었습니다.

그러나 사도들이 그 기회에 말씀을 전하는 일과 기도하는 일에 우선순위를 두고, 돕는 집사들을 선정하여 세움으로 슬기롭게 잘 대처했습니다. 사도행전 15장에는 안디옥 교회를 중심으로 복음이 이방인들에게 직접 전파되어 예수님을 믿게 되는 이방인 신자들과 유대인 신자들 사이에 구원의 교리에 대한 논쟁이 일어납니다. 자칫 잘못하면 교회가 유대교회와 이방인교회로 나누어 질 수 있는 내적인 위기를 다시 한 번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풀기 위하여 교회 역사상 최초의 공회가 되는 예루살렘 회의가 모입니다.

바울의 1차와 2차 선교 여행 사이인 주후 49년으로 추정됩니다. 이 첫 번 교회 회의에서 오늘날 교회 회의의 모범과 복음주의적 연합의 비전을 봅니다. 이 회의를 사도행전은 객관적 입장에서 요약서술하고 갈라디아서 2장 1-10절에는 바울의 기록으로 나와 있습니다. 바울은 할례자와 무할례자의 “친교의 악수”를 강조하고 있으며, 베드로는 할례자의 사도로 바울은 무할례자의 사도로 나아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공의회는

I. 당면 문제를 푸는 회의였습니다.

II. 원칙이 있는 회의였습니다.

III. 걸림돌을 제거하는 긍정적인 회의였습니다.

9월, 4차 로잔대회에는 7가지 분야에 걸쳐 25가지의 주제를 다룰 예정입니다. 이런 주제들은 복음을 실천하는데 있어서 지금 한국과 세계 교회가 당면한 주요한 문제들입니다. 성령과 말씀 안에서 다양한 토론과 실재의 경험 그리고 깊이 있는 연구를 통하여 일치되거나 또는 효율적인 실천 방안들을 모색하고 서로 동역하고 기여하는 세계 교회의 모습을 이루어 가야 하겠습니다.



부록

복음주의 운동으로서의 로잔운동의 이해: 우리가 붙들어야 할 7가지 제언

최성은 목사(지구촌교회)

I. 들어가는 말

2024년은 한국 교회뿐 아니라 전 세계복음주의 운동에서도 의미 있는 해이다. 격랑기를 거치며 복음주의를 지켜온 로잔운동이 태동한 지 50주년을 맞이하였고 그 역사적인 대회가 한국에서 열린다. 특별히 이 대회가 스위스 로잔에서 열렸기 때문에 소위 ‘로잔운동’이라는 별칭이 붙었지만, 실제로 이 대회의 공식 이름이 제1차 세계 복음화 국제대회(The First International Congress on World Evangelization)란 점에서, 로잔운동은 당시 전 세계 복음주의자들이 어떻게 하면 온 세상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 있을지를 고민하며 모인 복음 운동이었음을 결코 잊지 말아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본 연구자는 복음주의 운동으로서의 로잔운동이 태동하게 된 배경과 역사 그리고 복음주의의 정의 및 그 의미를 살피고자 한다. 동시에 올해 한국에서 50주년을 맞이하는 로잔대회가 나아가야 할 일곱 가지 방향을 제언하고자 한다. 특별히 본 연구를 바라보는 하나의 중심 지렛대로 로잔언약의 입안자이며, 로잔운동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 존 스토틀의 글들과 관점이 사용된 것을 밝히는 바이다. 일부는 제3차 한국 로잔 목회자 콘퍼런스에서 발표한 글을 수정 보완한 것이며, 아신대(ACTS) 회년 50주년 학술 대회에서 주제 강연한 글이기도 함을 알린다.

II. 로잔운동의 탄생과 복음주의

로잔운동의 역사와 신학이 복음주의에 뿌리를 내리고 있기 때문에 복음주의 태동의 배경이 되는 종교개혁 이후부터 연대기 순으로 근본주의, 신정통주의, 종교 다원주의적 신학과 선교, WCC의 결성, 신복음주의의 탄생을 간략히 살펴보기로 한다. 그리고 이런 배경으로 말미암은 로잔운동의 시대적 필요성과 현재 우리의 복음주의의 정체성을 돌아보고, 이 시대에 왜 로잔운동이 필요하며, 동시에 과연 복음주의는 무엇을 믿는지를 연구해 보고자 한다. 특별히 로잔언약의 입안자 존 스토틀(John R. W. Stott, 1921~2011)가 로잔언약에 대하여 설명을 첨가한 저서들을 중심으로 복음주의는 무엇에 근거를 두고 있는지 정의해 보고자 한다.

1. 복음주의 연합 운동의 필요성

마르틴 루터(Martin Luther, 1483-1546)와 요한 칼뱅(John Calvin, 1509-1564) 등에 의해서 주도되었던 16세기 종교개혁 운동은 17세기 들어 여러 신학자에 의해 계승 및 발전되어 독일, 스위스, 화란 등 유럽 각지에서 개신교 정통주의(Protestant Orthodoxy)라는 이름으로 꽃피우게 되었다.¹⁾ 하지만 이들 개신교 정통주의는 교회 안팎으로 심각한 도전을 만나게 된다. 먼저 소키누스주의(Socinianism)와 같은 새로운 이단들은 삼위일체와

1) 개신교 정통주의는 크게 루터의 사상을 계승한 루터파 정통주의(Lutheran Orthodoxy)와 울리히 츠빙글리(Ulrich Zwingli, 1484-1531) 및 칼뱅의 신학을 발전시킨 개혁파 정통주의(Reformed Orthodoxy)로 나뉜다.

같은 기존의 정통 기독교 교리를 반대하며 당시 유럽의 교회 안에 큰 논쟁을 불러일으켰다. 또한, 유럽의 30년 전쟁 이후 맺어진 베스트팔렌 조약(Peace of Westphalia, 1648)으로 개신교는 종교의 자유를 공식적으로 인정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로마 가톨릭은 다양한 방식으로 개신교 정통주의를 계속적으로 핍박하고 공격하였다. 여기에 르네 데카르트(René Descartes, 1596-1650)의 합리주의 철학으로 대변되는 계몽주의 “신철학”(the New Philosophy)의 등장은 당시 교회의 정통신앙을 크게 위협하였다.²⁾ 무엇보다 개신교 정통주의는 시간이 지나면서 비록 교리적 측면에서는 정통을 유지했지만, 삶에서는 행함이 없는 믿음과 형식적인 신앙생활로 영적 생명력을 상실한 채 “죽은 정통주의”(Dead Orthodoxy)로 전락하고 말았다.

하지만 이러한 상황 속에서 교회가 만난 여러 문제에 책임의식을 느끼며 교회의 영적 생명력을 회복하려는 노력이 나타난다. 먼저 독일의 루터파 정통주의 안에서는 요한 아른트(Johann Arndt, 1555 - 1621), 필립 슈페너(Philipp Jakob Spener, 1635-1705), 아우구스트 헤르만 프랑케(August Hermann Francke, 1663-1727), 니콜라스 진젠도르프(Nicholas Ludwig Zinzendorf, 1700-1760)를 중심으로 17세기부터 18세기 중반까지 경건주의 운동이 일어난다.³⁾ 18세기 중반 미국에서는 청교도의 신앙을 계승한 조나단 에드워즈(Jonathan Edwards, 1703-1758)를 중심으로 제1차 미국 영적대각성운동이 발생한다. 비슷한 시기에 영국에서는 조지 휘트필드(George Whitefield, 1714-1770)와 요한 웨슬리(John Wesley, 1705-1791)를 중심으로 영국 복음주의 대부흥운동이 일어난다. 이러한 일련의 사건들은 교회의 영적 갱신과 회복을 불러왔고 결과적으로 무너져 가던 유럽과 미국의 기독교는 다시 극적으로 회생하게 된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한 가지 사실은 경건주의와 대부흥운동이 불러온 영적 각성의 영향이 교회의 울타리를 넘어 사회개혁으로 이어졌고 궁극적으로는 해외 선교로 열매를 맺게 되었다는 것이다. 가령 영국의 대부흥운동은 웨슬리를 중심으로 악습 철폐, 문맹 퇴치, 학교 설립, 노예 해방, 여성 인권 향상 등 사회 전반에 걸쳐 복음의 본질을 사회 속에서 구현하려는 근대 사회개혁 운동을 일으켰고 이는 윌리엄 윌버포스(William Wilberforce, 1759-1833)에 의한 영국의 노예제도 폐지와 같은 구체적인 사회변혁의 결실을 보게 하였다. 마찬가지로, 독일 경건주의를 통한 영적 개혁은 경건주의의 요람이었던 할레대학과 진젠도르프가 사역했던 모라비안 공동체를 중심으로 근대 해외 선교의 포문을 열게 되는데, 18세기 동안 할레대학과 모라비안 공동체는 각각 60명과 226명의 해외선교사를 파송하는 전례 없는 선교 사역의 성과를 얻게 되었다.⁴⁾

2) 이성의 능력과 역할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이러한 새로운 철학적 경향은 당시 유럽을 지배하고 있던 계시 중심의 기독교 사상의 한계를 넘어 이성의 합리적 사용이 인류에게 새로운 빛을 준다고 약속했다는 점에서 ‘Enlightenment’ 즉, ‘계몽주의(啓蒙主義)’로 불린다.

3) 비슷한 시기에 개혁파 정통주의에서도 경건주의 운동이 일어나는데 대표적인 실례는 화란에서 나더러 레포르마치(Nadere Reformatie)라고 불리는 제2의 종교개혁운동이다. 히스베르투스 푸치우스(Gisbertus Voetius, 1589 - 1676)와 빌헬무스 아 브라켈(Wilhelmus à Brakel, 1635 - 1711) 같은 인물들에 의해 주도된 이 운동은 개혁파 경건주의 운동이라고 불린다.

4) 특히, 1706년 덴마크 국왕인 프리드리히 4세(Friedrich IV)의 도움으로 할레대학에서 시작된 덴마크-할레 선교회(Danish-Halle Mission)는 독일 개신교 역사상 최초로 해외선교를 위해 세워진 선교회로 플뤼차우(Heinrich Plütschau, 1677-1746)와 치겐발크(Bartholomäus Ziegenbalg, 1683-1719)를 남인도의 동해안에 있는 트란케바(Tranquebar)에 파송하기에 이르는 데 이 또한 독일 경건주의의 열매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인간의 이성을 중시하며, 합리성과 세속성을 특징으로 하는 계몽주의의 영향은 정통 기독교 안에서 결국 새로운 사상의 흐름을 만들어내는데, 그것은 바로 소위 자유주의 신학의 등장이다. 당시 자유주의 신학이 유럽에서 태동하는 데는 크게 두 가지 원인이 있었다. 첫째, 이성을 강조하는 합리주의 철학자들의 영향으로 이성은 더이상 신학의 보조적인 위치가 아닌 계시와 동등한 ‘신학의 인식원리’(principum cognoscendi theologiae)가 되었고, 나중에는 더 나아가 계시보다 우월한 위치에서 계시를 판단하게 되었다. 그 결과 인간의 이성과 합리성으로 성경을 판단하여 삼위일체 및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과 유일성과 같은 기독교의 주요 도그마와 성경에 나오는 여러 기적을 부인하기까지 이른다. 둘째, 독일 경건주의의 영향 속에 당시 교계에는 교리보다는 믿음의 실천과 개인의 체험이 중요하다는 생각이 자리 잡게 되었다. 이러한 경향은 죽은 정통주의의 문제였던 행함과 체험이 결여된 지식적 신앙을 극복하는 데에는 도움이 되었지만, 정통교리를 등한시하고 지나치게 개인의 영적 체험과 실천만을 중시하는 또 다른 극단으로 흐르는 부작용을 낳게 되었다.⁵⁾ 그 결과 교리는 뒷전이 되고 체험과 실천만 강조하다 보니 당시 교계는 계몽주의의 사상적 도전을 극복하지 못하고 자연스럽게 인본주의적인 자유주의 신학에 문을 열어주게 되었다. 프랑케가 사역한 경건주의의 요람이었던 할레대학이 그 대표적인 경우였는데 ‘자유주의 신학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프리드리히 쉐라이어마허(Friedrich D. E. Schleiermacher, 1768-1834)가 이 대학 출신이라는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더불어 1917년 월터 라우센부쉬(Walter Rausenbusch, 1861-1918)는 『사회복음을 위한 신학』(A Theology for the Social Gospel)을 출간하여 19세기 후반부터 등장하기 시작했던 사회 복음주의 운동의 신학적 기초를 세웠다. 그는 이 책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와의 개인적인 관계를 중시하는 전통적인 복음에 대한 이해와는 달리 사회의 구조적인 죄악을 제거하여 인간을 각종 억압과 착취로부터 해방시킴으로써 인간 사회를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시키는 것이 예수님 가르침의 요지요 복음의 핵심이라고 주장하였다.

2. 근본주의 운동의 태동과 신정통주의의 등장

급기야는 이러한 자유주의의 도전에 대한 반작용으로 ‘기독교 근본주의’(Christian Fundamentalism)가 태동하게 된다. 그 시작은 1909년부터 1915년 사이 캘리포니아의 밀턴 스투어트(Milton Stewart)가 중심이 되어 당시 교계에 팽배해 있던 세속주의와 자유주의를 대항하여 기독교의 근본적인 진리들을 수호하려는 의도로 『근본원리들』(The Fundamentals)이라는 책을 출간한 것에 있었다. 이 저술은 기독교 신앙의 핵심내용과 관련된 5개 주제를 다루고 있는 12권의 책 모음으로 당시 수백만 권이 배포되어 미국 교회가 자유주의의 영향을 극복하는 데 상당한 공헌을 하였다. 그런데 이러한 일련의 흐름 가운데 기독교가 갖게 된 가장 큰 손실은 기독교 근본주의가 당시 자유주의 신학이 관심을 가지고 강조한 사회개혁 사상에 강한 반감을 갖게 된 점이다. 더 큰 문제는 기독교 근본주의 운동이 처음의 선한 의도와는 다르게 신앙 운동보다는 문화적 고정주의 내지는 ‘반문화 운동’(Counter-Cultural Movement)으로 변질해 가는 것에 있었다. 쉽게 말해, 신앙의 정통성을 지킨다는 명분 아래

5) 예를 들어 16세기 종교개혁가들이 강조했던 교리교육이나 교리설교 같은 사역들이 독일 경건주의의 영향 속에 점차 교회에서 자취를 감추기 시작했다.

교회를 세상과 극단적으로 분리시키고 결과적으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인 교회의 구실을 후퇴시켜 버린 오점이 있다.

한편 기독교 개신교는 18-20세기에 나타난 다양한 시대적 도전과 위협에도 불구하고 선교의 영역에서는 커다란 진보와 부흥의 시기를 경험하고 있었다. 하지만 20세기 초부터 사회의 각종 부조리와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의 문제, 그리고 제국주의적 선교에 대한 내부적 비판에 대해서는 균형 잡힌 소리를 내지 못하는 한계점도 보였다. 게다가 인본주의 사상으로 말미암은 세속화가 전 세계에 빠르게 확산되고, 동시에 인류 전체에 커다란 상처와 숙제를 남겨준 두 번의 세계 대전이 일어나게 된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태동한 것이 바로 신정통주의(Neo-Orthodoxy)다. 1차 세계 대전 직후인 1919년 칼 바르트(Karl Barth, 1886-1968)가 『로마서 주석』(Der Römerbrief)을 출간함으로써 시작된 신정통주의는 과거의 개신교 정통주의와 자유주의 사이에서 방황하고 있었던 개신교 기독교인들에게 큰 영향력을 미쳤다. 그러나 곧이어 발발한 2차 세계 대전의 후유증으로 미래에 대한 불투명함, 악의 문제에 방관하시는 듯한 하나님 존재에 대한 의심과 부정, 인간 실존의 상실감 등이 사회 전반에 팽배해져 기독교는 다시 한번 큰 혼란을 겪는다.

3. 종교 다원주의적 신학과 선교의 등장

1932년 하버드 대학에서 강의하던 윌리엄 호킹(William E. Hocking, 1873-1966)은 “선교의 재고(Rethinking Missions)”라는 연구보고서를 통해 중국의 유교는 그 나름대로 가치가 있고, 인도의 힌두교는 힌두교대로, 일본의 신도는 신도 나름의 가치가 있기 때문에 선교사를 파송할 필요가 없다는 종교 다원주의적 주장을 펼쳤는데, 이것은 당시 선교 현장과 파송 교회들에 엄청난 파장을 가져왔다.

4. 진보적 성향의 에큐메니컬 운동 WCC의 결성

1948년 네덜란드의 암스테르담에서 “세계교회협의회”(World Council of Churches, WCC)가 결성되었다. WCC는 선교를 위해 교회 연합 운동을 주창하며 사회참여와 세상의 소리에는 민감하게 반응했지만, 복음의 본질을 잃어버리고 종교 다원주의를 넘어서 혼합주의의 위험성까지 보이게 되었다. 그런데 밀라드 에릭슨(Millard J. Erickson, 1932~)이 그의 저서 『신복음주의적 신학』(The New Evangelical Theology, 1968)에서 지적한 것처럼 이러한 자유주의의 도전과 진보주의 성향의 WCC 운동의 물결에 맞서 기독교 근본주의는 전혀 대안이 되지 못하고 있었다. 오히려 기독교 근본주의는 사회적 부적응자로 낙인찍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고, 반쪽짜리 복음만을 붙든 채 대 사회적 영향력을 상실하고 있었다.

5. 신복음주의(New Evangelicalism)의 탄생

이러한 위기감 속에서 제2차 세계 대전이 한참이던 1942년 4월에 극단적 근본주의에 반대하는 보수 개신교인 147명이, “전미복음주의협회”(National Association of Evangelicals, NAE)를 결성했다. 칼 헨리(Carl F. H. Henry, 1913-2003)의 표현처럼 “진보적 근본주의”(Progressive Fundamentalism)라 할 수 있는 이들은 소위

말하는 ‘신복음주의(New Evangelicalism)’를 표방하였고 이 운동의 중심에는 해럴드 옥켄가(Harold Ockenga, 1905-1985)가 있었다. “전미복음주의협회”가 설립된 지 5년 후인 1947년에는 신복음주의 신학을 기반으로 한 풀러 신학교(Fuller Theological Seminary)가 설립되고 옥켄가가 초대 총장을 맡게 된다. 풀러 신학교의 설립은 새로운 복음주의 운동의 실제적 탄생을 알리는 사건으로 앞으로 미국 복음주의 운동의 막후 역할을 하는 칼 헨리도 풀러 신학교의 교수로 참여하게 된다.

같은 해인 1947년 칼 헨리의 역사적인 작품인 『복음주의자의 불편한 양심』(The Uneasy Conscience of Modern Fundamentalism)이 출간되는데 이 책은 당시 근본주의의 반사회적이고 반지성적인 자폐성에 대한 자성, 복음주의의 사회참여, 그리고 시대적 지성의 필요에 대한 간절한 외침을 담고 있다. 1955년에는 빌리 그래함(Billy Graham, 1918-2018)을 중심으로 『크리스채너티 투데이』(Christianity Today)가 탄생하는데 칼 헨리가 초대 편집장을 맡았고 새로운 복음주의의 기반을 마련하는 데 큰 공헌을 하게 된다.

6. 로잔운동(Lausanne Movement)의 시대적 필요성

“이 세대 안에 세계 복음화”라는 구호 아래 1910년 존 모트(John R. Mott, 1865-1955)를 중심으로 스코틀랜드에서 열린 ‘에든버러 세계선교대회’(World Missionary Conference, WMC)를 시작으로 에큐메니컬 선교가 활발하게 전개되었다. 급기야 1921년에는 존 모트, 조셉 올드햄(Joseph H. Oldham, 1874-1969), 윌리엄 템플(William Temple, 1881-1944)을 중심으로 ‘국제선교협의회’(International Missionary Council, IMC)가 결성되어 에큐메니컬 운동에 더욱 박차를 가하게 되었다. 그러나 1961년 국제선교협의회는 1948년에 결성된 WCC에 흡수되었고 그 후 WCC의 선교는 급진적 자유주의들의 영향으로 말미암아 ‘선교의 세속화, 선교의 인간화, 선교의 모라토리엄’을 주장하며 복음적 선교의 열정을 잃어버리고 말았다.

동시에 1960년대는 공산주의가 팽창하여 동서 냉전의 시대를 맞이하였고, 민족주의의 발흥에 힘입어 자국의 토착 종교도 다시금 부흥하였다. 이러한 상황으로 말미암아 선교의 영역은 점차 줄어들고, 사회의 세속화는 더욱 심화 되어 갔으며, 선교의 부흥은 식어가는 가운데 선교에 대한 위기감이 고조되었다. 급기야 1973년 방콕 대회에서 WCC는 “구원이란 인권에 대한 정치적 억압에 항거하여 인간의 존엄성을 위해서 투쟁하는 것이며, 구원이란 개인의 삶 속에 도사리고 있는 절망에 항거하여 희망을 불러일으키기 위해서 투쟁하는 것이다”라는 정의를 내리기에 이르렀다.

이러한 위기 속에서 복음주의자들은 빌리 그래함을 중심으로 1966년 4월 ‘시카고 휘튼 세계선교대회’(The Congress on the Church’s Worldwide Mission, Wheaton)를 열고, 같은 해 ‘베를린 세계전도대회’(The World Congress on Evangelism, Berlin)를 개최한다. 특히 휘튼 대회에서는 기존 교회가 복음의 본질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고, 사회의 아픔을 외면한 채, 자유주의와 근본주의를 양산한 책임을 통감하고, 회개하는 시간을 가지게 되었다. 이런 일련의 상황과 사건들이 바로 1974년 스위스 로잔에서 전 세계 복음주의 운동이 일어나는 배경이 되었다.

7. 현재 우리의 복음주의는 어디에 서 있는가?

복음주의의 교리적 핵심은 무엇인가? 복음주의를 표방하는 사람들은 서로 간의 신학적인 차이를 어디까지 용납할 수 있는가? 복음주의는 무엇을 믿고, 어떤 영향력을 미쳐야 하는가? 이러한 질문들은 복음주의의 성격을 규명하기 위해서 답해야 하는 중요한 요소다. 다음 네 저자의 책은 복음주의가 걸어온 길과 더불어 복음주의의 흑역사 그리고 무엇을 붙들고 회복해야 하는지 복음주의의 미래에 대하여 방향을 제시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 역서들이다.

1947, 『복음주의자의 불편한 양심』 (The Uneasy Conscience of Modern Fundamentalism) 칼 헨리(Carl F. H. Henry)⁶⁾

1994, 『복음주의 지성의 스캔들』 (The Scandal of the Evangelical Mind), 마크 놀(Mark A. Noll)⁷⁾

1995, Alister McGrath, 『복음주의와 기독교의 미래』 (Evangelicalism and the Future of Christianity).⁸⁾

2005, 『복음주의 정치 스캔들』 (The Scandal of Evangelical Politics), 로날드 사이더(Ronald J. Sider)⁹⁾

이상의 책들에서 네 명의 저자들은 서로 조금씩 다른 역사적, 신학적, 사회학적 관점을 가지고 복음주의를 논하고 있지만, 이들 모두가 동의하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다. 그것은 바로 20세기 초중반에 성경적 가치를 추구하는 기독교가 복음의 중요한 요소인 사회 참여에 대한 부분을 잃어버렸다는 점이다.

존 스토틀 역시 1940년대 이후 사회 참여의 문제로 인해 보수주의와 진보주의 사이의 분열이 더욱 심화되고 이러한 현상이 1960년대와 1970년대까지 이어지는 것을 보며 다음과 같이 양 진영에 대해 매우 균형 있고 의미심장한 비평을 한다.

“오늘날의 교회들 간에 중요한 두 신학적 그룹들 사이에서 내가 드러내 보인 그 대립이 내게는 우리 시대의 가장 큰 비극들 중 하나로 생각된다. 한편으로 보수주의자들은 성경적이나 현대적이지 못하고, 다른 한편으로 자유주의자들과 급진주의자들은 현대적이나 성경적이지 못하다. 도대체 우리는 왜 이같이 고지식한 태도로 양극화되어야만 하는가? 양편 모두 그 나름대로의 정당한 관심사를 갖고 있다. 한쪽 편은 하나님의 계시를 보존하는데 관심을 갖고 있고, 다른 한쪽 편은 하나님의 계시를 현실 세계에 살고 있는 현실적인 사람들에게 의미 있게 관련시키는데 관심을 갖고 있다... 자유주의자들은 보수주의자들로부터 역사적이며 성경적인 기독교의 원칙들을 보존할 필요성을 배우는 것이 불가능한가? 또한 보수주의자들은 자유주의자들로부터 그 원칙들을 현실 세계에 철저하고도 적절하게 관련시켜야 할 중요성을 배워 깨달을 수는 없는가? 그동안 이 두 그룹은 깊은 문화적인 단절 속에서 각각 자기 쪽에만 머무른 채 어느 쪽도 다리를 놓으려고 시도하지 않았던 것 같다... 우리는 하나님께

6) Carl F. H. Henry, *The Uneasy Conscience of Modern Fundamentalism*, 박세혁 역, 『복음주의자의 불편한 양심』 (서울: 생명의 말씀사, 2009).

7) Mark A. Noll, *The Scandal of the Evangelical Mind*, 박세혁 역 『복음주의 지성의 스캔들』 (서울: IVP, 2010).

8) Alister E. McGrath, *Evangelicalism and the Future of Christianity*, 정성욱 역, 『복음주의와 기독교의 미래』 (서울: IVP, 2018).

9) Ronald J. Sider, *The Scandal of Evangelical Politics*, 김성겸 역, 『복음주의 정치 스캔들』 (서울: 홍성사, 2010).

서 이 심연에 다리를 놓고자 결심하는 기독교 전달자들의 새로운 세대를 일으켜 주시기를 계속해서 기도해야 한다.”¹⁰⁾

8. WHY 로잔운동(Lausanne Movement)인가?

한국 교회는 다른 관점을 가진 신학적인 차이에 집중하면서 계속 분열을 거듭하는 한 한국 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데 있어서 한계를 들어낼 수밖에 없다. 로잔운동은 교단을 통합하자는 이야기도 아니고, 각 교단과 단체가 가지고 있는 좋은 전통과 신학적인 장점을 포기하자는 이야기도 아니다. 로잔운동은 같은 성경을 믿는 개신교 기독교인으로서 적어도 우리가 따르는 예수님께서 보여 주신 복음의 핵심에 대한 동의가 필요하다는 것을 말하고자 한다. 연구자는 이러한 동의를 바탕으로 로잔운동을 통한 신복음주의 운동이 한국 교회에 일어나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온전한 복음주의 운동의 회복을 통하여 한국 사회를 살리고, 더 나아가 세계 선교 사명을 힘있게 감당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WCC와 로잔운동 사이에 존재하는 큰 차이점 중의 하나는, WCC는 에큐메니컬 정신으로 교회 연합의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포괄적인 방법을 사용하여 다양한 신학을 받아들였지만, 로잔운동은 교회들을 연합하는 방법으로 성경적인 복음의 일치를 추구하고자 노력하였다는 점이다.

스위스 로잔언약의 입안자인 존 스토틀은 성경적인 복음의 일치를 추구하는 방법으로 무엇보다 성경이 제시하는 원색적인 복음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정의하는 데 심혈을 기울였다. 이를 위해 존 스토틀이 제기한 질문은 다음과 같다. 복음이란 무엇인가? 전도란 무엇인가? 회심의 정의는 무엇인가? 구원은 어떻게 받으며 어떻게 일어나는가? 선교의 정의는 전도와 어떻게 다른가? 이와 더불어 존 스토틀은 이 복음의 성경적 가치들을 어떻게 세상 한복판에 적용할지를 끊임없이 고민하고, 치열하게 실행했다.

존 스토틀의 이러한 노력은 1974년 로잔 대회에 큰 기여를 했는데, 150개국 135개 교단 2,473명의 공식적 참가 인원 중에, 천 명이 넘는 인원이 제3세계 참가자들이었고, 절반 가까운 참가자들이 45세 이하의 젊은 리더들이었다. 로잔 대회를 준비하며 온전한 성경적 복음주의를 회복하자는 노력이 그동안 극단적인 근본주의나 비 성경적인 자유주의의 심화로 소망을 잃고 있었던 비서구권과 젊은 복음주의자들에게도 크게 감명을 준 것이다. 로잔운동은 성경적인 가치관을 회복하는 “복음 회복 운동”이다. 따라서 로잔운동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로잔운동이 추구하는 언약에 담긴 복음주의가 무엇인가를 알아야 한다.

9. 복음주의는 무엇을 믿는가?

존 스토틀은 1974년 로잔과 1989년 마닐라 대회에서 만든 로잔언약(Lausanne Covenant)의 주요 입안자이다. 로잔언약의 배경을 잘 알기 위해서는 1975년에 편찬한 『선교란 무엇인가』(Christian Mission in the

10) John R. W. Stott, *Between Two Worlds*, 정성구 역, 『현대교회와 설교』 (서울: 생명의 샘, 2010), 224-225.

Modern World)라는 책과 새천년을 앞둔 1999년에 저술한 『복음주의의 기본진리』(Evangelical Truth)라는 책을 필독해야 한다.¹¹⁾ 다음의 내용은 두 책을 직간접적으로 인용하고 요약한 것이다.

존 스토틀의 저작을 통해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한 가지 인상 깊은 사실은 그는 평생 그가 무엇을 믿는가에 대한 고민을 쉬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가 진리를 발견하지 못해서가 아니라, 변화하는 세상 속에 변하지 않는 진리를 끝까지 붙들고자 몸부림친 것이다. 현대 복음주의는 그 결과물들로 인해 큰 유익을 누리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존 스토틀는 복음주의를 이야기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복음주의는 무엇을 믿는가’라는 문제를 다루는 것에 집중한다. 특히 1999년에 쓴 『복음주의의 기본진리』에서 그는 복음주의의 역사적 연속성을 주장하고 10가지 범주를 통해 복음주의와 근본주의의 차이점이 무엇인지를 설명한다. 다음으로는 로잔 대회가 열린 다음 해인 1975년 독일의 복음주의 선교학자인 피터 바이어하우스(Peter Beyerhaus, 1929-2020)가 발표한 복음주의의 6가지 범주를 소개한다.

- 1) The New Evangelicals(신복음주의자): 빌리 그래함과 같은 신복음주의자들은 근본주의자들의 과학 공포증과 정치적 보수주의자들로부터 거리를 두고 있으며, 다른 신학적 입장을 가진 사람들과도 최대한 협력하기 위해 노력한다.
- 2) The Strict Fundamentalists(엄격한 근본주의자): 분리주의적 입장 속에서 일체의 신학적 그리고 신앙적 타협을 불허한다.
- 3) The Confessing Evangelicals(고백과 복음주의자): 전통적 신앙고백을 중요시하며 현대의 교리적 오류를 거부하는 것에 더 큰 강조점을 둔다.
- 4) The Pentecostals and the Charismatics(오순절 주의자와 은사 주의자)
- 5) The Radical Evangelicals(급진적 복음주의자): 교회의 사회정치적인 참여를 중요시하며 복음 전도와 사회적 행동을 통합시키기 위해서 노력한다.
- 6) The Ecumenical Evangelicals(에큐메니컬 복음주의자): 교회 연합 운동에 참여하여 교회의 일치와 연합을 추구한다.

존 스토틀는 제임스 패커의 복음주의의 6가지 근본 진리에 관해서도 소개한다.¹²⁾

11) John R. W. Stott & Christopher Wright, *Christian Mission in the Modern World*, 김명희 역, 『선교란 무엇인가』(서울: IVP, 2018). John R. W. Stott, *Evangelical Truth: A Personal Plea for Unity, Integrity, and Faithfulness*, 김현희 역, 『복음주의의 기본진리』(서울: IVP, 2002).

12) Alister E. McGrath, *Evangelicalism and the Future of Christianity*, 정성욱 역, 『복음주의와 기독교의 미래』(서울: IVP, 2018), 66-67.

- 1) The supremacy of Holy Scripture: 성경의 최고의 권위(독특한 계시로 인해)
- 2) The majesty of Jesus Christ: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심(인간의 죄로 인해 희생 제물로 돌아가신 신인)
- 3) The Lordship of the Holy Spirit: 성령의 주되심(여러 중요한 사역을 행하시는 분)
- 4) The necessity of conversion: 회심의 필요성(하나님과의 직접적인 만남을 통해 하나님에 의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는)
- 5) The priority of evangelism: 전도의 우선성(예배의 표현으로서의 복음증거)
- 6) The importance of fellowship: 교제의 중요성(본질적으로 신자들의 살아있는 공동체로서의 교회)

존 스토틀은 영국의 저명한 역사학자인 데이비드 베빙턴(David W. Bebbington)의 *Evangelicalism in Modern Britain: A History from the 1730s to the 1980s* 라는 책에서 베빙턴이 제시한 복음주의의 네 가지 특징, 즉 복음주의의 네 가지 강령에 관해서도 소개한다.

- 1) Conversionism: 회심주의(삶이 근본적으로 변화되어야 한다는 확신)
- 2) Activism: 행동주의(복음을 실제의 삶 속에서 표현하고자 노력하는 주의)
- 3) Biblicism: 성경주의(성경을 유일한 권위로 여기는 주의)
- 4) Crucicentrism: 십자가 중심주의(그리스도의 십자가 희생을 강조하는 주의)

존 스토틀은 제임스 팩커와 데이비드 베빙턴이 제시한 특징들을 분석하면서 기독교가 2천 년을 거처오면서 여러 상황에 의해 재구성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성경, 십자가, 전도, 회심과 같은 변치 않는 공통적인 핵심 주제들이 있다는 것을 강조한다. 추가로 존 스토틀은 이야기하지 않았지만, 그가 생전에 주목했던 학자인 데이비드 웰스(David Wells)가 정의한 복음주의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 1) 성경을 정확 무오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다.
- 2)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만 구원을 받는다.
- 3) 회심은 십자가를 믿는 것을 통해 일어난다.
- 4) 복음의 대 사회적 영향력을 강조한다.

10. 존 스토틀의 삼위일체적 복음(John Stott's Trinitarian Gospel)

존 스토틀은 복음주의에 대한 다양한 정의가 있지만, 그 모든 정의는 이 복음을 만드시고, 제시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삼위일체 하나님께 국한 시킬 때 상당한 명료성을 갖게 된다고 주장한다. 즉 복음주의가 추구하는 복음에 대한 모든 정의는 다음에 속하게 된다는 것이다.

- 1) The revealing initiative of God the Father(성부 하나님의 계시하시는 주도권)
- 2) The redeeming work of God the Son(성자 하나님의 구속하시는 사역)
- 3) The transforming ministry of God the Holy Spirit(성령 하나님의 변화시키는 사역)

존 스토트는 고린도전서 2장 1-5절에 이 세 가지 요소가 있음을 예로 들어 설명한다.¹³⁾

1) The Origin of the Gospel(복음의 기원): 복음은 어디로부터 오는가?

복음은 인간이 고안했거나 추론해 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것이다. 그것은 “인간의 지혜”(고전 1:17)나 “이 세상의 지혜”(고전 1:20; 2:6과 비교)가 아니다. 바울은 이와는 반대로 복음을 “하나님의 지혜”(고전 1:24; 2:7)라고 부른다.

2) The Substance of the Gospel(복음의 실체): 복음은 무엇으로 이루어지는가?

세상의 관점으로 볼 때 복음은 지혜롭지 못하고 미련해 보이고 연약해 보인다. 복음은 인간에게 아첨하지 않는다. 그것은 우리에게 자랑할 수 있는 어떤 것도 제공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은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렇다면 이것들은 어디서 발견되는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안에서만 발견될 수 있다(고전 2:2).

*** Six aspects of the gospel (복음의 6가지 측면)

- ① The gospel is Christological(기독교론적):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 중심 메시지가 아니라면 진정한 복음은 전해지지 않는다.
- ② The gospel is biblical(성경적):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은 구약 성경의 예언의 성취이다.
- ③ The gospel is historical(역사적): 살아나고 변화된 것은 예수님의 몸이며, 부활은 삼일 만에 일어난 역사적 사건이다.
- ④ The gospel is theological(신학적):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해 죽으신 것이다. 죄는 우리의 것인데, 죽음은 그분의 것이었다.
- ⑤ The gospel is apostolic(사도적): 복음의 사건은 사도들에게 전해졌으며 교회를 통해 모든 세대 사이에 존재하는 신앙의 통일성을 보여준다.
- ⑥ The gospel is personal(개인적): 그리스도의 부활과 죽음은 단순히 역사나 신학이 아니라 개인적인 구원의 길이다.

3) The Efficacy of the Gospel(복음의 유효성): 복음은 어떻게 유효성을 발휘하는가?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바울은 철학과 수사학을 모두 포기했다. 철학 대신에 그는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을 전했고, 수사학 대신에 성령을 의지했다. 오히려 그는 개인적인 ‘약함과 두려움과 떨림’으로 인해 성령의 능력의 “나타남”을 간구했다.

13) [개역개정] 1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2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 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3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4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 5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 존 스토틀가 이해하는 복음

1) 복음의 기원, 내용, 유효성

“복음의 기원은 인간의 이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시이고, 그 내용은 세상의 지혜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십자가이며, 그 효능은 수사학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에 달려 있다. 따라서 복음은 하나님으로부터 오고,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를 중심으로 하며 성령에 의해 확증된다.”¹⁴⁾

2)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성

“우리 복음주의자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행하신 것의 궁극성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 두 진리를 확고히 붙잡고자 한다. 우리는 하나님이 그분 자신의 성육신 하신 아들 안에서 계시하신 것보다 더 높은 진리가 계시될 수 있다고 결코 생각할 수 없다. 또한 우리의 구원을 위해 십자가에 그 어떤 것이 추가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도 결코 생각할 수 없다.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된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 자신의 말을 추가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신분과 사역의 고유한 영광에 심각한 모욕이 될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하시고, 행하신 것에 온전히 만족한다.”¹⁵⁾

3) 복음주의의 핵심 진리: 하팍스와 말론사이의 결합

“...오히려 우리는 계속해서 자라가야 한다. 우리의 정의는 ‘하팍스(단번에)’이지만, 성화는 ‘말론(더욱더)’이기 때문이다. 복음주의의 핵심 진리는 ‘하팍스’와 ‘말론’이라는 두 부사의 결합으로 모두 요약할 수 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그리스도에 관한 성경의 증거를 포함해서) 안에서 자신을 계시하시고 그 계시를 교회에 의탁하심으로써 단번에(하팍스) 말씀하셨다. 하지만 우리의 책임은 그분이 계시하신 것을 더욱 깊이(말론) 알아가는 것이다.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그분의 아들을 보내어 우리를 위해 죽게 하심으로써 그리스도 안에서(하팍스) 행하셨다. 하지만 우리의 책임은 그분의 죽음의 효력 안에 더욱 온전히(말론) 속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하팍스) 주신 것은 온전한 것이기 때문에 더 주실 필요가 없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사를 더욱 온전히(말론) 사용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에게 힘주심에 따라 우리는 더 많은 것을 받아야 한다.”¹⁶⁾

IV. 로잔운동의 의의

1. 시대의 요구에서 시작된 복음주의 운동

1960년대 자유주의와 근본주의가 극렬히 대치하는 상황에서 빌리 그레함, 존 스토틀, 칼 헨리 같은 지도자들은 복음주의 운동의 정체성을 온전히 찾고자 1966년 4월 ‘시카고 휘튼 세계선교대회’(The Congress on the Church’s Worldwide Mission, Wheaton)를 열고, 같은 해 연차적으로 ‘베를린 세계전도대회’(The World Congress on Evangelism, Berlin)를 개최한다. 당시 대회장은 빌리 그레함 목사였고 한국의 한경직 목사가 폐회 예배 설교를 했고 사무엘 모펏(Samuel Hugh Moffett, 1916 - 2015, 마삼락)목사가 행사 서기를 맡았다.

14) Stott, 『복음주의의 기본진리』, 41.

15) Stott, 『복음주의의 기본진리』, 43.

16) Stott, 『복음주의의 기본진리』, 46.

당시 로잔 대회를 준비하던 빌리 그래함 목사는 1973년 한국을 방문하여 여의도에서 대형 전도 집회를 하였다. 1974년에는 스위스 로잔에서 로잔대회가 열리는데 이 대회를 주도한 두 리더는 빌리 그래함과 존 스토틀였다. 그리고 이 역사적 복음주의 대회에 한국을 대표하는 조종남, 한철하, 김옥길, 노봉린, 조동진 박사님 등 70여 명이 참석하였고, 한국 교회의 복음화에도 지대한 영향을 주었다.

2. 복음주의 연합 운동의 모체

로잔운동은 전 세계 복음주의자들의 연합 운동이라 할 수 있다. 1974년에 열린 스위스 로잔대회에는 미국의 대중 부흥사 빌리 그래함, 영국의 복음주의자 존 스토틀, 신복음주의 운동의 기수 칼 헨리, 복음주의 변증가 프란시스 쉐퍼, 독일 선교학자 피터 바이어하우스(1989년 마닐라)와 미국의 선교학자인 랄프 윈터 등 보수적이거나 변혁적인 복음주의자들이 주도했다.

동시에 로잔대회는 특별히 사회적 관심을 열정적으로 호소하는 미국의 로날드 사이더를 비롯해, 남미의 신학자들도 대거 참여했다. 에콰도르의 르네 빠디아(스페인어로 통밀에서 통합적인 개념을 ‘Integral’이라는 통전적인 선교로 발전시킨 인물), 페루의 사무엘 에스코바, 푸에르토리코의 올랜도 E. 코스타스(Orlando E. Costas), 인도의 Vinay 사무엘 등이 어깨를 나란히 했다.

20세기 서구에서는 자유주의와 근본주의의 첨예한 대립의 상황들이 이어졌지만, 남미에서는 독재에 억눌린 비참한 상황들 가운데 해방신학이 등장하게 된다. 이러한 여러 신학적, 정치적, 사회적 갈등 속에서 어떻게 하면 성경적인 가치관을 다시 회복하는 균형 잡힌 복음주의가 필요할까라는 것에 대한 목마름은 결국 다양한 교단의 리더들과 젊은 복음주의자들을 하나로 연합하는 계기가 되었다.

3. 기독교 중심 진리로서의 복음주의 운동

교단의 분열은 신학적 차이에서 오기도 하고, 상황을 바라보는 성경적 가치관의 차이에서 오기도 한다. 분열된 교단을 통합하는 일은 쉽지 않지만, 차이점을 가지고 첨예하게 대립하는 것을 내려놓고, 서로가 동의하는 기독교 중심 진리가 무엇인지를 발견한다면, 이는 선교를 위해서 다시 연합할 수 있게 하는 중요한 계기가 된다는 것이 역사적으로 로잔운동을 통해서 증명되었다.

로잔운동은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 주신 복음의 유일성을 지속적으로 강조하는 동시에 복음 전도와 그리스도인의 사회적 책임을 균형 있게 제시한 선교 운동을 보여 주고자 노력해 왔다. WCC와 로잔운동 사이에 존재하는 차이점은 WCC는 교회 연합에 주안점을 둔 나머지 교리적 경계를 허물며 종교 다원주의로 향한 반면, 로잔운동은 교회와 단체를 연결하는 방법으로 성경적 복음의 일치, 교리적 일치를 추구했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WCC는 복음 전도보다 사회의 정의, 환경 보호, 난민 문제 등 지엽적인 사회 문제를 교회 일치의 도구로 사용했지만, 로잔운동은 복음의 우월성, 복음의 우선성, 복음의 유일성으로 교회를 하나 되게 하는 동시에, 그것을 변하지 않는 근본으로 삼아 그리스도인의 사회참여를 균형 있게 발전시켰다는 점이다. 그런 의미에서 로잔운동은 성경적인

가치관을 회복하는 ‘복음 회복 운동’이라 정의할 수 있겠으며, 동시에 그런 복음 중심 진리를 언약서에 담은 복음 문서 운동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4. 세계 선교의 현주소와 복음주의 운동

현재 세계 선교의 흐름은 북반구 선교에서 남반구 선교로, 서방 선교 위주에서 제3세계 선교로 그 역할과 중심이 바뀌어 가고 있다. 1950, 1960년대에 WCC를 중심으로 ‘선교의 모라토리엄’(Mission Moratorium-선교유예)이 퍼져 나갔다. 이제 선교는 자국의 그리스도인들에게 맡기자는 의미였다. 서구식 제국주의 선교가 거센 반발에 부딪치게 된 것이다. 아시아에서는 당시 영락교회를 시무하던 한경직 목사가 "아시아의 선교는 아시아가 책임지자"라는 비전을 선포한다. 긍정적이건 부정적이건 이런 영향 아래서, 로잔운동과도 연관이 되어 1974년 한국에 현재의 아시아 연합 신학 대학교가 설립되게 되었다.

로잔운동의 목적 중 하나는 성경적 복음주의를 정의하고, 복음 전도와 사회참여를 균형있게 강조하며, 이 두 가지를 포함하는 넓은 의미에서의 선교를 강조하는 것이었다. 이런 열매로 1974년 로잔 대회는 세계 복음화를 위한 전략을 모색하면서 세계 선교에 대한 방향을 제시했다. 특별히 선교학자 랄프 윈터는 선교를 고려할 때 세계를 ‘국가 단위에서 종족 단위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나님의 구속적 선교의 두 구조’(the Two structures of God’s redemptive Mission)라는 새로운 개념을 강조하면서, 이제 앞으로 20세기의 복음 선교는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했던 종족 단위로 가야 한다는 충격적 방향을 제시한다.

1989년 로잔 마닐라 대회 선언문의 초안을 작성한 존 스토틀트는 ‘기독교는 가장 성경적이면서도 가장 동시대적이어야 한다’는 메시지를 통해, 미전도 종족 선교와 현대 선교의 방향에 큰 힘을 불어넣어 주었다. 우리가 오늘날 영향을 받은 비즈니스를 통한 선교의 방식들도 로잔운동의 결과물들인데, 복음 운동이 어떻게 사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지 현대화한 선교의 전략들이다. 로잔 복음주의 운동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맡겨 주신 세계 선교와 아시아 선교의 선교적 사명을 감당하는 운동이다.

5. 복음주의를 통한 교회 회복 운동

복음주의의 핵심 진리는 무엇인가? 복음주의의 관심은 무엇인가? 복음주의의 최우선 가치는 무엇인가? 복음주의는 어떤 영향력을 미치길 원하는가? 복음주의의 성격을 규명하기 위해서 답해야 하는 중요한 질문들이다. 동시에 복음주의 운동은 결국 성경적인 바른 신학을 통하여 선교의 전초기지가 되는 지역 교회들을 회복시키는 데 힘써야 한다.

1974년도 처음으로 발표된 로잔 선언문에는 복음 전도와 선교를 행함에 있어서 교회의 역할이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다. 로잔언약 6항에 보면 “교회가 희생적으로 해야 할 일중에서 복음전도가 최우선이다”라고 설명하면서도, “이 소명은 그리스도가 하신 것 같이 세상 깊숙이 파고드는 희생적인 침투를 요구” 하며, “우리는 교회의 울타리를 헐고 비그리스도인 사회에 스며들어가야 한다”라고 주장한다.

1989년에 발표된 마닐라 선언에서는 제4항에서 복음과 사회적 책임에 대하여 좀 더 구체적으로 제시하면서 사회적 고통에 대하여 함께 동참하고 사회적 약자들에게 복음과 선행으로 다가갈 것을 촉구한다. 제8항에서는 이런 복음의 총체적인 모습들이 결국 지역 교회에서 감당해야 할 것임을 설명한다. 로잔운동은 복음의 유일성과 그 범위에 대하여 균형 있게 강조하면서 결국 그것을 감당해야 할 기관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세우신 교회임을 역설한다.

V. 2024년 로잔운동을 준비하며 우리가 추구해야 할 복음의 일곱 가지 영역

마지막으로 본 연구자는 로잔운동 50주년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들이 무엇인지를 제안하고자 한다. 이 제안은 서술형과 설명보다는 로잔 문서와 그 문서를 입안한 존 스토틀의 글들을 인용하는 것으로 대신 했다. 복음주의 운동을 이끌어 온 글들의 핵심 내용들을 살펴보면, 그 판단과 실천은 우리 각자의 몫이라는 생각에서다. 그러나 동시에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하나로 묶어 주시길 기도한다. 복음주의자들이 성경을 우리의 최고의 텍스트로 붙들고 있으면서, 변화하는 세상 속에서 우리가 끊임없이 추구해야 할 것들은 무엇인가?

1. The Essence (Substance) of the Gospel (복음의 본질)

존 스토틀는 복음의 본질에 대하여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의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는 우리에게도 첫 단어가 되어야 한다. 예수 그리스도는 복음의 핵심이요, 정수”라고 분명히 했다.¹⁷⁾

74 로잔언약 제3항 ‘그리스도의 유일성과 보편성’ 첫 문장

“우리는, 복음전도의 방법은 다양하지만 구세주는 오직 한 분이시며 복음도 오직 하나임을 확신한다.”

2. The Primacy and Supremacy of the Gospel (복음의 최우선성)

“내가 지금까지 이야기한 선교라는 단어는,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세상 속으로 보내셔서 하라고 하시는 모든 것을 아우르는, 상당히 포괄적인 단어다. 그러므로 선교는 전도와 사회적 책임을 포함한다. 둘 다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을 섬기려는 사랑의 진정한 표현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나는 우리가 ‘교회가 희생적으로 감당하는 선교 사역에서 전도(복음전도)는 최우선이다(로잔언약 제6항)’라는 로잔언약의 선언에 동의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리스도인은 어떤 식으로든 인간이 압제당하고 무시당할 때, 그들이 빼앗긴 것이 시민의 자유든, 인종에 대한 존중이든, 교육이든, 의료든, 고용이든, 충분한 의식주든 간에, 양심의 극심한 고통과 연민을 느껴야 한다. 인간의 존엄성을 손상시키는 것은 무엇이든 우리를 향한 모욕으로 여겨야 한다. 그러나 복음을 모르거나 거부하여 하나님으로부터 소외된 것만큼 인간 존엄성에 파괴적인 것이 있을까? 또 우리는 어떻게 정치적, 경제적 해방이

17) Stott & Wright, 『선교란 무엇인가』, 77.

영원한 구원만큼 똑같이 중요하다고 진지하게 주장할 수 있을까? 둘 다 그리스도인이 사랑으로 해야 할 일인 것은 분명하다. 하지만 바울이 동족 유대인들을 향한 염려를 침통하게 강조하며 편지를 썼을 때 한 말에 귀 기울여 보라(롬 9:1-3, 10:1-4).”¹⁸⁾

3. The Uniqueness (Exclusiveness) of the Gospel (복음의 유일성)

74 로잔언약 제3항 ‘그리스도의 유일성과 보편성’ 일부

“유일한 신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죄인을 위한 유일한 대속물로 자신을 주셨고,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유일한 중보자이시다. 예수님 외에 우리가 구원받을 다른 이름은 없다. 모든 사람은 죄로 인해 멸망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한 사람도 멸망하지 않고 모두가 회개할 것을 원하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를 거절하는 자는 구원의 기쁨을 거부하며 스스로를 정죄함으로써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히 분리된다.”

89 마닐라 선언 전반부 21개 항의 고백 중 7번 전체

“우리는 다른 종교나 이데올로기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또 다른 길이라고 볼 수 없으며,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속되지 않는다면 인간의 영성은 하나님께 이르는 것이 아니라 심판에 이른다는 것을 단언한다.”

89 마닐라 선언 후반부 12개 항의 주제 중 3번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성’ 일부

“우리를 연합시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공통된 믿음이다. 우리는 그분이 영원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한다. 그는 온전한 신성을 소유하시면서도 온전한 인간으로 오셨으며,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대신해 우리 죄를 지시고 우리의 죽음을 대신하셨고, 자신의 의를 우리의 불의와 바꾸시고, 변화된 몸으로 승리의 부활을 하셨으며, 세상을 심판하시기 위해 영광 중에 다시 오실 것이다. 예수님 만이 성육신 하신 유일한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구원자시요, 주님이시며 심판자이시다. 그러므로 그분은 성부와 성령과 함께 모든 사람들의 예배와 신앙과 순종의 대상이 되기에 합당한 분이다. 죽음과 부활로 인해 구원의 유일한 길이 되신 분은 오직 한 분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하나의 복음만이 있을 뿐이다.”

4. The Inclusiveness of the Gospel (복음의 포괄성)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롬 3:21-22)

18) Stott & Wright, 『선교란 무엇인가』, 69-70.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갈 3:28)

2010 케이프타운 서약 1부 제7항 ‘우리는 하나님의 세상을 사랑한다’ 중

B. ‘우리는 여러 나라와 문화가 공존하는 이 세계를 사랑한다.’ 일부

“모든 민족을 향한 우리의 사랑은 땅 위의 모든 나라들에게 복을 베푸신다는 하나님의 약속과, 자신을 위해 모든 족속과 언어와 나라와 민족을 모아 한 백성을 창조하시는 하나님의 선교를 반영한다. 우리는 하나님이 복 주시기 위해 선택하신 모든 것을 사랑해야 하며, 여기에는 모든 문화도 포함된다. 역사적으로 기독교 선교는 때로 문화를 파괴하는 심각한 실수를 범했지만, 대체로 토착문화와 언어를 보호하고 보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그러나 거룩한 사랑은 비판적인 분별을 포함한다. 모든 문화는 인간의 삶에서 드러나는 하나님 형상의 긍정적인 증거뿐 아니라 사탄과 죄의 부정적인 자취도 보여주기 때문이다. 우리는 복음이 모든 문화 속에 육화되고 스며들어 모든 문화를 안으로부터 구속하며, 그 문화들이 하나님의 영광과 그리스도의 충만함을 빛나게 하는 것을 보길 원한다. 우리는 모든 문화의 풍성함과 영광과 웅장함이 하나님의 도성으로 옮겨지기를, 그리하여 구속 받고 모든 죄로부터 정화되어 새로운 창조세계를 풍요롭게 하기를 고대한다. 모든 민족을 향한 이러한 사랑은 우리가 인종주의와 자민족 중심주의라는 악을 거부하고 창조와 구속 안에 나타난 그들의 가치에 근거하여 모든 종족과 문화를 존중하고 존경할 것을 요구한다.”

74 로잔언약 제10항 ‘복음 전도와 문화’ 중 일부

“문화는 항상 성경을 기준으로 검토되고 판단되어야 한다. 사람은 하나님의 피조물이기 때문에 인류 문화의 어떤 것은 매우 아름답고 선하다. 그러나 인간의 타락으로 인해 그 전부가 죄로 물들었고, 어떤 것은 악마적이기도 하다. 복음은 한 문화가 다른 어떤 문화보다 우월하다고 전제하지 않는다. 오히려 복음은 모든 문화를 그 자체의 진리와 정의의 표준으로 평가하고, 모든 문화에 있어서 도덕적 절대성을 주장한다. 지금까지의 선교는 복음과 함께 이국의 문화를 수출하는 일이 너무 많았고, 때로는 교회가 성경보다 문화에 속박되는 경우가 많았다. 그리스도의 복음 전도자는 다른 사람의 종이 되기 위해, 개인적인 순수성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서 겸손히 자신을 온전히 비우기를 힘써야 한다. 또한 교회는 문화를 변혁하고 풍요롭게 만들고자 애쓰되,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만 한다.”

5. The Radical of the Gospel (복음의 급진성)

2010 케이프타운 서약 2부 ‘우리가 섬기는 세상을 위하여: 케이프타운 행동 요청’ 중

두 번째 ‘분열되고 깨어진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평화를 이루기’ 일부

“복음이 상황에 깊이 뿌리내리지 않고, 이면의 불의한 세계관과 체제에 도전하고 이를 변혁하지 않는다면, 악

한 날이 올 때에 그리스도인의 충성은 헌신짝처럼 버려질 것이고, 사람들은 거듭나기 전의 충성이나 행위들로 되돌아갈 것이다. 제자 삼지 않는 복음 전도나 그리스도의 명령에 대한 급진적 순종이 없는 부흥은 그저 조금 부족한 것이 아니라 위험한 것이다.”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처럼 산다면, 인도는 내일이면 너희 휘하에 있게 될 것이다.” “모든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이라면 오늘날 이슬람은 없을 것이다”¹⁹⁾

6. The Attention of the Gospel (복음의 관심)

“기독교는 가장 성경적(biblical)이면서 가장 동시대적(contemporary)이어야 한다.”

1984, 『현대 사회 문제와 그리스도인의 책임』 (Issues Facing Christians Today) (1990, 1999, 2006)²⁰⁾

1992, 『시대를 사는 그리스도인』 (The Contemporary Christian)²¹⁾

74 로잔언약의 제5항 ‘그리스도의 사회적 책임’ 중 일부

“물론 사람과의 화해가 곧 하나님과의 화해는 아니며 또 사회 참여가 곧 전도일 수 없으며 정치적 해방이 곧 구원은 아닐지라도, 전도와 사회 정치적 참여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의무의 두 부분임을 인정한다. 이 두 부분은 모두 하나님과 인간에 대한 교리와 이웃을 위한 사랑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우리의 순종을 나타내는 데 필수적이다. 구원의 메시지는 모든 소외와 억압과 차별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를 내포한다. 그러므로 우리는 악과 불의가 있는 곳 어디에서든지 이것을 고발하는 일을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 사람이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거듭난다. 따라서 그들은 불의한 세상 속에서 그 나라의 의를 나타낼 뿐만 아니라 그 나라의 의를 전파하기에 힘써야 한다. 우리가 주장하는 구원은 우리로 하여금 개인적 책임과 사회적 책임을 총체적으로 수행하도록 우리를 변화시켜야 한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7. The Proclamation of the Gospel 복음의 선포

1974년 제1차 로잔 대회(스위스 로잔)의 주제:

“온 땅으로 복음을 듣게 하자.” (Let the Earth Hear His Voice.)

1989년 제2차 로잔 대회(필리핀 마닐라)의 주제: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 그를 선포하라: 온 교회가 온전한 복음을 온 세계에 전하라고 부르신다” (Proclaim Christ until He Comes: Calling the Whole Church to Take the Whole Gospel to the Whole World)

19) John R. W. Stott, *The Radical Disciple*, 김명희 역, 『제자도』 (서울: IVP, 2010), 44.

20) John R. W. Stott, *New Issues Facing Christians Today*, 정옥배 역, 『현대 사회 문제와 그리스도인의 책임』 (서울: IVP, 2011).

21) John R. W. Stott & Tim Chester, *The Contemporary Christian Series*, 정옥배, 한화룡 역, 『시대를 사는 그리스도인 시리즈』 (서울: IVP, 2016).

2010년 제3차 로잔대회(남아프리카 케이프타운) 주제:

“세상과 자신을 화목케 하시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God in Christ, Reconciling the World to Himself) -고린도후서 5:19(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케 하시며…)

2024년 제4차 로잔대회(대한민국 서울) 주제:

“교회여, 함께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나타내자”(Let the Church Declare and Display Christ Together)

74 로잔언약 제3항 ‘그리스도의 유일성과 보편성’ 중 일부

“예수님을 ‘세상의 구주’로 전하는 것은 모든 사람이 자동적으로나 궁극적으로 구원받게 된다는 말이 아니며, 또 모든 종교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원을 제공한다고 보장하는 것은 더욱 아니다. 예수님을 ‘세상의 구주’로 전하는 것은 오히려 죄인들이 사는 세상을 향해 하나님의 사랑을 선포하는 것이며, 마음을 다한 회개와 인격적인 믿음의 결단을 통해 예수님을 구원자와 주로 영접하도록 모든 사람을 초청하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는 다른 모든 이름 위에 높임을 받으셨다. 우리는 모든 사람이 그 앞에 무릎을 꿇고 모든 입이 그를 주로 고백하는 날이 오기를 고대한다.”

VI. 나가는 말

로잔운동이 일어날 당시에는 시대적 아픔이 있었다. 전쟁의 후유증과 인종 갈등, 정치적 압제와 공산주의의 두려움, 기아와 난민, 착취와 소외, 동성애 이슈와 핵전쟁의 위협, WCC로 인한 선교의 침체, 무엇보다 분열과 대립 속에 가야 할 길을 찾는 전 세계 교회들과 목회자들의 탄식이 있었다. 로잔운동은 그 시대의 탄식에 응답한 것이다. 우리는 오늘날 팬데믹을 지나 뉴노멀을 맞은 이 시대의 또 다른 탄식과 도전 앞에, 교회들과 성도들의 부르짖음 앞에, 고통받는 사람들의 눈물 앞에, 반기독교적인 거센 세속의 물결 앞에 무엇으로 응답해야 하는가?

전 세계적으로 복음의 순수성을 인정받았던 한국 교회, 짧은 역사에도 불구하고 1905년 원산 부흥 운동과 1907년 평양 대부흥 운동을 이끌었던 신앙의 저력은 이제 묘연하다. 양적성장을 이루었지만, 성숙으로 나아가는데 한국 교회의 걸음은 더디다. 때로 이념적 대립과 갈등이 신앙의 본질까지 훼손하는 시대에, 로잔운동은 하나님께서 한국 교회에 허락하신 마지막 보루라 생각한다. “온 교회가 온전한 복음을 온 세상에 전하자”라는 로잔정신은 무너진 한국 교회의 영성을 다시 깨울 것이며, 나아가 흠어진 한국 교회의 마음과 복음의 일치를 도모할 것이라 믿는다. 동시에 복음의 본질과 복음의 역동성을 다시 한번 명료하게 보여 줄 이번 로잔대회를 통해 하나님의 세계 선교가 더욱 풍요롭게 되길 소원한다. 이를 통해 복음의 불씨가 한국 교회를 넘어 한국 사회를 개혁하고 갱신해 줄 전인차가 될 줄 믿는다. ‘교회여, 함께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나타내자’(Let the Church Declare and Display Christ Together).

VII. 그룹 토의 질문

- 1) 나는 복음주의자로서 무엇을 믿는가? 존 스토틀가 제시한 복음의 본질에 대하여 동의하는가? 아니면 반대하는가? 추가할 요소가 있다면 무엇인가?
- 2) 나는 말씀 사역을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정규적으로, 명확하게 선포하고 있는가?
- 3) 나는 사람을 변화시키는 복음의 능력과 영향력을 믿으며, 사역의 전반에 실천하고 있는가?
- 4) 마틴 로이드 존스와 존 스토틀의 논쟁- 분리할 것인가 아니면 공동체를 내부에서 갱신하는 방식으로 이끌어 갈 것인가? 복음주의자들로서 한국 교회의 분열 문제에 대한 깊은 반성과 회개가 우리에게 온전히 있어야 2024년 로잔 대회를 준비할 수 있다는 견해에 동의하는가?

